

소향들이 산사에서 권 대감의 49제를 지내고는 곧 파고다 공원 뒤에 거처를 따로 마련했다는 얘기는 이미 들은 터였다.

이번에는 인임들에게,
“대담하구나.”라고 말했다.

“뭐가?”

“이 더위에 세 사람 모두 파라솔이 없잖니. 미연 씨와 인숙은 학생이니, 파라솔은 안 되겠지만.”
“뭘, 우리들도 파라솔을 가질 권리는 있어요.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걸요. 전문학교 학생은—.”

“아니, 크게 나오네. 정부가 인정했다고?”

“인숙이는 최근 정말 굉장한 말을 하게 됐어요, 오빠. 웃는 것도 폭소, 걷는 것은 강행, 어머, 뭘였더라.”

“정복.”하고 미연이 덧붙인다.

“아, 그래. 정복—가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개간지로 정복 강행하는 거라구요. 하하하하. 쇼와(昭和) 아가씨는 과장을 떠드나요.”

“하지만 너도 시찰단이니 하며 굉장한 전보를 치지 않았느냐?”

“아니예요. 그건, 미연 씨예요.”

“거짓말! 거짓말!”

미연은 그렇게 외치고, 길가의 꽃을 따는 시늉을 하며 달아났다.

수봉 교수는 자연을 찬양하면서 휘파람을 불었고, 수진은 웬지 슬프게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다. 그렇게 그는 미연의 다리를 슬픈 눈으로 좇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문의 안내로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가건물 사무실로 돌아오자, 인임은,

“뭘예요, 오빠도 상당히 과장이잖아요.”

“뭐가?”

“그래도 아주 굉장하게 써 보내서, 저는 설악산을 무너뜨리나 했어요. 이 정도 공사에 설비도 별거 없잖아요. 지극히 원시적인.”

“원시적인 것이 좋지. 하지만 우리 사업의 특색은 폐물(廢物)의 갱생(更生)에 있어. 저 초원도, 저기 산도 그렇지. 자재(資材)도 그래. 국가가 절대로 필요로 하는 건 무엇 하나도 소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숙이 곧 끼어들었다.

“오빠는 바보예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세 사람이 화내요. 네 사람 다 폐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인숙이 이 녀석. 정말 입이 험해졌구나.”

“뭘, 괜찮습니다. 우리들 네 사람은 목을 내놓아도 절대 폐물이 아니니까.”

문이 웃지도 않고 말했다.

간단한 식사를 끝내고,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흩어져 갔다. 수봉은 마도로스 파이프를 들고 솔숲으로 사라졌고, 인임들과 인철 일행은 물을 찾아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다.

수진만이 혼자 쓸쓸하게 사무실 창에 기대, 얼빠진 시선을 멀리 던지고 있었다.

‘오는 게 아니었어.’

그는 그런 기분이었다.

‘완전히 어머니가 말한 대로다…….’

수향은 가지 말라고 했다. 가면 너 혼자 쓸쓸해질 수밖에 없다고.

‘사랑이라는 건 패기 없는 사람에게는 쓸쓸하고 슬픈 생각만 일으키는 법이다.’

수진은 모친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산사에서 그날 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친이 뭐라 하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말한 대로 만일 자신이 그날 밤 그녀에게 흠집을 냈더라면, 지금쯤 태고적 여자는 곤란할 정도로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 내 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새삼 자신의 패기 없음에 초조해졌다.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지금 한번 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나 역시 허사일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어디에 그런 양심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까지도 그는 자신이 모친의 계획에 은근히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분별없다 싶을 정도로 편안하고 가벼운 코고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몸에 잠재해 있던 미쳐 날뛰는 부정함 마음도 태양을 본 시커먼 어둠처럼 흩어지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에게 미연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범해서는 안 될 신성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안돼요! 그 여자에게 흠집을 내기까지 하면, 나는 더 나쁜 업을 쌓게 돼요, 어머니.”

그는 처음으로 본심을 토로했던 것이다. 회한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대의 탕이는 눈물을 조용히 흘렸던 것이다.

“조용히 하거라! 패기가 없기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잘도 하는구나.”

“뭐라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 여자만큼은 아무래도 손을 댈 수 없어요. 대지 않겠어요.”

“조용히 해!”

그렇게 소리치더니, 소향은 뻑뻑 담배를 피워뒀던 것이다.

그 후 수진은 유일한 동정자였던 모친에게조차 미연에 대한 일은 입 밖에 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지금은 그저 아침나절과 오후에, 살짝 학교 근처에 숨어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그는 행복했다.

삼화 둘

“이봐요, 미연 씨 산음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산음.”

미연은 무언가 마음의 준비라도 하듯 일부러 말꼬리를 길게 끌며,

“글쎄요. 얼마 안 멀어요.”

“그렇게 가까워요?”

“하지만 이십 리 이상은 되지요.”

“그럼, 그렇게 가깝지도 않네요.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공사장 바로 뒤에 있는 망양봉(望洋峰)을 오르고 있다. 작은 언덕인 듯했지만, 그녀들에게는 역시 험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정상은 시원했다. 바람도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망망대해가 유난히 심했던 이틀간의 열기를 싹 씻어 준다.

지평선에 하얀 배가 떠 있다. 얼핏 어두운 밤의 초승달을 연상케 했다.

인임은 꿈꾸는 듯한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인임 씨는 지금도 그를 생각하고 있을까.

“저, 인임 씨.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까?”

미연은 큰맘 먹고 물었다.

“뭘 말이에요? 괜찮아요.”

“당신,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니—.”

“산읍 말이에요.”

인임은 잠깐 얼굴을 붉혔지만,

“아, 그 시골 선생님 말이죠.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정말이지,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인임은 전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미연도 인임이 알고 있는 범위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녀는 정성과 산읍의 두 아주머니를 통해 단편적으로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인임에게도 이야기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해성과 미연의 교제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듯하더니, 미연에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자신의 기분을 내보였다.

‘이 여자와 나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태고시대의 여자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쓸쓸하게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외곱으로 생각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 없이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양보하고 물러난 자신의 패기 없음을 생각할 때, 인임의 대담함에 질투가 날 정도로 선망을 느끼는 것이었다.

언젠가 인임은,

“당신은 부모가 정해준 그런 결혼밖에 할 수 없는 여자로군요.”

그렇게 인임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은 바로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다. 한 세대는 확실히 뒤 떨어져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자기에게 신랑을 억지로 떠맡길 부모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웬지 처량한 기분이었다.

그때 인철이 땀을 흠뻑 흘리며 올라와서,

“나는 지금 너무 별난 남자를 만나고 왔다.”하고,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을 하며 털썩 앉았다.

“어떤 사람이요?”

“어업을 하고 있다지만, 너무 변했어. 개간공사에 인부를 지나치게 쓰지 말라고 성화하러 온 사람.”

“협박하고 싶은 거겠죠.”

알 만하다는 얼굴로 인임이 말을 하자,

“아니, 그런 건 아니야.”하고, 그는 강하게 부정했다.

“별나도 너무 별나다니요?”

“좋은 정치구나.”

인철은 감탄하며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그래도 이쪽은 인부가 부족해서 난처한 참인데, 인부를 지나치게 써서 곤란하다고 얘기해 오니.”

“그러니까 협박이지요.”

“아니,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 같아. 말도 무척 조리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로맨스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우선, 뭐라고 얘기해 왔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당신들이 개간공사를 시작해서 자기들 소(小)어업종사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부를 빼내거나 인부에게 가불금 지불하는 것을 그만두라, 현재 쓰고 있는 인부 중 어업자들에게서 가불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당신들 쪽에서 그 전액을 변상하라—는 거야.”

“어머, 심하네.”

“대담한 말이로군요.”

미연도 놀라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오빠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마고 했지.”하고, 인철은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 놀랐어요. 별난 건 오빠 쪽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승낙을 하다니. 오빠도 정말이지 어떻게 된 거죠?”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결국 네가 말한 별난 점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든 안 된다고 할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얘기를 듣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원래 그 사람의 부친이 어장을 하고 있었던단다. 그것이 실패해서 집은 파산하고, 부친은 정신이 이상해졌고. 그 남자는 그때까지 어딘가에서 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는데, 부친의비참한 패배를 눈앞에 목도하고는 ‘이까짓 것’하는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바다로 도전해 갔지. 그 바다에 대한 전의(戰意)가 정말이지 대단했다. 자신을 볼 때마다 바다는 비웃었다고 얘기하던데, 그 기분은 나도 잘 알아. 나도 그 남자와 바로 같은 경우니까—.”

“그 사람이다.”

미연은 작은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

인임도 그렇게 생각한 듯,

“아버지도 그 남자와 만나셨고?”하고 물었다.

“아니, 아버지는 낚시 가셨어. 수진 삼촌은 보았을 걸. 그런데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임은 당황해하며 얘기를 탄 데로 돌려,

“그래도 대담한 사람이네.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당당하게 강요하다니—.”하고, 모른 체했다.

그러나 미연은 좀 당혹스러웠다. 흥미로운 로맨스가 있다고는 어떤 의미일까. 설마 그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말을 술술 늘어놓았을 리도 없지만, 해성이 말하지 않았다면 인철이 어디에서 그 얘길 들었을까. 게다가 인철이 말하는 로맨스란 여육에 관한 것뿐일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언어 들었다면, 자신의 이름이 불러 나오지 않았으리라고는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었다.

미연은 안절부절 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인철이 모든 것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그 여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알면, 인철이 어떤 얼굴을 할까.

“물론 터무니없는 요구인 건 분명해. 그런데 듣고 있으면, 그게 조금도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서 이상해.”

“아니,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임은 웬지 자신이 칭찬받을 때 같이 기뻐하는 얼굴이다.

“아니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 남자는—. 그렇다고 그 남자가 말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야. 지극히 서투러. 얼굴도 잘난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얼굴이지. 그런데 말하는 게 정말 가슴에 와 닿았다.”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인철은 기뻐서 견딜 수 없다는 듯 지껄이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말해, 그 남자가 그에 상응하는 진실을 갖고 있을 지도 몰라. 대개 진실이란 그런 거지. —나중에 마침 인부 중에 그 남자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남자의 슬픈 로맨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말솜씨가 좋은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울린 것은 바로 그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들려줘요. 그 로맨스.”

인철은 눈을 감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남자가.”하고, 그는 계속했다.

“그 남자가 바다에 대한 복수를 맹세를 했을 때의, 그 반항하는 듯한 얼굴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게다. 눈을 뵈족하게 부릅뜨고, 미간(眉間) 근육이 ‘꿈틀’하고 움직이더구나. 정말이지 굉장한 얼굴이었지.— 봐. 저 넓은 바다를 적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거야. 저 망망대해를—육지의 몇 배나 되는 그 넓은 바다를.”

듣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인임의 심중(心中)을 꿰뚫어 보고 일부러 짐짓 모르는 체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칭찬이었다.

“내가 만일 여자라면, 그 남자와 결혼이라도 하겠어.”

인임은 미연을 돌아보고 씩 웃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의 로맨스를 들려 줘요, 오빠. 그렇게 슬퍼요?”

“슬프지. 너무도—. 들으면 눈물이 날걸.”

“저는 마음껏 울고 싶어요. 웬지 그렇게 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만해요.”

미연이 곤란하여 제지하자,

“미연 씨, 울고 싶지 않아요? 비련의 주인공을 위해, 실컷 울어 주자구요. 네, 말해주세요. 그 대신 밤에는 불고기 한 톨 낼게요.”

“불고기—는 안 될 지도 몰라. 하긴 장 군(君)이 고기를 잡으러 갔으니, 아버지가 낚은 민물고기를 주면 돼지. 민물고기 튀김은 맛있거든. 그럼 이야기해 볼까. 그 대신 실컷 올라구. 그러면 내 저수지도 도움이 되지. 미연 씨, 당신도 실컷 울어 주세요.”

그것은 몇 번 들어도 슬픈 얘기이다.

이야기 면에서도 표현 방식에서도, 인철은 분명 미연보다는 뒤떨어졌다. 지명(地名)도 불확실하고, 사람 이름은 무지(無智)한 여자에 학교 선생으로 통해 미연에게 들었을 때보다 웬지 수박겉핥기 식이라 직접 와닿는 실감(實感)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인입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미연도, 인철이 그 이야기에서 자신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숨 막힐 정도로 긴장조차 하지 않았다면, 가슴 깊이 묻혀 있는 슬픔이 일깨워져 그곳에서 쓰러져 울었을 지도 모른다.

“그날 밤도 그녀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손수 만든 옥수수를 정성들여 보자기에 사들고, 고된 일로 흐물흐물 피곤해져 떠지지 않는 눈과 싸우면서 밤마다 자수한 넥타이를 가슴에 안고 어두운 밤 길을 걷고 있었지. 뭔가 산기슭을 지나가는 것 같이, 그 주변은 늑대나 여우같은 것이 튀어나올 듯했지만, 그녀는 무섭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해. 다만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건넸으면 좋겠다, 선생님께 인사를 받는다는 건 당치도 않다, 그저 자신이 농사지은 옥수수를 선생님께서 드셔 주시면 그걸로 행복한 거다…….”

슬픈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여옥이 죽을 때까지의 심리 상태를 자세하게 듣고서, 인입은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باب, 정말 우는 거야? 어, 미연 씨도 울고 있네. 여자란 저렇게 잘 운다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인철조차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겨우 억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미연은 전전긍긍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확연하지 않다. 인철은 자신의 얘기를 어떤 학자의 딸이라고 했지만, 그 학자의 딸과 해성과의 관계는 잘 알지 못하는지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성이 산업을 떠난 이후의 일은 자기보다 자세히 알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 슬펐어요.”

인입도 겨우 눈물을 그치고 잠시 바다 건너편으로 멍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 학자의 딸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하고 오빠에게 물었다. 미연이 묻고 싶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질문이기도 하다.

“모른다. 나도 그걸 물었지만, 그 인부도 그 후의 일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어딘가 시집이라도 갔겠지.”

“아니예요. 나는 알고 있어요, 오빠.”

“무슨 말이냐?”

“정말이에요. 제가 그 남자 이름을 말해 볼까요. 유—해—성!”

“아니!”

인철은 느닷없이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는,

“네가 어떻게 알고 있지? 확실히 유해성이라든가 했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믿으세요. 학자의 딸은 말이죠, 이쪽이에요!”하고, 미연의 어깨를 툭 쳤다.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순간 미연은 얼굴에서 싹 핏기가 가셨다.

“그게 정말이냐?”

인철이 외치자, 인임은 미연에게 쓰러지며 웃어댔다. 잠시 후 인임의 말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인철은 몹시 피곤에 가까운 안도의 빛을 얼굴에 나타내는 것이었다.

사흘 후, 미연들은 개간 공사장을 떠났다. 그동안 온통 유해성의 얘기뿐이었던 처라, 미연은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흘을 보냈다.

미연이 인임의 마음을 헤아리고—라기보다 탐색하고 싶은 생각에서 좀더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권하자,

“그래요, 아버지도 금강산에 가신다고 하니, 저는 아버지와 같이 돌아가기로 하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말하고 남았다. 미연에게는 좀 뜻밖이었다.

인철은 수진에게 빈둥거리고 있어도 별 수 없으니, 공사장에서 일할 것을 권했다.

“일할 수 있으면 해봐요. 하지만 오늘부터 당장 하라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와 상의하고 다시 오세요. 일가(一家)를 꾸리고 있으면,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일도 있을 테니.”

인철들은 역까지 배웅해주었다.

미연은 쓸쓸했다. 해성은 조만간 한번 더 인철 등과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무인도에 해성과 인임만 남겨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인임은 살짝 미연의 귀에 속삭였다.

“그 사람, 이삼 일 내로 한번 더 온대요. 저,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도 웬지 제 일생을 지배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무서워요.”

“역시, 인임 씨는 나 같은 사람보다 50년 정도는 확실히 앞서 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묘지에서의 삽화(挿話)가 인연이 되어, 경사스레 결혼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녀였다. 하지만 해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완전히 태도를 바꾸는 인임의 대답함에 질투에 가까운 일종의 반감마저 느끼는 것이었다. 청기와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미연은 웬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학교에서는 남경(南京) 함락 3주년 기념일을 정해 ‘음악과 무용의 밤’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다과회 정도로 하려고 했던 것이 점점 규모가 커져, 그럼 한번 부민관(府民館)으로 진출해서 부민(府民)에게 호소하자는 식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날 저녁 대공연의 하나인 ‘자금산(紫金山)의 비가(悲歌)’라는 제목의 무대에서 그녀는 춤을 추기

로 했다. 성난 파도처럼 남경에 일시에 사태처럼 들이닥치는 황군(皇軍)의 진격을, 자금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장개석(蔣介石)의 탄식을 풍자한 것이다. 원작은 ‘장(蔣)에게 보내는 말(言)’이라는 한 중군기자의 시(詩)로, 여기에 무용 선생이 안무를 한 것이었다.

그 첫 연습날이었다. 미연이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수봉이 혼자 돌아와 있었다.

“인임 씨는 함께 오지 않았나요?”

“아니, 나는 혼자였는데. 내금강에서 곧장 돌아왔거든요.”

“그랬군요.”

미연이 물러나려고 하자,

“미연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하고, 수봉이 멈춰 세웠다. 그러나 수봉은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 아무런 말이 없다. 그녀는 전신이 가려워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불일이 있으세요?”

그렇게 재촉하자, 비로소 그는 정신을 차린 듯 당황해하며,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미연은 울고 싶은 쓸쓸함에 쫓겨 총총히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소향을 찾아보고 싶었다.

수진과 얼굴을 대하는 것은 싫었지만, 소향과라면 시름을 잊을 수 있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소향은 기쁨을 억누를 수 없다는 듯 환영해주었다. 싫다고 해도 태극부채를 부쳐 주기도 하고, 이마에 땀 땀을 닦아주기도 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남의 집에 왔을 때는 매사를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집에는 다시없는 귀한 손님이니, 환해대 드려야지요.”

그렇게 말하며, 부채 든 손을 쉬지 않는다.

“수영 씨는요? 아주머니.”

“나갔어요. 하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잠깐 친구한테 간다고 해서. 좋지 않군요, 모두 부재 중이라. 수진이기도 방금 전에 나간 참이고.”

소향의 거짓말은 몸에 뻐 것이다. 수진도 수영도 오전 중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한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또 한 사람은 사랑에 풀이 죽어 있다. 소향은 수박을 사오기도 하고 캐러멜을 권하기도 하는 등 그녀를 환대해 마지않았다.

“아주머니. 너무 이러시면 거북합니다.—정말이지 아무런 대접도 필요 없어요.”

수박을 잘라 입에 넣어주는가 하면, 휴지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미연은 감사하기보다도 곤란했다.

학교에 관한 것, 물가에 관한 것 등이 잠시 화제에 올랐다. 그것이 끝나자,

“아, 그렇지.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지 않았네. 오빠에 관한 소식은 아직 전혀 몰라요?”

“예, 죽었는지도 모르지요. 저는 거의 단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에요?”

그러고 보니, 미연은 비로소 소향의 어법이 이전과는 꽤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행하는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 인간의 말이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일까. 그녀는 날랜 눈으로 실내를 둘러보았다. 이렇다 하게 달라진 가구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웬지 달라진 생활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웬지 안정되지 않은 들뜬 느낌이었다. 잠시 있다가 미연이 일어서려 하자,

“벌써 가시게? 어머, 안 되는데. 좀 할 얘기도 있고.”하고 만류하며, 그녀의 예상대로 수진의 근황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최근에는 현저히 좋아졌어요, 미연 씨. 술도 딱 끊고, 밤 놀음도 않고, 집에 관한 일도 이전과는 달리 이것저것 돌봐주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것도 모두 미연 씨 덕분이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소향은 정말로 진지한 체 격식 차린 인사를 했다.

“아니예요, 아주머니. 수진 씨가 좋아진 걸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아니요. 이제 이 나이에 미연 씨에게 알랑거리는 말을 할라구요. 진심이에요. 그 아이는 당신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 그럴 뿐이지만, 정말 좋아졌어요.”

“어머.”

“정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말을 꺼내다가는,

“아, 돌아왔구나, 수진이나?”

“다녀왔습니다.”

“귀한 손님이다, 수진아.”하고, 모친은 말했지만, 들리지 않는 듯이 뒷마루에 앉은 채로,

“이상해요, 어머니. 오늘은 미연 씨가 학교를 쉬 것 같아요. 아프가.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잠깐 가봐 주실래요?”

“싫다, 나도.”

소향은 히죽 웃었다. 미연은 큰일났다고 생각했다.

분규(紛糾)

미연에게 그날 밤은 바로 수난의 밤이었다. 협소한 데 비해 통풍이 잘 되는 방이었지만, 그녀는 흠뻑 땀에 젖었다.

미연은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지 않는 소향이 원망스러웠다. 심한 증오감마저 느꼈다. 게다가 수진의 불을 토하는 듯한 사랑 고백은 끝날 줄을 모르는 것이다.

“이미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미연은 숨이 막힐 듯해 몇 번이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지금, 5분이면 됩니다. 제발.”하고, 제지당했다. 무리하게 일어서려 하면, 팔이라도 붙들 듯한 협박한 태도다.

“남들—특히 저 청기와집 사람들에 의하면, 나라는 인간은 술고래에 색한이고, 도둑놈에 게으름뱅이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어떻게든 손을 쓸 수 없는 불량배입니다. 과연 나는 술고래고, 색한이고,

도둑놈, 불량배입니다. 하지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집 사람들입니다. 나도 태어날 때부터 술고래는 아니었습니다. 집안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더불어서 말이죠. 어머니는 권 대감의 처지만 기생출신이고, 나는 그 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수진 씨를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연은 달래듯이 말했다.

“아니, 물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는 내게 없겠지요. 나는 다만 당신에게 술고래이자 도둑놈이고, 색한인 변덕쟁이로 여겨지는 게 슬픕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배도 일생에 한번은 진지하고 진실한 사랑을 느끼는 법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여러 여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나라는 인간에게는 이제 진실 같은 건 없다, 한 여자를 진실로 끝까지 사랑하는 순정 따윈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라는 여자를 만나, 내 몸 안에 숨어 있던 진실한 순정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된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신용하지 않겠지요. 믿어 달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나라는 인간이, 당신이라는 여성으로 인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는 확인해주세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권 대감의 사후 49제 때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얘기를 듣고 있던 미연은 소름이 끼쳤다. 좀 더 하면, 소리를 지를 것 같았다. 그리고 보니, 그날 밤 수진은 여느 때보다 안절부절했다. 자신을 보는 눈도 웬지 모르게 흐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미연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수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남의 말을 들을 것까지도 없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남자이지요. 사랑하는 여성에게 흠집을 내려 한, 정말이지 그것은 비열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겼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그 친구에게서는 패기가 비웃음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나는 곧 그 자리에서 깨끗해집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욕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나는 이제 스스로 내 마음을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수진은 조용히 오열하기 시작했다.

청기와집으로 돌아온 것은 이미 11시가 넘어서였다.

수봉도 그의 아내도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수봉의 처인 윤 씨가 이야기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미연은 도망치듯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다. 여러 얼굴과 상념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한다. 수진, 해성, 인철……남자들의 얼굴이 사라지면, 인임, 여옥, 수영 등의 얼굴이 떠오른다.

“수영 씨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을까?”

문득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수영이 어떤 젊은 남자와 팔짱을 낀 탓에 바싹 달라붙어 담소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수영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듯, 무언가를 열심히

히 속삭이면서 지나갔다.

무척이나 행복한 것 같았다.

인임이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다. 인철이, 무위도식 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며 아침저녁 취사를 시키고 낮에는 공사를 돕게 만들어서, 얼굴도 새까맣게 탔고 손도 거칠어져 있었다.

“보세요. 이렇게. 오빠는 너무 심해요.”

그렇게 말하며 인임은 벌에 그을린 거무스름한 팔을 걷어 올려 보였다.

“어떻게, 그 뒤 유 선생님은 만났고요?”

“만나지 못했어요. 요 전 얘기는 없던 걸로 해 달라, 어떻게든 곤경에서 벗어날 테니 안심해 달라— 그렇게 전해왔어요. 상당히 제멋대로인 사람이예요.”

“바다에 나가 보면 좋았을 텐데—.”

“설마—, 어렵도 없지요.”

인임은 그래도 명랑하게 웃었다.

“그래도 유쾌했어요.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밤엔 녹초가 되었지만, 그래도 좋은 음악을 듣고 있는 듯한 피곤함이었지요. 게다가 그 사람들—장 선생님과 문 선생님 말이죠. 너무 재미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렇지. 오빠와 동창인 곽 선생님 그 분도 12살 때에 결혼했다면서, 우리들은 모두 늙은 아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요. 그래도 감탄했어요. 세 사람 모두 굉장히 늙은 아내를 돌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자, 우리들은 세 사람 모두 늙은 아내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합창을 하며 재미있어 했지요.”

“감탄했어요.”

“그중에서도 문 선생님 말이죠. 그 고등공업 출신 기사 분 있잖아요. 그 분도 열두세 살 무렵 결혼하게 된 탓에, 부인이 무서워 밤이 되면 굉장히 울었다네요. 그런데 바로 3년 전 마음을 바꾸어, 늙은 아내 돌보기 무리에 가입했다고요. 그리고 보면 곤란한 걸요.”

“뭐가요?”

“우리들 같은 노처녀 무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서 버리잖아요. 때로 늙은 아내를 버리는 사람도 나와주지 않으면—.”

그때는 두 사람 다 재미있고도 우스워 웃었다. 하지만 그저 웃어버릴 수만은 없다. 그녀들의 하나의 고민이기도 했다.

“그리고 보니, 나도 이미 노처녀네.”

미연은 웃었다. 쓸쓸했다.

“그래도 미연 씨는 괜찮아요.”

“왜요?”

“그래도 한 사람의 유능한 청년이 상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요.”

“거짓말!”

“거짓말이라구요? 정말 괜찮은 후보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한눈팔지 말고 자꾸자꾸 곤장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방황하면 안돼요.”

‘방황해서는 안 된다…….’

미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방황해서는 안 된다…….’

이 한 마디는 오랫동안 그녀의 머리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인철이 인임에게 어떤 의미의 말을 했는지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녀가 알고 싶은 것은, 인철이 해성과의 그 간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보자가 수진을 가리키는 것인지였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임의 의중을 떠보았다. 하지만 역시 수진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수진과는 그날 밤이래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미연은 한 동안 그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산사에서 그의 무서운 음모로부터 처녀를 보호해준 수진. 미연은 자주 악몽에 시달렸지만, 깨어나면 본능적으로 몸을 더듬어 보았다. 확실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의 몸이다.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남자의 손 하나 닿지 않은 순결한 신체다.

‘아, 다행이다.’

미연은 보들보들한 손과 보들보들한 유방을 한번 만져보고는,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녀는 또한 소향을 찾아갔던 그날 밤의 일도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날 밤도 그는 열에 들떠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행동 따위는 하나도 하지 않지 않았는가.

“고맙습니다. 수진 씨, 저는 평생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미연은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수진에게는 일주일 이내에는 꼭 대답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수진의 선행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었다.

약속했던 일주일의 지나고 또 열흘이나 지나자, 수진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흥, 오늘도 학교 근처를 헤맸구나. 대체 너라는 인간은 패기 없음의 좋은 표본이야. 남자가 되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게냐. 그러고도 네가 남자냐?”

소향에게 그렇게까지 매도당하자, 수진은,

“뭐라 해도 좋아요. 나는 어머니 같은 악인에게겐 이골이 났으니.”하고 반발하여, 소향을 노엽게 만들었다.

“흥, 훌륭한 선인(善人) 아들이 태어났구먼. 한번 더 말해보렴. 악인이라고! 너 같은 선인 아들에게 악인 어머니는 필요 없을 테지. 당장이라도 빨리 나가 버려!”

“그러지 않아도, 나갈 거라구요!”

수진은 거칠게 장지문을 박차고 밤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그에게는 술은커녕, 차마실 돈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수진은 꼬르륵꼬르륵 비명을 울리는 배를 움켜쥐고는 거리에서 거리로 방황했다. 이미 슬슬 목도리조차 눈에 거슬리지 않기 시작했는데도, 색 바랜 춘추복 차림으로 상점 윈도우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도 하고, 야시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실랑이를 남의 어깨 너머로 바라보기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개 11시 경이다. 1시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날은 비트적비트적 청기와집으로 발걸음을 옮겨, 물끄러미 미연의 방을 바라보는 것이다.

불이 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는, 풀이 죽어 겨울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무렵 어느 싸리눈 내리는 밤, 인철은 이삼 일 예정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찮게 그 별난

남자와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

손을 씻고 자리로 돌아가던 인철은 한눈에 곧 그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어라!”하고 소리쳤다. 유해성도 금방 인철을 알아보았다.

유해성은 동생 해수가 지원병 훈련소에 입소하기로 되어 있는 터라, 해수를 전송할 겸 잠깐 불일도 겸해서, 이삼 일 예정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거 잘되었군요. 열심히 해주세요.”

인철은 옆자리 앉은 늙름하고 오똑한 콧날이 얼핏 칼날붙이를 연상케 하는 하얀 얼굴의 청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몸이 약해서 어떨까 싶었는데, 그래도 결과는 좋게 2등급 상으로 통과했습니다. 자네 얼굴은 잘 갈아 놓은 일본도(日本刀)를 연상케 한다고, 시험관이 말했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해성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다.

얼마간 전쟁 얘기를 나누다가, 해성이 올 여름 첫대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꺼냈던 것을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보니, 그 후 한번도 못 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는?”

“약속을 어겨 죄송했습니다. 그 후 곧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지요. 곤경은 어떻게든 벗어나야 했던 터라, 그만 실례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결손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잘됐네요. 실은 그뿐만 아니라, 당신과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기상에 많이 격려 받았거든요.—아니,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들 사업 쪽에 가세해주셨으면 하고, 제멋대로 그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 괜찮습니다.”

해성은 별난 녀석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후의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차 어떤 난관에 부딪쳐도 바다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국 헛일이라면, 나는 바다에 깨끗이 항복할 겁니다. 바다도 그러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금슬금 도망치는 것도 나는 싫습니다.”

“당신의 무서운 추진력에는 경의를 포함합니다.”

인철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좋은 스승을 얻은 기쁨을 그는 해성에게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하면, 금방 꿈무늬를 빼는 경향이 있는 퇴폐적인 지식층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조류에 격려 받고 있는 것을 알고 몹시 기뻐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고 용기도 배가(倍加) 되었다.

“안미연 씨를 아십니까?”

해성은 순간 의아한 얼굴을 했지만, 금세,

“아, 참. 권 씨였지요. 압니다. 정말 기이한 인연이군요. 나는 깜박하고 있었습니다.”

차츰 이야기가 물이 오르는 참에 기차가 청량리역에 미끄러지자,

“그럼, 언제 또—내일 아침 일찍 가야해서 우리들은 훈련소 부근에 머무를 겁니다.”하고, 해성은 허둥지둥 내려갔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나와 달라고 주소가 들어 있는 명함을 건넸다.

인철이 청기와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럭저럭 11시 경이었다. 그런데 인철은 펄떡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큰사랑 모서리를 가로질러 나무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한데!”하며 막대모양으로 꺾꽂이 서 있자니, 이번에는 새하얀 그림자가 역시 그쪽을 뒤쫓아 갔다.

순간 인철은 혈관의 피가 바짝 얼어붙는 듯한 무감각에 휩싸였다. 처음 검은 그림자를 본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얀 그림자가 그의 뒤를 쫓고 있다.

‘미연이 그런 여자였던가.’

그는 어안이 병병했다.

이렇게 된 것도 수진의 삼촌의 의지—아니, 소향이 최후의 수단을 써서 그녀를 뒷에 빠트렸기 때문임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미연이 상복 차림으로 남자를 쫓아다닌다고는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의 의지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녀가 이렇게 맥없이 삼촌의 손에 넘어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따뜻하다고는 해도, 겨울밤이다. 추위도 공포도 잊고, 남자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여자의 모습—그것이 여신(女神)처럼 존경하고 굳게 믿었던 여자의 모습이라고는, 정말이지 비참했다.

인철은 소리 내어 울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냉정함을 되찾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뜰 남쪽의 은행나무 그늘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안채로 들어갔다.

모친과 입분이만 깨어 있었지만, 수봉도 곧 일어났다. 지나는 길에 보니, 미연의 방은 불도 꺼져 있다. 서양식 방의 난로에 불을 지피고는 바깥쪽에 신경을 쓰고 있자니, 2, 30분이나 지나 미연이 돌아오는 기척이 났다.

‘그런 여자였던가.’

인철은 한번 더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긴 의자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곧 고쳐 앉아 팔걸이의자를 난로 옆으로 끌고 가서, 깍지 낀 양손으로 목덜미를 내리눌렀다. 그리고 조용히 오염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소리 하나 나지 않는 겨울의 정적은 슬픈 가락으로 바뀌고, 여기에 가락을 붙이기라도 하듯, 짜리눈은 어느 사이엔가 커다란 함박눈으로 기세를 더하고 있다.

미연도 슬펐다. 미연은 인철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싶었지만, 북받쳐 오르는 오염을 도저히 억누르지 못하고, 인철이,

“바보 같은 여자!”라고 격한 분노에 불타 매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비틀비틀 인철의 서재에서 물러났다. 자기 방에 돌아오자,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소리를 내며 쓰러져 흐느끼고 말았다.

그래도 이튿날은 평소대로 학교에 갔다.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육신육신 아팠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수진을 찾아갔지만, 공교롭게도 수진은 외출한 터였다. 그대로 돌아올까도 싶었지만,

‘없는 게 차리리 좋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쳐 앉았다. 그리고 어젯밤 수진이 밤중에 밀어닥혀서 어찌할 바 몰랐던 일의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창을 열든가 나가 주든가 하지 않으면, 요란하게 떠들어댈 듯한 태세여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런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 당신은 오해하고 있어요. 그 아이도 그렇게 근본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돌아가세요. 늦었으니 빨리 돌아가세요.”

소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오자, 웬지 모두의 얼굴이 이상하게 창백하다. 인철은 낮 기차로 공사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아침나절에 할머니가 오셔서.”

“그럼—.”

조금 전에 만났을 때, 소향은 왜 그 사실을 숨겼던 걸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인임이,

“미연 씨, 드디어 우리들을 배신했군요.”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미워요! 미워! 거짓말 하는 사람 따위, 정말 미워! 할머니에게 다 들었어요.”

소향이 어떤 말을 퍼뜨렸을까. 거의 빌다시피 부탁해도 인임은 굳게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인숙에게도 알아보았지만, 역시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이제 방법이 없다. 소향 할머니에게 따지는 수밖에.’

이튿날은 그렇게 마음먹고, 소향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밤이었다. 얼굴을 드니, 곧 숨이 막혔다. 전선의 비명에 뼈가 끊어질 것 같다.

큰 거리로 나가자, 바람이 한층 심했다. 걸핏하면 휘청거리는 태풍 부는 시가지지를, 미연은 옷깃을 세우고 얼굴을 움츠리며 총총걸음으로 쏜살같이 나아갔다. 뒷사람이고 뭐고 없다. 어떤 것이든 다 말 해줘야지. 뭐 상관 있을라고, 하고 씩씩거리며, 파란 페인트가 칠해진 대문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제까지 없던 꽤 나이든 노파가 혼자 마른 명태를 가늘고 잘게 찢고 있었다.

“아무도 없어요?”

“예.”

“수영 씨도?”

“아가씨 말인가? 예.”

미연은 꽤 오래 기다렸지만, 아무도 돌아올 것 같지 않다. 하는 수 없이 9시가 지나 풀이 죽어 돌아오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은 뒤에서 부는 바람이라 얼마간 견딜 만했지만, 그래도 거의 눈을 뜰 수 없었다. 교동(校洞)의 큰 길을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그런데 천도교 앞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그녀는 전봇대를 껴안고 있는 한 남자와 부딪칠 뻔하여 깜짝 놀라 물러섰다.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다.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혀가 돌아가지 않는데다, 여하튼 저 심한 바람 탓에 물론 그녀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그것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모친에게 드나드는 연심(燕心)이라는 기생에게서 돌아오는 길이다. 기량도 노래도 좋은 편이 아닌데다 기생으로서는 좋은 나이도 지났지만, 그녀의 이름에 제비 연(燕)자가 있다는 사실에 뜻이 맞아 낮부터 둘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취했다 싶으니 어느덧 인사불성이 되었다. 눈을 뜨니, 연심이었다. 그는 그 경위를 깨닫고는, 용수철처럼 일어나 연심의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다.

“미연아! 오해하지 말아줘. 어머니가 나쁜 거야, 어머니가—.”

그런 말을 열심히 증얼거리는가 하면, 이번에는,

“어머니 바보! 거짓말쟁이…….”하고 마구 소리친다. 그런가 하면, 하하하하 큰 소리로 웃으며,

“연심이 년,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꼴좋게 됐군.”

그때 마침 묵묵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걸어오던 한 남자에게,

“저쪽에서 순사가 와요. 전시(戰時)라 들키면 꾸지람 들어요.”

그렇게 주의를 받았지만, 술에 취해 있는 그는 몹시도 부아가 난 듯,

“어떤 바보자식이야!”하고 불쾌할 정도로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말했다.

“바보 같으니, 순사가 온다구. 자, 자네 집 어디야. 데려가 줄 테니, 따라오라구.”

그 남자는 수진의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갔다. 그러자 수진은 뭐가 우스운지 계속 꺾꺾 웃으면서 끌려가는 것이다. 이윽고 순사에게 쫓겨 검문 당하자, 그 남자는,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마시지 않았으니, 데려가서 재우겠습니다.”하고 떠맡아 주었다. 순사는 칼을 찡그랑거리며 지나갔다.

그 남자는 뜻밖에도 유해성이었다.

유해성은 아우를 훈련소에 데려다 주고는, 커다란 선형을 베푼 직후와 같은 온화한 기분이 되어 가뿐하게 불일 보러 이곳저곳 다니고 있었다. 불일이란 삼으로 끈 줄을 구하는 일이었다. 예상대로 마닐라 삼줄은 어느 가게에도 없었던 터라 적절한 대용줄을 샀지만, 다른 가게에는 대용품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가 백 관이나 샀다.

불일은 그것으로 마쳤다. 어슬렁어슬렁 본정(本町) 상가를 둘러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분필, 노트, 연필 등을 샀고, 헌책방을 찾아다니며 『탐어(探魚) 길잡이』라든가 『어장(漁場)의 옛날과 오늘날』 등 책을 몇 권 샀다. 그물잡이들을 위해 제국지도와 세계지도도 사 두었다.

이제 야간 기차를 타면 되는 것이다.

그는 명치정(明治町)의 다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좋아하지도 않는 커피를 세 잔이나 마시면서 깊이 생각에 잠겼다. 오늘 우연찮게 인철과 만나고 보니, 거의 잊었다 싶었던 미연의 일이 조용히 가슴에 되살아나는 것이다.

한때는 정말 혜영과도 결혼할 생각이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며, 여옥의 일, 미연의 일, 거기에 일생의 반려가 되려 했던 혜영의 일을 냉정하게 떠올려 보는 것이었다. 여옥의 환영(幻影)은 언제까지나 애처로웠다. 미연에 대한 추억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웠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꿈이었다. 너무나도 덧없는 꿈으로 돌아가 버렸다.

‘나는 이제 그 여자 따위에 관여할 수는 없다. 현실은 어디까지나 내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여자는

이제 내 시야에는 없는 사람이다. 멀리, 그리고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나 따위와는 이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단념한 것이다. 아니, 단념하기 위해 자기 마음에 맹세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미연이 또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그의 목숨을 건 재출발에 절대적인 장애물을 던진 그 남자와 함께. 그 남자는 그가 자존심도 허영도 모두 팽개치고, 울며 매달렸던 남자인 것이다.

‘운명이라고는 해도, 얼마나 알맞은 운명인가. 미연이 내 얘기를 듣고 어떤 얼굴을 했을까. 게다가 나는 미연이 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해성은 인철들을 찾아가지 않으려 했다. 그 집에 가서까지 미연에게 부끄럽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 묘지에서 미연과 만났을 때는, 그녀가 수봉의 여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멸감은 일었지만, 질투심은 갖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어쩌면 인철의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지금까지 없었던 경쟁심이 불끈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만나줘!”

그렇게 생각했다. 어디 남만 못할까. 나도 소규모이긴 해도 사업가다. 거기에는 돌연 권 대감 집에서 으스스대고 있는 미연에게 들으란 듯한 기분도 작용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한 시간이나 걸려 청기와집을 알아냈지만, 인철은 이미 공사장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미연이라도 만날까 생각했지만, 그만 두었다. 그리고 일부러 명함을 소녀에게 건네고 서둘러 되돌아 나왔다.

자신의 명함을 보고 새파래질 미연의 당황한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이 후련해졌다.

돌아가는 길의 사각 모퉁이에서, 그는 미연과 아슬아슬하게 길이 어긋났다. 그러나 운명 탓에, 둘 다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수진을 만난 것이다.

“어디입니까? 당신 집은?”

“내 집? 집 따위 어디면 어때? 그보다 내게 시원한 걸 마시게 해줘. 목구멍이 탈 것 같아.”

두 사람은 종로로 나갔다.

“그건 마셔도 되지만, 이렇게 취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

시간을 보니, 이미 10시가 가까웠다. 기차 시각은 11시였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11시 차로 돌아가야 해서.”

“11시면 아직 시간이 있어. 당신은 촌놈이로군. 도리라는 게 있는데, 차 한 잔 정도를 뿌리치다니.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차 한 잔 대접하라구.”

“좋아 사지. 그 대신 경성내기가 열차는 책임지는 거다.”

두 사람은 다방으로 들어갔지만, 술을 보자 수진은 그만하라고 해도 듣지 않고 술을 시켰다. 밝은 곳으로 가보니, 어딘가에서 잠깐 본 듯한 기분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해성은 생각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무슨 장사를 하지?”

수진이 물었다.

“당신에게는 어떻게 보여?”

“글쎄, 네 얼굴은 얼핏 인간을 닮았군.”

“바보.”

하는 수 없이 해성은 웃었다.

“군수공업(軍需工業)은 아닌 것 같고. 군수공업이라면 좀 더 풍채가 갖추어져 있을 터. 금광(金鑛)의 덕대(德大)? 아니야? 그럼, 대장장이가 고작이겠군. 그렇지?”

“훌륭해.”

해성이 감탄해보이자, 수진은 이미 거만한 태도이다. 그는 기쁜 듯 마시고 먹고 하며 떠들어댔다.

“네가 대장장이라면 뭐든 다시 만들 수 있겠군.”

“할 수 있지.”

“그래? 그럼, 그 팔로 내 머리 한번 두드려 부숩 다시 만들어 줘. 사랑 같은 거 하지 않도록 말아야. 내 머리는 어떻게 된 건지, 한 여자에게 걸려들어 움직일 수가 없다구. 뭐? 그걸로 됐다는 건 뭐야? 바보 같은 소리 하는군. 생각하고 생각해도 무기력한 걸 어찌냐구.”

“그걸로 좋잖아.”

“그걸로 좋아? 자네라는 대장장이는 바보로군. 그렇다면 너는 무엇이든 잘못 만든 것이라도, 그걸로 됐어, 대단한 물건이군, 그럴 녀석이야.”

전작이 있었던 탓일까, 그는 두 병이나 마시고는 벌써 황설수설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조카놈에게 빼앗겼다고 화를 냈다. 산사(山寺)에서 있었던 일도 이것저것 지껄었다.

“상당한 미인인가 보군.”

해성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미인이지. 그래도 네가 좀더 괜찮은 대장장이였다면, 그 여자의 얼굴을 못생기게 고쳐주는 건데. 그러면 감쪽같이 내 손에 들어올 텐데—.”

해성은 이 남자가 재미있어졌다. 그도 이와 비슷한 일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도 생각된다. 차라리 하룻밤 정도 이 남자를 상대로 술을 마셔 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지만, 이미 그의 품속에는 푼돈밖에 남아 있지 않은 터였다. 그는,

“술 줘, 술.”하고 외치는 그 남자와 무리하게 헤어졌지만, 되돌아보니 그는 조금 전처럼 전신주에 머리를 파묻고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 다 상대방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헤어졌다.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사람이 나타난 걸 알고, 미연은 무언가 운명의 지도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다.

“지금 방금 나갔으니,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우리 집에 갑자기 오신 거죠?”

인입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얘길 듣고 보니, 그녀가 걱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인철이 집에 오자마자 간밤의 일과 맞닥뜨려 고민하고 있는 참인데, 거기에 소향이 나타나 미연과 수진과의 약혼을 발표한 것이었다.

“거짓말이에요, 오빠. 미연 씨가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리가 없어요.”

소향이 돌아가자, 인입은 처음부터 할머니 얘기를 부정했다.

“너는 모른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다. 믿을 만한 근거—아니, 증거를 분명히 포착했다.”

“어떤?”

“아, 그건 묻지 마라.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야. 이제 나는 현장으로 돌아간다.”

인철은 무거운 걸음으로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해성의 얘기를 꺼낼 형편도 아니었다.

일의 진상이 판명 난 것은 그 다음 다음 날이다. 남경 함락 3주년 기념일을 내일로 앞두고 있는 터라 마지막 총연습이었지만, 미연은 전혀 흥이 나지 않았다.

미연은 주역인 장개석 역을 맡았다.

“미연 씨, 요즘 왜 그래요? 전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무용 선생은 초조해 했다.

“장개석에게는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안돼요. 그래도 선은 분명히 굽지 않으면, 아무리 슬픈 장면이라도 그 슬픔이 살아나지 않아요. 좀더 힘을 내세요.”

“네.”

그러나 역시 허사였다. 그녀 자신이 초조해서 견딜 수 없다. 하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서 쉬기로 했다. 오빠를 꿈에서 보아 아무래도 우울해서 안 되겠다고 하자, 전교생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 잔뜩 위로받고 쉬게 된 것이다.

그녀는 돌아가자마자 곧장 자기 방에 처박혀 울었다. 그런데 거기에 인입 모녀가 들어와, 비로소 진상을 알게 된 것이다.

“어머, 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류하자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흘리고 다니다니. 쫓아 나간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니—.”

미연의 입은 거의 벌어진 채였다.

“이제 됐어요. 알았으니까. 뜻밖의 재난이지요. 우는 거 아니에요. 자, 웃어요. 웃고, 내일이 있으니 일찍 쉬는 게 좋아요.”

‘음악과 무용의 밤’은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미연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마음껏 춤추었다. 진군 나팔에 기세를 얻은 일장기가 건너편에서 와 하고 무대에 밀어닥친 그 순간, 장개석은 슬픔의 절정에 있었고, 군중은 환희에 불타 함성을 질렀다. 입성(入城)부대가 만세를 부르자, 삼천 명에 가까운 관중도 여기에 합세했다.

“이기고 왔구나, 늠름하게…….”

전교생의 함창이 무대 뒤에서 시작되자, 일순간 삼천 명의 대합창으로 이어져 대지를 흔드는 소동이 되었다.

그러나 이 커다란 감격과 상관없이 상심(喪心)한 듯 서 있는 남자가 있다. 군중은 출구로 일시에 쏟아져 나가는데, 의자에 달라붙어 움직이려고도 않는다. 큰 공간이 행하니 텅 빌 때까지 막이 내려 간 무대를 바라보고 있던 그 남자는 청소부의 주의를 받으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바보! 거짓말쟁이!”

그 탁한 울부짖음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개척되는 대지

유탄(流彈)과 같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총구를 튀어 나간 탄환 같다. 눈빛(雪光)에 반사되어 거의 분간하기 어려운 겨울 하늘에서 불쑥 검은 점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하얀 두 줄기 눈보라를 일으키고 골짜기 저편으로 날아갔다. 그것이 자꾸만 계속되었다.

피부에 닿으면 칼날처럼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눈이, 마치 하얀 목련 송이 같은 풍성함과 따뜻함을 주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색채는 시각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도 생리적으로 작용하는가 보다.’하고, 그는 생각해 보는 것이다.

‘—눈은 흰색이다. 저 꽃에 대한 애정과 고귀함, 그리고 여자의 살갓에 닿을 때의 그 따뜻함은, 흰색을 통해 눈과 꽃을 시각적이고 관능적으로 결부시키는 게 아닐까. 따뜻함도 결국은 흰색을 통해 관능적이고 육체적으로 숨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가 보다.’

그—권 인철은 대학생 시절, 인간은 먹는 것만으로는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 예술과 자연을 먹어야 삶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A박사에게 들었지만, 그 의미를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 덮인 봉우리들은 소용돌이치는 눈보라에 가려 파도 위의 배처럼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고 있다. 그 눈보라 속을 인탄(人彈)이 무서운 기세로 날아온다.

‘정말, 훌륭하군.’

인철이 스키를 직접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동일한 합성을 질렀다.

인철은 삼방악(三防嶽)의 눈빛 속에서 며칠을 지냈고, 뼈에 스미는 적막함이 엄습하자 어슬렁어슬렁 숙소(宿舎)를 바꾸었다. 이튿날 그는 석왕사(釋王寺)에 와 있었다.

어느 숙소에나 눈을 찾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눈 나라의 여왕처럼 몸치장을 한 여자들이, 웬지 모르게 그에게는 기고만장해보이기까지 했다. 결국 밤까지 숙소를 찾지 못해 야간열차를 타야 했지만, 아무래도 그 길로 개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것은 여기면 안 될 준엄한 규칙이기도 했다.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를 취할 것.’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규칙이었다.

‘사적인 일에 사로잡혀 사업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강력한 제재로 보답한다. 사랑에 빠지는 것 또한 이것에 준한다.’

정당한 투쟁은 크게 장려하지만, 반역과 배반에 비기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자살할 권한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 것도, 그들이 자신들의 혈맥(血脈)으로 이어받은 선조들의 당파심을 이를 갈며 저주했기 때문이다. 사생활의 안일(安逸)과 환상적인 조선의 행복을 혼동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서약이기도 한 것이었다.

‘우리들의 선조가 대 아시아주의의 준봉자(遵奉者)였다면, 우리들의 행복은 쟁취되었을 텐데.’

인철은 안변(安邊)에서 차를 갈아타고 그날 아침 일찍 개간장이 보이는 작은 역에 도착했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제 네다섯 역을 지나면, 유해성이 있는 바다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랑에 집착하는 자신의 괴씸함을, 그는 해성의 위대한 추진력으로 씻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료들 앞에는 생생한 얼굴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겨울 해가 막 떠오른 참인데도, 해성들은 벌써 바다에 나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이 손에 넣었다는 두 척의 어선이 대양의 한가운데로 용솟음치려는 순간이었다.

“어어!”하고, 해성은 그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좋은 때에 와 주었습니다. 좋아 보이는군요”

“무작정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철은 아이처럼 말했다.

“그렇습니까, 실은 저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이튿날 당신을 찾아갔지요.”

“그랬습니까, 이거 미안합니다. 잊은 것이 있어 곧 돌아왔거든요.”

“그랬었군요.”

“그럼, 미연 씨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거, 안 됐네요. 아버지와 여동생도 알고 있으니, 모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선을 멀리까지 배웅하고 그들은 숙소로 돌아갔다.

간단한 식사를 끝내고 해성은 갑자기,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에게 아버지가 당한거죠.”

외치듯 말했다. 간장으로 조린 청어였다.

“그래서 저는 매 끼니 이 놈을 먹습니다. 대가리는 물론 뼈까지 먹지요. 이렇게요.”

그렇게 말하는가 싶더니, 눈알이 없는 청어 대가기를 뼈째 아작아작 게걸스레 먹는 것이었다. 그것을 먹을 때의 얼굴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분노와 저주와 초조, 거기에 감출 것도 없는 잔인함과 환희가 서로 얽혀 있는 표정이다.

인철은 수저를 놓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열기와 용기의 화신(化身)이었다.

“한 때는 나도 절망했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려 간신히 일어서려는 참에 자금이 거덜났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백기를 들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달밤이었습니다. 내가 진부터 죽을 곳이라고 정해 두었던 형제섬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순간 승부는 완전히 바다로 돌아갈 참이었지요. 그런데 그 녀석이 내게 가한 압력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 녀석은 나를 옥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녀석의 매도가—죽으려는 자에 대한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잔인했던 겁니다. 어머니, 이것으로 행복인가. 그 패기는 대체 어떻게 한 거냐. 그 정도의 패기를 믿고 덤벼들었던 말인가, 창피하군. 나는 그런 소리를 푹푹히 듣고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그 녀석은 코웃음 쳤습니다. 큰소리로 하하하하, 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성은 잠깐 하던 얘기를 멈추었다. 그때의 걱정이 가슴에 밀려 온 듯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옥했던 것은—내 피는 끓었습니다. 머리는 피가 몰려들고, 굳게 앙다문 이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 녀석의 덩치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쳤지요. 뭐, 빌어먹을, 진다구? 네깻 녀석에게 이대로 백기를 든다구? 그렇게 흥분해서 그때 당신한테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 실례도 많았지요.”

“아니, 당신이 와 주어서 나는 기뻐했습니다요.”

인철은 그날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해성이,

“하룻밤이라도 주무세요. 이것도 하나의 기연(奇緣)이니—.”하고 만류하자, 뿌리칠 수도 없었다. 아니, 지금의 인철은 누구에게 의지해도 좋으니, 가슴의 고통을 달래고 싶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재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럼, 후의를 받아들여, 하룻밤 폐를 끼치겠습니다.”

“하룻밤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한번 느긋하게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내일 오후쯤엔 친구도 올 텐데.”

“그럼, 당신을 도와준다던?”

“그렇습니다, 이완규라고 합니다. 나와 교대해서 산읍 쪽으로 나갔습니다. 소설을 쓰고 있는데, 어전 일인지 출세를 못하고 썩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1시가 지나서까지 얘기를 나누었다. 어업이나 개간에 관한 얘기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제 끝났다 싶으면 그 어디쯤에서 또 얘기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었다. 마지막에는 하나의 의무에 쫓긴 듯이 되어 버렸지만, 두 사람 다 그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은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해성은 경성에서의 밤 일이 떠올라 용기를 내서,

“당신은 장남이었지요?”하고 속을 떠보았다. 역시 장남이었다. 그럼, 그 술 취한 청년을 공사장에서 만났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착각이었을까.

‘그럼, 나는 그 남자를 어디에서 보았던 걸까.’

해성은 아무래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 아무리 어깨 너머로 보았다 해도, 그가 만약공사장의 그 남자였다면, 내 얼굴을 기억할 게 틀림없다. 두 사람 다 생각이 나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착각한 게 틀림없다.

해성은 거의 단념했다. 바로 그때 인철이,

“나와는 거의 동년배의 삼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도 처음 우리 공사장에 왔을 때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하고 말을 꺼내자,

“아, 그렇군.”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하고 해성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어쩐지 당신에게 형님이 계셨던 것처럼 생각되어서—그 공사장에서 우리들이 얘기 나눌 때 곁에 계셨던 사람이 삼촌이셨습니까? 하긴 제가 정면에서 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분도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겨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

“집안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좋지 않지만, 삼촌은 정말이지 곤란합니다. 할머니가 너무 응석받이로 키웠거든요.”

인철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해성은 그것으로 충분히 알아들었다.

인철은 며칠간 해성과 같이 보냈다. 무서울 정도의 그의 투지를 만나, 인철은 사랑이라는 사내답지 못한 감정 따위는 날려 보내 버렸다.

그는 거친 바다도 보았다. 큰 산과 같이 성난 파도도 몇 번인가 경험했다. 하지만 그 격랑도 해성의 걱정에는 비할 바 못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잘만 되면 증기선을 살 겁니다. 흰색 칠을 한 귀여운 놈으로 말입니다.”

해성은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목선으로는 안 된다. 속력이 나지 않아 답답해서 안 된다고 했다.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그러는 가운데 산읍에서 이완규가 와서, 세 사람은 죽마고우라도 되듯 의중계 얘기를 나누었다.

인철은 미연에 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다. 해성은 그날 미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나오자, “그녀는 좋은 여자예요. 다만 한 가지 지나치게 동양적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흠 없는, 찾아보기 어려운 여자입니다. 한때 나도 그 여자와 결혼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요.”

“어째서 그만 두었습니까?”

그렇게 추궁 당하자,

“권 씨 집안의—청기와집이라고 했지요? 그 집의 담이 너무 높았던 거지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묘한 겁니다.”

어느 날, 해성은 진지하게 이렇게도 말했다.

“뭐가 말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신과 나 두 사람은, 굳이 말하자면 경쟁자라는 인연으로 맺어져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과 나는 좋은 우정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 미연 씨가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심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인간을 알고 나니, 그런 감정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심탄회(虛心坦懷)한 그런 느낌입니다.”

인철은 그런 해성에게서 일종의 압박감마저 받았다.

거의 열흘 만에 공사장에 돌아오니, 인임에게서 두툼한 편지가 와 있었다. 수진 삼촌의 약혼 사건에 관한 경위가 자세하게 쓰여 있다. 그것을 증거 하기 위해서인지, 수진 삼촌이 미연에게 보낸 편지도 동봉되어 있었다.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사실 그것은 어머니가 꾸며낸 것이

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미연 씨, 어머니를 너무 책망하지 말아 주세요.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꾸며낸 것이니까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인철은 곧장 답장을 썼다. 그간의 경위는 잘 알았다, 하지만 현재 자신은 그런 일에 구애받고 싶지 않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렇게 썼다.

사실, 그는 그러한 기분이기도 했다. 사랑 따위에 미혹되지 말고, 온몸을 바쳐 일 하기로 맹세했다.

그는 곡괭이를 사용하는가 하면, 수레 채도 잡고 트럭도 밀었다. 봄까지 그의 정력적인 노동은 계속되었다. 밤에는 인부들을 모아 교단에 서기도 했다. 겨울이라 붓둑(塚) 공사에만 온 힘을 쏟은 탓인지, 예상보다 거의 곱절이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글을 모르는 인부들의 대부분이 가나(假名)와 언문을 익혀 가는 것도 커다란 수확이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들이 전신 식량에 일조하고자 이 개간공사를 시작한 지 일 년이 됩니다. 이날을 즈음하여, 우리들은 먼저 이 일 년간 엄청난 더위든 폭풍 어는 추위든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어서 인철은 일단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 공사가 갖는 성격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다.

“이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여러분의 자각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날을 기해서, 그 결심을 한번 더 견고히 하고,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조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공사를 단순히 타관 땅에 나와 돈벌이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안계시겠지만, 이 신념—믿음을 지금 한번 더 견고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나 공무원, 실업가, 병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애국자인 것입니다. 학문과 지혜로 나라에 봉사하는 것만이 애국이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애국자는 아닙니다. 이 공사에 돌 하나, 흙 한 줌을 쌓는 것이 곧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전쟁을 치르는 데 아무쪼록 필요한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면, 거기서 저절로 위대한 용기와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공사가 이렇게 빨리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여러분이 모두 이 공사의 취지를 납득하신 증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진심으로 깊이 감격하여 우는 것입니다.”

인철은 그리고 나서 일러전쟁 당시 일진회원(一進會圓)이 아무런 보수 없이 저 대공사를 이루어낸 예를 들면서, 그 정신이 오늘날 다시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다음으로는 기사(技師)의 입장에서 문(文)이 등장하여,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약 일 년치 공사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일부터는 일부 개간 공사와 더불어, 당장 50호(戶) 정도의 주택 공사가 착공될 거라는 보고를 했다. 그러자, 일제히 와 하는 함성이 울렸다.

문은 다시 눈 및 주택 사용시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즉 눈은 법정 공정가로 환산하고, 주택은 실제 비용의 반액을 보조하며, 둘 다 30년에 걸쳐 갚는다. 이자는 6리, 우선권은 개간공사 당초부터 준 공까지 헌신한 사람에게 주고, 농장의 기구(機構)는 상호회사제(相互會社制)로 한다.

와! 하고 또 환희의 함성이 울렸다.

도(道)에서 내빈으로 초청받은 기수(技手)가 나오고, 다음으로 유해성이 등장하여 모든 면에서 이

사업에 찬사를 보내며,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개간원이 아니라, 이 농장의 지주가 된 것입니다. 내년 봄 무렵에는 저 망망했던 초원도 옥토로 바뀌어 푸른 벼가 봄바람에 나부끼고, 가을에는 이제 풍년가가 저 설악산도 뒤흔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연단을 내려왔다.

박수 속에 폐회식 국민의례가 끝났을 때, 톱질꾼인 노인이,

“나도 좀 말하게 해주세요.”하고 군중을 헤치며 나갔다.

“훌륭하군.”

“저거야!”

박수와 환희가 일어났다.

“정말 훌륭한 걸!”

인임도 감탄하여 상반신을 일으켰다.

톱질꾼은 연단에는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과거 50년간 자작 경지(耕地)를 얻으려 얼마나 싸워왔는지를 길게 말하고는, 그 일생의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본부석을 향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러는가 싶더니, 그곳에 엎드려 울음을 터트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환희의 소리가 봄날 아침 하늘에 퍼져 간다.

인임도 영겁결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석양을 신호로 물속 같은 정적으로 돌아가게 마련인 금강 농장 개간지가, 오늘은 초저녁부터 웅성거리고 있다. 봄밤은 희미한 별빛으로 간신히 사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천 명에 가까운 개척원은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 덕분인지, 쪽 열(列)을 이루며 나란히 서 있다. 앞쪽에는 아침의 연단이 그대로 서 있고, 그 뒤쪽에는 본부석이 설치되어 칸델라⁷⁵⁾ 등불을 중심으로 문과 탁 등 관계자와 인임들이 앉아 있다.

인철은 단 뒤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옆에는 개척원들의 교양부를 맡고 있는 박 태성이 북을 안고 대기하고 있었다.

“바보 같이 늦는군!”

박은 초조한 듯 동쪽 하늘을 바라보다가,

“나간다!”하고 외치는 소리가 나자, 둥둥둥 북을 세 번 연속으로 울렸다. 18일 밤의 달이 언덕 쪽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군중의 함성 속에 인철은 단에 올라가,

“여러분의 1년간의 노고를 생각하여 당국에서 막걸리를 특별 하사받았으니, 마음껏 오늘밤을 즐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술동이가 군중 속을 달렸다. 격한 소동 속에서 술이 분배되고, 장구와 북이 울리며 노래가 쏟아져 나왔다. 술 마시던 몇 무리의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여기저

75) 광도(光度)의 단위.

기에서 합창하기 시작했다.

천지거생(天地去生) 우리 땅은
편편옥토(片片玉土) 이곳이라
올을 산사데야
높은 곳에는 밭을 일구고
낮은 곳에는 논을 일군다
천하도 넓지만 평판은 높다
올 올 산사데야

“모두들 여기로 모여라!”

갑자기 징소리가 울리자, 본부를 중심으로 백여 명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물결쳤다.

“자, 노래한다!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드린 거다. 합창이다…….”

흥에 겨운 군중은 징과 크고 작은 북을 치고 혹은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했다.

들어라 모든 세상사람
사농공상(士農工商) 그 수가 많지만
농이 없으면 세상은 어둠이다
부귀공명이 다 무어나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양식을 만들어 세상에 보내고
천하의 근본 정하는 것은
우리들 빼고는 달리 없네

마음도 가볍게, 지금은 일 년의 수고가 끝나고, 눈 내리는 겨울에는 집에 있어, 처자와 더불어 즐긴다—라고 10절에 걸친 긴 가사가 끝나자,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수심가(愁心歌)가 불려지는가 싶더니, 이쪽에서는 쾌지나칭칭 노세, 하고 손에 손을 잡고 흥겹게 노래한다.

규방(閨房) 창에 달 비치면 흥
생각이 어지러워 잠 못 이루네 흥
에루와 좋다 흥
지화자 좋구나 흥

“좋지 않습니까?”

도(道)에서 나온 기수가 막걸리를 한 사발 단숨에 마시고는,

“자, 우리들도 참가하자.”하고 장구를 메고 나갔다.

“좋아, 간다. 자, 모두 나가자구.”

인임을 제외한 일동을 맞아 군중은 들끓었다. 그들도 춤을 추고 노래했다.

은하수에 걸린 다리가 흥
무너져 내려 만나러 갈 수 없네 흥
아이고 테고 흥
손 부아가 났구나 흥

[주] ‘흥’이란 자조(自嘲) 섞인 탄식이다. 달리는 이런, 일이로구나, 라는 의미의 기운을 북돋거나 장단을 맞추기 위하여 내는 소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계획대로 이튿날부터는 붓둑공사와 개간, 건축이 각각 진행되었다. 개간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도랑 파기로 돌렸다.

“이제부터는 우기(雨期)니까, 도랑 쪽을 착착 진행하지 않으면 안돼. 격류라도 온 다음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나무아미타불이다.”

문이 말했다.

“그래서 그쪽은 자네가 독려하는 거지. 건축 쪽은 겸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하지만 붓둑 공사가 있어. 자네에게 도랑과 벌목, 제재(製材) 쪽을 부탁하지.”

“알았네.”

인철은 가볍게 일어섰다. 흡사 눈이 돌 지경이다.

“이럴 때 유해성 군이 있어 준다면.”

인철은 진심으로 그를 원했다. 이번에도 인철은 열심히 부탁해보았지만, 그의 바다에 대한 투지를 급힐 수는 없었다.

“유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미연 씨도 마을이 생기면 아이들 탁아소를 세운다고 했어요.”

인임도 옆에서 거들었다.

“미연 씨가 벌써 졸업입니까?”

“평소 같으면 내년 봄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졸업기간이 앞당겨진다고 해요.”

“아, 그 소식 신문에 나왔어.”

그래도 유해성은 서둘러 바다로 돌아갔다.

인임은 단호히 자신의 심경을 오빠에게 털어놓을까 망설였지만, 역시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녀는 뭔가 유해성에게 호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유에게는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인지, 통해도 모른 채하는 것인지, 조금도 반향(反響)이 없다. 인임은 이삼 일 여기저기 어정거리다가, 돌연 경성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런 여동생의 심정은 인철이 알 리 없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인철의 일도 점점 늘어갔다. 소(牛)의 알선에서 식량, 작업화 등의

일용품 구입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뛰어다녀야 했다. 밤이 되어도 폭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곤잘 격류에 위협당하는 꿈을 꾸었다.

그래도 개간단원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해주는 터라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벌써 7월로 접어드는 어느 날, 박대성이라는 톱질꾼이 아침 점호에 보이지 않았다.

금방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찾아보니 자신의 일터에서 나무에 끼인 톱을 손에 쥔 채 앉아서 즐기고 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미 오래 전부터 밤중이 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걸 모르고, 어딘가에서 얘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 해도 봄부터 여름에 걸쳐 비다운 비는 한번도 내리지 않았다. 당국도 농민도 매일 해가 내리찍는 하늘을 원망하듯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근심의 빛을 더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지만, 비는 결국 내리지 않은 채 그렇게 여름을 맞이한 것이다. 모내기는 평년의 5할도 안 되었다.

이렇게 되자 당국에서도, 마침내 수원(水源) 조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작업장에는 뜻밖에 수도 수원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부러 인철들을 격려하러 와 주기도 했다.

“당신들은 역시 선견지명이 있군요.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빗물에만 의지하는 것은 애당초 안 되지요. 이 정도의 수원이라면, 백 년 가뭄이라도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겠군요.”

그날 아침

설악산 기슭의 초원이 착착 순조롭게 개척되고 있을 무렵, 바다를 향한 해성의 도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랜 숙원이었던 증기선도 손에 넣은 것이다.

“유해성은 벌써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하더군. 훌륭해.”

가난한 어촌에는 벌써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부친이 잃어버린 대부분의 토지도 괜찮은 값으로 샀다든가, 지금 근처의 어구(漁區)를 하나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든가—누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지 그런 얘기도 돌았는데, 그들 근거 없는 소문도 구조용 고무 튜브까지 갖추어진 하얀 칠을 한 증기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증기선은 당사자인 유해성조차도 자금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 이완규는 어떤 친구에게 부탁해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말했지만, 그 친구가 누구인지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주니, 나도 고맙다는 말 한 마디는 하게 해주게. 모른 채 하는 것도 좋지 않을 테고—”

해성은 지금까지 몇 번이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완규는,

“내가 표하는 예의만으로도 충분해. 자네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곤란할거야.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는 그렇게 말하며 피했지만, 실은 절대로 출자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권 인철과 한 것이었다. 인철이 그에게 증기선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말을 꺼냈을 때,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을의 소문이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 유해성의 어선은 봄부터

가을에 걸쳐, 전후 4, 5회의 큰 수확을 보였다. 소문대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잃은 자금의 몇 배인가는 분명히 더 벌어들였을 것이다.

줄곧 꿈에서만 보아왔던 증기선이 새하얗고 귀여운 모습을 어구에 나타낸 것은 쪽빛 하늘이 눈부신 늦가을의 낮 무렵이었는데, 그날 아침 일찍부터 해변에는 해성의 부친을 비롯해 인근 마을의 구경꾼들로 가득했다. 목선의 진수식(進水式)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들이고 보면 당연한 얘기였지만, 이 외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일도 없이 진심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해성들에 대한 끝없는 후의(厚意)였다. 쪽빛 지평선상에 하얀 배 그림자가 보이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함성이 터졌다.

배가 가까이 다가오에 따라, 군중의 술렁거림도 진정되어 지극히 엄숙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배가 형제섬 그늘에서 그 하얀 모습을 드러낸 순간, 엄숙함도 큰 소리 한번에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세가 제창되자, 모두 여기에 맞춰 바다도 들끓을 정도의 함성을 올렸다.

“귀여운 녀석이다! 귀여운 녀석이다!”

해성의 부친인 유근택은 주르륵 눈물을 흘렸지만, 목선을 떠나 증기선에 오르자 마침내 흐느껴 울고 말았다.

“해성아, 해수에게 보이고 싶었는데. 그 아이도 무척 아쉬워했다.”

“그래도 아버지, 녀석은 또 돌아오는 걸요. 그 녀석은 형의 증기선을 보는 것보다 입대한 쪽이 훨씬 더 기쁠 겁니다.”

해성은 그렇게 말하고 명랑하게 웃었다— 해수는 훈련소를 나와 닷새간의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배가 도착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사흘 전 □□부대에 입대하기 위해 과감히 떠났던 것이다.

늦가을의 짧은 오후,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달려온 인철도 가세하여 선상에서는 자그마한 축하연이 시작되었다. 소량이었지만 술도 나왔다. 해성은 부친의 병세에 몹시 마음을 졸였지만, 부친은 다행히 아무런 이상 없이 아들의 머리라도 쓰다듬듯 배를 매만지며 눈물지었다.

“고맙다, 고마워, 잘해주었다. 해성아!”

슬픈 바다의 패자 유근택은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인철은 그날 밤 해성들과 셋이서 베개를 나란히 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한 시쯤 되어 이완규가 가볍게 코를 골기 시작하자, 인철은,

“유근, 사실 오늘 당신에게 의논할 것이 있어 왔습니다.”하고 엎드려 누운 채로 태연하게 말을 걸었다.

“이야기 하세요.”

해성도 간단하게 대답했다.

“어떻습니까?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까?”

“결혼?”

해성은 팔꿈치를 세우고 양 손바닥에 턱을 괴었다.

“실례가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대체 어떤 여자인데요?”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는 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수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러도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잘 알고 있지요.”

‘미연인가…….’

해성은 그렇게도 생각했다. 그러나 인철과 삼촌인 수진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미연은 아닐 것이다.

‘혜영인가?’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다. 혜영이 최근 은순인가 하는 친구를 이완규에게 일부러 접근하게 하여 그 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그와의 혼담을 정리시키려 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혜영이라 해도, 인철에게까지 손을 뻗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역시 미연일지도 모른다.

“누굽니까? 그게—.”

“제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인철은 황급히 소리를 죽였다. 문득 그가 지금 아직 미연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미연 쪽에서는 인연을 끊은 해성과의 일을 새삼 처음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인입에게 거절했다고 하지만, 해성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 즈음에서 일단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았다. 미연을 자기 사람으로 결정해놓고, 자기 여동생을 해성에게 내미는 것은 제멋대로의 생각이 아닐까.

‘만일 불행히도, 여전히 그가 미연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자기도 미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인철에게 미연과 해성은, 현재 특별한 의미에서 대등한 존재였던 것이다. 여자를 얻느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다.

“유 군. 만일 그 여자의 이름이 안미연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철은 어떤 대답에도 찢찢매지 않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물었다.

“역시, 안미연이었습니까?”

해성은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인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안미연 씨 일이라면…….”하고, 인철의 얼굴을 다잡고 있는 긴장을 확인이라도 하듯 천천히 말했다.

“그녀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어째서요?”

“어째서라뇨? 나는 그녀에 관한 일이라면 이미 잊었으니까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사양할 필요 없어요.”

인철은 그렇게 말했다.

“이번에 경성에 갔을 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미연 씨는 지금도 아직 당신을 사모하고 있더군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해성은 자신 있게 말했다. 수진에게 들은 얘기는 어쨌든, 지금 인철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저 팽팽한 긴장의 기색이 이를 웅변해주는 것이었다.

“그럼, 당신은 미연 씨를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을 운운할 기분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때의 인철의 얼굴에서도 그는 온화한 안도의 기색을 읽는 것이었다.

해변의 늦가을은 싸늘했다. 파도 소리도 찬 듯하다. 해성은 거칠어져 가는 자신의 마음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다. 얼마 지나 인철은 아이처럼 새근새근 잠들었지만, 그는 도무지 잠이 들지 않는다. 새삼 그녀와의 결혼을 원해 봤자 허사라고 생각하면서도, 역시 쓸쓸했다.

인철이 돌아가자, 그는 이미 미연의 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병아리처럼 귀여운 증기선에 일종의 변태에 가까운 광적인 애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뒷산을 연관지어 ‘백치환(白雉丸)’으로 이름 짓기로 했다. ‘백치환’의 첫 원정 생각으로 그의 머리는 꼭 찻다. 자필로 ‘대어(大漁)’라 쓴 깃발을 뱃머리에 걸고, 색도 선명한 일장기를 나부끼며 바다로 미끄러지는 ‘백치환’의 늙름한 자태.

그날이 드디어 왔다.

해성은 아침 일찍부터 배에 올랐다. 기관수와 함께 일체의 검사를 마치자, 물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함께 타겠다고 우기는 부친을 간신히 달래고, 이완규와 굳은 악수를 교환했다.

“그럼, 부탁하네. 해수에게도 곧장 연락을 취해주게. 꼭 어부들에게도 동의를 받아낼 테니.”

“좋아, 건강하고.”

해성은 한번 더 악수를 하고 ‘백치환’에 올라탔다. 그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슴이 가득했다. 인생이란 이렇게도 즐거운 것일까. 이 감격을 누구에게 감사해야 좋을까. 그는 하늘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 어획은 우리 장병의 밥상에 올리자.”

해성은 그렇게 결심했다. 처음에는 최전선의 용사에게 라고 생각했지만, 수송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는 해수가 입대할 □□부대에 직접 보내기로 한 것이다.

해성에게서 그 뜻을 전해 듣자, 선원들은 진심으로 그 계획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 주었다. 국민 최고의 의무는 감사라고 그때그때 얘기는 해주었지만, 이렇게까지 열광할 줄은 미처 몰랐다. 어부들은 무지하면서도,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의 어부도 국가에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지만, 커다란 기쁨이었던 것이다.

“자,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도하자!”

어부 한 사람이 크게 외쳤다.

권인임과 유해성의 혼담이 정리된 것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백치환’의 첫 어획은 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었다. 그래서 해성이 예정대로 □□항에 들러 □□부대로 가는 수속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것은 이미 11월하고도 중순경이었다. 돌아와 보니, 인철과 이완규 사이에 거의 얘기가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쩐가. 나도 이런 역할은 사서하고 싶지 않았네만, 권 군의 누이가 상당히 열심히었던 터라 자네의 노여움을 살 각오로 말았다네.”

이는 여옥의 묘에서의 일부터 인철에게 들은 대로 말하고, 이 정도의 인연이라면 자기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숙원하던 증기선이 손에 들어왔는가 싶더니, 절세의 미인이 흘러 들어온 좋은 해로군.”

“혜영 쪽은 어떻게 하지?”

해성은 그 일이 상당히 신경 쓰였는지, 쭈뼛쭈뼛한 말투였다.

“혜영 말인가? 그녀도 내년 봄 일찍 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

“그래?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해진 걸까. 아무튼 그거 잘 됐군.”

“잘은 몰라도, 강원도 으뜸가는 대부호의 아들이라더군. 하긴 재혼이라고.”

“뭘, 잘 됐네. 모두가 자리 잡을 곳에 자리 잡았군. 이제부터는 일을 해야지. 오늘 아침 2주일 만에 신문을 읽었는데, 마침내 정부도 영미를 적으로 돌리고 일격을 가할 생각인 것 같아.”

“정말 그렇게 할까?”

“한다고 생각해.”

“그럴까?”

이완규는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드디어 대변(大變)인데. 명실공히 지나사변과는 그 취지가 달라지지. 하지만 괜찮을까. 나는 전쟁에 관해서는 백지라서.”

“그거야 나도 전쟁을 하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 하지만 하게 되면, 이긴 거나 마찬가지로야. 승산이 서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방침이지.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도 마음을 정한 것 같아.”

“그럴까.”

이완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역시 해성의 예상이 맞았다.

나날이 미영—특히 미국과의 공기는 나쁜 쪽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미국 육해군의 수뇌부들은 일본 해군이라면 이들에 쳐부수어 보이겠다든가, 만일 일미간 전쟁이 개시되면 사흘 내에 도쿄는 두 번째 대전재에 휩싸이게 된다는 등, 호언장담하고 있었다.

국내의 신문은 이들 도전적인 선전에 편승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 도를 지나친 냉정함이 해성을 적잖이 당황케 했다.

‘이런 상태라면, 정부도 전쟁은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해성은 어두운 기분에 휩싸였다. 이렇게까지 되어서도, 전쟁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다시 말해 실력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개 장개석 정권을 상대로 한 전쟁으로 일본은 이렇게까지 곤란해진 것일까.

그러나 과연 그것은 해성만의 그릇된 의심이었다. 제국은 일어날 때는 일어났다. 신문은 12월 8일 새벽, 서태평양에서 미영군과 전투 상태에 돌입한다는 뜻을 발표하고, 라디오는 소리 높여 전 국민을 향해 격문을 띄웠다.

은인(隱忍)의 제국이 마침내 일어선 것이다.

— 이 역사적인 뉴스가 가난한 어촌에도 알려지게 된 것은, 상당히 해가 저문 무렵이었다. 신문도

우편도 드물게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들은, 그날도 이 역사적 사건도 모르고 끝날 참이었다. 그런데 낮 무렵 석유 배급을 받으러 거리로 나갔던 어부가,

“시가지에서는 전쟁 얘기로 대단했습니다.”하고, 한 장의 호외(號外)를 보여 준 것이다. 그것은 원산(元山)에서 발행된 제일보(第一報)로, 그저 12월 8일 새벽, 제국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미영 해군과 전쟁에 돌입했다고만 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어딘지 부족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이다. 새벽에서 오후 5시까지 10시간이나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앉으나 서나 소식이 궁금하여 견디기 어렵다.

해성은 초조한 하룻밤이 밝자, 곧장 첫 번째 열차로 시가지로 나갔다. 시가지에도 지나사변이 시작되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긴장이 넘쳤다. 눈에 띄는 곳곳에는 어제 아침이래의 전송 뉴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완전히 빛의 빠르기다. 하와이, 싱가포르를 기습하는가 싶더니, 벌써 말레이 반도에 상륙해 있다. 황푸강(黃浦江)⁷⁶⁾의 영국 함대는 불을 토했고, 미국 함대는 항복했다. 그런가 하면, 태평양 상의 미군 용 배에 어뢰(魚雷)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마치 한 장의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이곳저곳에 점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대규모적인 작전이 완전히 동일한 순간에 이루어지리라고는! 특보 뉴스를 쓸 겨를조차 없는 이 신속(神速)함!

해성은 대충 전황을 파악하자, 무리하게 부탁해서 라디오를 손에 넣어 돌아왔다.

해성은 밤에 내일 아침 출어하기로 되어 있는 어부들을 모아 대동아 전쟁의 의의와 전황을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얘기하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만큼은 싸워서 이길 결의를 촉구했다. 연단에서 내려오자, 멍할 정도로 머리가 흔들거린다. 우물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는, 광석식(鑛石式) 라디오의 레시바를 귀에 대고 방 안에 들어앉았다.

리스본 발(發) 동맹이 오후아 섬 공격에 의해 미군이 입은 손해를 보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미국 자신의 발표에 의한 것이었다.

“……워싱턴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7일의 대일(對日) 전황에 대해 8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하나, 7일 일본군의 오후아 섬 공격에 의해 미군이 입은 손해는 처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전망이다.

하나, 진주만에서 미국 전함 두 척이 전복되고, 나머지는 크게 파손되었다.

하나, 오후아 섬의 사상자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사망 약 3천명, 사상자 약 천오백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나, 호놀룰루 시에도 일본군 폭탄이 계속 투하되고 있다…….

“이봐 나도 빌려줘.”

옆에서 이완규가 기다리지 못하고 손을 내밀었다.

“기다리라구. 내가 듣고 바로 복송(復誦)할 테니.”

“그럼, 부탁해.”

“그래, 알았어. 복송할 테니,

하나, 대본영 해군부 공표(大本營 海軍部 公表), 9일 오후 10시 50분. 제국 해군 함정은 8일 오후

76) 길이 160km, 장쑤성(江蘇省) 타이후호(太湖) 동안(東岸)의 호소(湖沼) 지대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흘러 상하이(上海)로 들어가 우쑹(吳淞)에서 양쯔강과 합류한다.

미드웨이를 급습하고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동(同) 섬의 비행기 격납고와 연료고를 불태웠다. 우리 쪽 손해 없음.

둘, 이 섬 공습 결과, 대일본 대본영 해군부 공표, 9일 오후 10시 50분—어제 8일 제국…….”

같은 시각에 인철들도 라디오에 찰싹 달라붙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조차 없었다.

라디오가 끊기자, 문은,

“역시 권 군은 훌륭해. 확실히 선견지명이 있다니까.”하고,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인철은 세 사람의 타협론을 배격하고, 훨씬 전부터 미영을 친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약 열흘 전, 라디오를 구한 것도 그였다.

“그럼, 이제 백년전쟁이로군.”

장도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지. 우리나라는 과연 과거 5년간 대륙에서 상당한 전투 비용을 썼지만, 그건 육군만 그런 게 아닌가. 해군은 증기선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지. 영국에선 싱가포르가 어떻게 하와이가 어떻게 하지만, 이른바 남방(南方) 적의 시설 다윈 선전거리도 안돼. 남방이라면 일주일 정도면 때려눕힐 걸.”

“그럴까?”

“그렇지.”

“어때, 문. 정복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

“정복하고 싶지.”

“미국의 참새집 말인가?”

장은 크게 웃었다.

“유해성 군의 아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지금 적의 비행기를 고무 끈에 콩 탄환으로 쓸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고. 재미있는 말이 아닌가.”

“그래, 유 군의 아우가 그렇게 말했다지.”

곽을 제외한 세 사람은 추운 산간의 밤을 전쟁 얘기로 지새웠다. 그 대부분이 전문가가 들으면 웃음을 터트릴 만한 유치한 논리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열심이었다. 문은 적의 돌출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하와이를 점거하여 미국 본토를 먼저 혀야 한다, 그래서 제국 정부도 미국 본토 공략을 제 1작전으로 삼을 거라고 했다.

“아니, 그런 성급한 작전은 아마 하지 않을 걸세. 물론 그보다 너 나은 작전은 없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군은 서태평양에 고립되고 말아. 상대가 영미라면, 그런 즉결전(卽決戰)은 위험해. 우선 이른바 ABCD 포위선을 공략하는 거야. 그러면 남방의 물자가 흔들리겠지. 현재 상태로는 무엇보다도 장기전에 필요한 물자의 획득이 우선이지. 남방의 보고(寶庫)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유유히 해낼 수 있을 걸세. 상대가 끈덕지고 강한 영미이고 보면, 성급한 작전은 불리해.”

그런 의논을 무릎을 맞대고 교환했다.

밤은 바짝바짝 추워졌다.

“대체 이 전쟁을, 조선의 젊은 지식층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장이 갑자기 이런 화제를 던졌다.

얼마동안은 누구도 거기에 대답하는 이가 없다. 인철 자신도 무턱대고 흥분하고 나니, 소동만 피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대(對)영미 전쟁을 앞두고 조선의 지식층은 정말 어떤 얼굴을 했을까. 종래 조선 문화의 모체는 그 대부분이 영국과 미국이었다. 창문 하나도 영미식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 현대의 지식층이, 서전(緒戰)의 일격에 패기도 없이 박살난 영미 진영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 새삼 조부와 같은 꿈을 꾸는 자는 없을 것이다. 영미에 의존해서 조선인이 삶을 지속할 것을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판국에 아직도 꿈지락거리고 있는 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인철은 부친이 몹시 신경 쓰였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부친의 얼굴이 보고 싶어져, 인철은 날이 새기를 기다려 경성으로 나갔다.

인철이 경성역에 도착한 것은 11일 이른 아침이었다. 마침 영국이 극동의 수호신으로 의지하고 있던 기함(旗艦) 프린스·오브·웰스를 전함 레팔스가 격침했다는, 인편에 전해들은 것만으로는 좀 귀가 의심스러운 대승보(大勝報)가 백만 시민을 들끓게 하고 있을 때였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공략의 교두보라고도 할 만한 태국과의 공수동맹(攻守同盟)이 성립되고, 팜 섬 점령의 쾌보까지 전해졌던 것이다.

“야, 해냈다. 해냈어.”

역전에 나붙은 특보를 바라보고 있던 군중 속의 누군가가 이 대전과(大戰果)의 연속에 아연해 했다. 인철도 웬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던 것이다.

인철은 택시로 빨리 도착하고 싶을 정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러나 택시는 없었다. 마침 출근 전 전차에 필사적으로 탔지만, 승객들의 더딘 승하차에 짜증이 났다.

종로 거리의 특보 앞에는 출근시간도 잊고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다. 그도 넘어질 듯하며 그 무리 속에 파고들었다.

역 앞에서는 보지 못했던 마닐라 섬의 상륙 특보가 붙어 있다.

‘역에서 종로까지 오는 사이에 이런 전과(戰果)를 내다니.’

그는 진지하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안국정(安國町) 길 전차로 갈아탔다. 거기서부터는 걸었다. 큰 거리에서 벗어나서부터는 꽤 가파른 비탈길이었지만, 그 비탈길도 달리듯이 올라갔다.

인철은 벌써 30년 가까이 이 비탈길을 올랐지만, 오를 때는 언제나 성가셨다. 단 한번, 이 비탈길을 힘들지 않게 오른 적이 있다. 벌써 그럭저럭 20년 가까운 옛날, 말라리아로 학교를 쉬어 5년간이나 계속된 수석을 6학년 1학기에 놓쳤지만, 분투한 보람이 있어 졸업 때는 훌륭하게 수석을 되찾았던 것이다. 그때 이 비탈길을 마치 내려가는 듯한 기세로 올라간 일이 있는데, 오늘도 바로 그런 기분이었다.

한 발 뒤쳐져 소학생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탁류처럼 흘러 나왔다. 얼어붙은 길가에 신발을 내던지며 구르는 아이도 있었다. 그도 자칫 미끄러질 뻔했다.

모퉁이의 복덕방을 돌아 청기와집으로 통하는 진짜 비탈길은, 아이들이 미끄럼 놀이를 한 듯 발

디딘 흔적이 없었다. 그가 발밑에 정신을 집중하며 역시 재촉 받는 기분으로 올라가고 있자니,
 “어머, 오빠!”하고, 갑자기 귓가에 인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철이 깜짝 놀라 얼굴을 들자,
 “어떻게 된 게냐?”
 수봉이었다.
 수봉 곁에 미연도 서 있었지만, 얄전하게 고개만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도착한 게냐?”
 “네. 어디 외출하십니까?”
 “아니,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다.”
 수봉은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아침은 날이 차다. 어서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인철은 조부의 사당에 귀가 인사를 드리고 나서 큰사랑으로 들어갔다. 인임이 혼자 옷을 개키고 있었다.
 “오늘 아침은 어디에 다녀오신 거지?”
 “맞춰 보세요.”
 인임은 킁킁 웃으며,
 “맞추면 한턱내죠.”
 “몰라.”
 “인임 씨, 오빠 거기 계세요?”하고, 미연이 어느 사이엔가 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추위가 가신 탓인지, 뺨이 사과처럼 붉은 미연에게는 어떤 다른 옷보다도 상복 쪽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수업이 없습니까?”하고 말을 꺼내다가,
 “아, 그렇지, 실습이었지. 하지만 실습이라도 이미 나가봐야 할 시간인가?”
 “오늘은 쉬기로 했어요. 모처럼 오빠도 왔으니, 뭔가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이 녀석, 또 최후의 수단을 쓰는구나.”
 인철이 그렇게 말하며 칠 듯한 시늉을 하자, 인임은 ‘까악’ 소리를 지르며 미연의 등 뒤에 숨어서,
 “정말이에요, 오빠. 들어주지 않으면, 미연 씨가 불쌍해요.”
 “그러면 싫어요, 인임 씨. 거짓말이에요. 오전 중에는 유치원 실습이지만, 너무 추워서 겨울 방학을 닷새 정도 앞당겼어요. 하지만 1시 반부터는 수업이 있어요.”
 그때 마침,
 “여러분 식사하세요.”하는 수봉 처의 얘기를 듣고, 모두들 안방 쪽으로 갔다. 인임이,
 “지금은 아버지도 안방에서 식사하세요.”하고 소곤거리며 히죽 웃었다.
 “그래? 그거 축하할 만한 일이네.”
 인철도 웃었다.
 안방에는 수봉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냐. 일은 잘 돼 가고 있는 게냐?”

“네. 내년부터는 일부 파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 벌써 그렇게까지 진척되었나?”

“하지만 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량이 아직 10분의 1도 안돼서 당분간은 반 정보(丁步)만 시험할 예정입니다.”

“상당한 성과가 아니냐.”

“그런데 탁아소는 언제부터지요, 오빠.”

인임도 얘기에 가세했다.

“글쎄, 내년 2월 말경쯤?”

“그럼, 마침 잘됐네. 미연 씨의 졸업식도 그 무렵이죠?”

“네, 3월 3일이라든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취직하고 싶으면 취직해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학업은 12월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수봉은 먼저 식사를 마치자 인철에게,

“오늘 돌아가는 건 아니지?”

인철이 이삼 일은 있을 거라고 대답하자,

“그래.”하고는 사랑으로 나갔다. 부친이 나간 것을 확인하자 인임은,

“아버지도, 정말이지 눈치 없는 분이야. 묻지 않아도, 그렇게 아침에 와서 오후에 급히 돌아갈라구. 그렇지요. 어머니.”

“나는 모른다.”

어머니는 웃었다. 인철은 일어서면서,

“인임이는 정말이지 입이 거칠어졌구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유해성에게 부탁해서 약혼 따윈 취소해 줄 테다.”

그렇게 말하고는 부친의 방으로 나갔다.

수봉은 보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으면서,

“대단하구나.—그런데 오늘 아침 내가 어디에 간 줄 아느냐? 놀라겠지만 조선신궁(朝鮮神宮)에 참배하러 갔었다.”하고 말했다.

“신궁에 말입니까?”

과연 인철도 놀랐다.

“그래. 신궁 참배하러 갔다.”

“역시 그랬었군요.”

“그럼, 알고 있었던 게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애국반(愛國班) 회의에라도 가셨는가 생각했습니다만……신궁이었습니까?”

“참배하러 갔다 왔다.”

수봉 교수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웬지 참배하지 않으면 기분이 개운치 않아서. 상당히 많이 왔더라. 옛 사람들이. 최근 삼사 년간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들이 거의 왔지. 모두 말쑥한 얼굴을 하고.”

“그랬군요.”

수봉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천천히 빨아들이다가,

“돌아오는 길에 와타나베 교수를 만났다. 난처했지. 나는—그 군중 한가운데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았겠니. 오늘밤쯤 올 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녁 무렵 인철이 물건 사러 갔다가 돌아오니, 과연 와타나베 교수가 와 있었다.

수봉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툭툭 던졌다.

“이 청기와집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쪽이겠지.—아니, 현대 조선인 지식층을 통털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지도 몰라. 하지만 가장 뒤쳐져 있는 나조차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 있으니, 조선인의 사상문제는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네. 이제 됐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지원병으로도 안돼. 모든 동포가 혼의 방패가 되어야지. 나 같은 비국민(非國民)이 좋은 황민(皇民)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명실공히 일체(一體)야. 이 시대에 지원병과 징병의 격차는 어떤지 어울리지 않아.”

“아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하고, 와타나베 교수는 자신 있게 말했다.

“징병도 의무교육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세. 식자(識者)들 사이에서도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으니.”

“어떤가, 그렇게 될 것 같은가? 조선 청년에게도 국토 수호의 명예가 주어지면, 크게 한몫할 거라고 생각하네. 무한(武漢)이 우리 군에 의해 폭격되었을 때, 지나 민중은 비행기에 수류탄을 던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는가. 있었어, 그런 기사가.”

“있었지.”

와타나베도 웃었다.

그리고 전황 이야기로 바뀌었다. 와타나베는 영국의 이른바 극동함대는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을 거라고 했다. 포위망이라는 것도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

“재로 변한 새끼줄인 셈이지. 말레이시아를 제압하면, 영국 해군은 완전히 태평양에서 쫓겨나는 걸세. 그렇게 해 놓고, 우리나라는 지구전으로 들어가는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홍콩과 싱가포르를 손에 넣어야 해. 하지만 홍콩 따위는 손에 넣으려면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지. 싱가포르의 경우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홍콩 함락이라는 남경 발(發) 동맹 특보가 들어갈 지도 모르지. 아무튼 우리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걸세. 수봉 군,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격전일기

부드러운 빗자루로 쓸리는 것처럼, 조용히 짙은 안개가 벗겨져 간다. 시시각각 쳐들어오는 봄의 기세에 흠칫거리며 멀어져 가는 겨울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렇다 해도, 3월에 들어서도 아직 고산지대의 이른 아침은 추웠다. 눈도 밭도 집도 아직 형태뿐이고, 그 살풍경이 일종의 스산함을 자아내고 있다.

그래도 이른 봄의 아침, 어둠이 물러남과 동시에 개척 공사장은 갑자기 활기를 띠어 간다. 가녀린 나무의 작은 가지에서 한 마리 까치가 신호를 하면, 일제히 그 자리에 있던 까치 떼가 우짖는다. 널조각이나 거적 등으로 만든 작은집을 쫓아 모여든 참새들의 울음소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따뜻함과 친금함을 가져다준다.

“자, 끌어! 어제 저녁부터 콩을 잔뜩 먹었나, 이 늙다리!”

한 농부의 새된 소리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찌르고 있지만, 그 울림은 지극히 부드러웠다.

소리가 난 쪽을 보니, 우윳빛 어스름으로 농부와 소의 모습이 희미하게 물들어 있다.

“이랴, 이랴, 찻!”하고, 이번에는 소를 격려하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도랑 제방에 흙을 운반하고 있는 우리 쪽 사람이었다.

“낫가지 열 칸을 다 끝내면, 네가 원하는 대로 밥을 듬뿍 먹을 수 있다고! 이랴, 이랴, 찻! 너, 싱가포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하하하.”

갑자기 반대편 독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왜 웃고 그래. 알미운 녀석 같으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게야. 싱가포르를 벌써 한 달 전에 함락되었는데. 이제 하와이라구!”

“정말 그랬었지!”하고 입을 다물고는,

“이거 착각했네. 하와이라구. 이랴, 이랴, 찻!”

“하하하하.”

이번에는 다른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났다. 이미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인철이었다.

“이거 참, 선생님, 저는 지금 저 알미운 녀석에게 혼이 나고 있는 중이구먼요.”

“뭘, 뻘어요, 뻘어. 그런 의기로만 하면 되지요. 지명(地名) 따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철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작년 12월 8일이래, 그들에게는 차츰차츰 암호가 생겨났다. 홍콩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황군이 그것을 함락시킬 때까지는 이리이러한 일을 다 하겠노라고 단단히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홍콩 함락 때도 싱가포르 함락 때도, 완전히 그들의 패배였다.

“황군(皇軍)이 너무 빨라요.”

그렇게 말하고는 울상을 지었다. 마구 분해하기도 했다. 작업 부문에 따라 암호도 달랐다. 붓독 공사장에서는 미얀마, 벌목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제방에서는 싱가포르.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전선(前線) 따라잡기 작전에는 완전히 패배였다.

“이제 다라잡지 않겠어. 황군에 질걸 뭐. 당연하지. 굉장한 폭탄이 있으니. 내가 쇠망치 한 자루로 아무리 이 바위를 상대해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어 있다구. 이런 꼭두각시놀음이 있나.”

석공은 그럴 듯하게 탄식했다.

해가 떠오르자 곧 땡땡 종이 울렸다.

미연의 탁아소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자, 이쪽이에요.”

미연의 손바닥이 부드럽게 올린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먹이를 찾는 병아리처럼 무리를 지어 선생님을 에워싼다. 인형처럼 목걸이를 하고 토실 토실하게 살이 찐 도시의 아이들과는 거리가 먼 농부의 아이들이다. 그중에는 가락국수 같은 콧물을 흘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때 투성이 더러운 주먹으로 콧물을 닦는 여자 아이도 있다. 옷이라고는 해도, 기운 것 투성이라 남루했다. 그것도 대부분 숨이 비어져 나와 있다.

미연이 실습을 나간 것은 종로유치원이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니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중에는 지금 같은 때 전세 자동차로 아이를 보내고 맞이하는 처치 곤란한 어머니도 있어, 상당수 보모(保姆)들이 애를 먹었다. 오버 코트 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북지(北支)까지 사람을 보내 밀수입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현재의 시국(時局)이 어떤지를 분별하기는커녕,

“이런 시절엔 돈을 갖고 있어도 별 수 없다구.”

그렇게 말하며 다니는 어머니들도 있었을 정도다.

그런 원아들과 1년을 지낸 미연에게, 때 투성이 인부들의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며칠간은 그 지독한 차림새에 질려서, 속이 메스꺼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백만장자의 아이들을 돌보러 온 것이 아니야. 이 아이들은 내일의 조선을 짊어져야 할 제2세대다.’

그러나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생리적인 것이었다. 그녀의 비위는 생리적으로 그들의 체취(體臭)에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각오로 오기는 했지만, 누런 콧물이 까만 제복에 끈끈하게 달라 붙어있을 때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다시피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잘 견뎠다.

그것은 격렬한 싸움이었다. 그녀뿐 아니라, 개척공사의 모든 부문이 그러했다. 집채만 한 커다란 바위에 쇠파지 한 자루를 가지고 씨름하기도 하고, 마주보고 있는 석공도 얼어붙은 대지를 쟁기 하나로 도전하기도 했다. 또 밑으로 흘러가야 할 물을 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등, 말하자면 모든 것이 사투였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나만 편안하고자 하는가.’

미연은 이리하여 싸우고, 그리고 싸워 이겨 보인 것이다.

낮 동안에는 따끈따끈한 햇살이 비쳤다.

그러면 단원들은 모든 힘을 도랑파기와 개척 작업에 계속 투입해 가는 것이다.

그들은 가을바람에 나부길 벼이삭 생각에 마음이 바뻐다. 매우 신속한 황군의 작전에 숨 막히는 경쟁심을 불태우고 있다. 빗물이 흐르면, 인철들이 엄격하게 감시해도 어느 사이엔가 지도자들을 배반하는 것이다.

제방의 세 그루 소나무 밑에는 언제나 감시원이 서 있다. 달밤이든 캄캄한 밤이든 일몰 후부터 새벽에 걸쳐서 반드시 몇 십 명인가가 도랑 깊이 잠입해 있다.

“싹!”

감시원이 신호를 하면, 밤하늘에 높이 치켜 올려진 쟁기가 푹 멈추는 것이다.

“누가 왔나?”

“오고 있어! 내려 와. 옆드려.”

그러고는 자기도 소나무 밑에 옆드려 눕는 것이다.

인기척이 떨어져 가면, 곧 계엄령이 해제된다.

“시작해!”

이 야간작업은 일주일에 한번 꼴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뜻을 가진 사람들만이 시작했지만, 어느 사이엔가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

“내 차례가 오늘이었던가?”

“응, 내일이라고 생각한 모양이군.”

“그래? 그럼, 내가 오늘밤 역에 가서 셔츠 한 장 사가지고 오지.”

“막걸리는 마시지 말게.”

“뺨 빠지게 번 돈이야. 마시라고 엄포를 놓아도 마시지 않을 걸세.”

그렇게 말하고 살금살금 역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비밀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인철이 어떻게 그들의 야간작업을 냄새 맡고 는 망을 보기도 하고 야간 순찰을 돌기도 하며 경계를 했다. 발각되면 이제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 을 하는 것이지만, 이튿날 밤에는 또 어딘가에서 꾸준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4월도 중순 무렵이 되자, 벌써 봄갈이의 계절이었다. 대부분의 도랑은 완성된 터라, 개간원들은 목 이 빠지게 비를 기다릴 뿐이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랑 바닥을 한 척 이상 파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 깊은 도랑을 한 척 이상이나 밑으로 파 내려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었던 것이다.

“이 근처까지라도 오면, 도랑으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새버리는 게 큰일이야. 시멘트만 잔뜩 있으면, 한 방울도 내주지 않을 텐데.”

그들은 아침저녁으로 제방의 물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 을 같이 맑은 날이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계속되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미 파종이 시작되었다. 고지대의 숲을 개척한 화전(火田)이다. 흙덩이에 발길 이 선명한 포물선을 그릴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난다. 그 뒤를 짚을 태운 재(灰)와 종자(種子)를 뒤섞 어 담은 삼태기를 겨드랑이에 낀 여자들이 뒤따랐다. 실제 정황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것은 좋은 파 종(播種)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었다.

그 무렵부터다—어디에서 흘러나왔을까, 인철과 미연과의 결혼이 임박했다고, 여자들 사이에서 화 제가 되고 있었다.

“여 선생님은 지금 상주(喪主)라서 안 된대. 그렇지만 오는 3월에는 상 기간이 끝난다고.”

“그게 도리(道理)지. 어쨌든 시집 잘 가는 거야.”

그런 얘기가 돌고는 얼마 안 있어, 인철이 식을 올리는 날 인입도 함께 식을 올린다고 하는 얘기가 돌았다.

그리고 또 그것은 사실이기도 한 것이었다.

대지도 일찍 엄동(嚴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지금이라도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건만,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다. 올해도 허사인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누구나 먼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도 짙은 안개이다. 짙은 안개가 걷히면, 빛나는 봄 햇살이 내리쬐었다. “할 수 없지! 도랑 바닥을 더 파 내려가야겠어.”

“그러게.”

“그런데, 뭐야? 공업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이 어째서 이런 높은 곳에 도랑 같은 걸 파게 했을까? 그런 불평도 일부에는 있었다.

“모르는 소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위쪽의 논은 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구.”

“그래, 그래.”하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런 논의를 언제까지 하고 있어도 진척이 없다. 최후의 5분간 한번 더 도랑을 파내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애기가 정리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곡괭이가 하늘을 향해 치켜 올려졌다.

붓득공사도 한 편에서 진행되었다.

작업은 밤낮 구별 없이 계속되었다. 이제 인철들도 그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우물쭈물 하면 금년 농사는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싶어, 스스로 선두에 서서 격려를 했다.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야간작업 교대를 잘 처리하는 것이 지금은 인철들의 역할이 되었다. 큰 도랑을 파 내려가게 되면, 작은 도랑도 전부 파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물을 끌어내야 한다. 도구가 그렇게 많이 있을 리도 없다. 도구가 골고루 미치지 않게 되자, 손가락 끝으로 돌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뭇가지를 꺾어 흙을 파내는 사람도 나왔다.

대지와 인간과의 격전이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계속되어 갔다. 어느 날 갑자기, 인철과 미연이 모습을 감추었다. 이삼 일 전부터 인입도 보이더니, 세 사람 모두 모습을 감춘 것이다.

“식을 올리러 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며 부러워했지만, 실은 안대영 씨의 3주기라서 나간 것이다. 세 사람은 도중에 유해성과 만나 산읍에 함께 가기로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부들은 그런 일에 아랑곳 않는 듯, 작업에 온힘을 쏟았다.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된다 싶어,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거의 모든 힘을 계속 쏟아 부었다. 문(文)들이 멈추면,

“조금만 더! 돌격이다! 물이 흐르게 된다면, 죽어도 좋다.”하고 기세를 올려 ‘영차, 영차’ 힘을 북돋우며 한층 격하게 일하는 것이었다.

“뭐야. 이 정도 일로. 일하는 거야. 어느 전투에서는 황군이 절구만한 큰 뱀과 맞붙었다는 얘기도 있어. 눈을 떠 보니, 큰 뱀을 베게삼아 잤다고도 하고.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 격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달이 모습을 감추었으니 이제 새벽이 가까운 것이다. 문과 장(張)은 작업 중지를 외쳤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쉬지 않는다. 문은 목이 쉬도록 여기저기 쫓아다녔지만, 그래도 허사였다.

“제군들은 모두 죽을 작정인가!”

장이 입이 닳도록 외치며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순간, 위쪽에서 누군가 외쳤다. 그러자 차츰 무너

가 큰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소리와 더불어 그것이 도랑에서 독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물이다, 물!”

물이었다. 게다가 비가 올 기색이었다. 달이 감춰져 구름이 나온 것이었다.

어촌의 간이역에서 유해성과 만난 세 사람은, 그날 저녁 이미 어둑어둑해진 무렵 산읍에 도착했다. 숙소는 인임이 수봉과 묵었던 곳이다. 시가지에서 벗어난 변두리의 이층집이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유해성의 슬픈 로맨스를 들었던 연고가 있는 숙소에 묵고 싶었던 듯, 인임이,

“언젠가 저희들이 묵었던 곳으로 하고 싶어요.”하고, 유도했던 것이다.

“그래요. 두 분만 좋다면, 좋습니다.”

미연도 맞장구를 쳤다.

“좋지요. 숙녀들의 의견인데. 이견이 있을 리 없지요.”

운 좋게 방도 마침 두 칸이 비어 있었다.

인철은 목욕탕에서 나오자, 실로 오랜만에 느긋한 기분으로 반주를 곁해 식사를 했다.

“저는 2년간 전혀 술은 입에 대지 않았는데, 이제 마셔도 되겠지요?”

해성도 그렇게 말하면서 인철의 술 상대를 했다. 한 사람당 한 홉의 술이었지만, 격한 피로가 쌓인 터라 인철은 금방 꾸벅꾸벅 졸았다.

실로 잘 잤다. 잠에서 깨니 씹씹 하는 소리가 나서,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다. 게다가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건지, 퍼붓듯이 내렸다.

“됐다!”

그는 영겁결에 외쳤다.

공사장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시간을 보니, 5시가 지났다. 지금쯤은 이미 모두 일어나, 저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축 늘어진 피로조차 잊게 하는 안도감 탓인지, 그는 꾸벅 꾸벅 조는가 싶더니 한번 더 잠에 푹 떨어졌다.

깨어나니 8시이다.

“늦었네요. 오빠.”

인임은 벌써 단정하게 차려 입었다.

“그래도 너는 비가 내리는 것도 몰랐지?”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세 시에 한번 깬거든요.”

“그랬니? 정말 시원하게 내린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우산을 그러모아 안대영 씨 묘에 참배를 갔다. 산길은 구두가 잠길 정도로 질퍽했지만, 기분은 가벼웠다.

산에서 돌아온 것은 1시쯤이었지만, 그래도 비는 그칠 것 같지 않다. 하룻밤 더 묵기로 얘기가 결정 났다.

인철로서는 빨리 돌아가 모두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이튿날 아침에는 비도 그쳤다.

가장 이른 승합차가 9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미연은 모두의 권유대로 상복을 갈아입었다. 그녀도 그럴 생각이었던 듯, 주홍빛 깃이 달린 하얀 상의와 코발트 빛 치마를 공들여 가방에 갖고 왔다.

“어머, 몰라보겠네요. 정말 미연 씨 맞아요?”

“싫어요, 놀리시면.”

“정말이에요. 몰라볼 정도로 예뻐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다시 상복으로 갈아입을 거예요.”

인철들이 도중에 해성과 헤어져 개간 장소로 돌아가자, 장이,

“미연 씨,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가 계셨나? 전혀 몰랐어요.”

“오빠?”

외치듯 하며 사무실로 뛰어갔지만, 이미 40세가량의 국민복을 입은 낯선 남자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만—”하고 꺼낸 명함에는 경찰이라고 되어 있다.

“당신이 미연 씨입니까?”하고, 그 남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산음에 계신 안대영 씨의 따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척 찾았습니다. 벌써 한 달이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오빠가 계시지요?”

“예.”

“이름이 뭐니까?”

“창식입니다.”

“그래요. 그럼, 나이는?”

“아마 스물아홉쯤 됩니다만……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예, 좀—”

그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미연은 다리가 떨려 중심을 잡는데 힘이 들었다.

남자는 여전히 이것저것 더 물었다. 오빠가 가출한 동기라든가, 그 후의 소식 등을 자세히 질문하고 나서,

“그럼, 당신의 오빠가 틀림없습니다. 실은—”

역시 말을 꺼낼 수 없는 듯했다.

“오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기는 한가요. 우선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또렷하게 말했지만,

“영원히 살아 있을 겁니다. - 실은…… 명예롭게 전사하셨습니다. 위대한 공훈을 올리셨습니다.”

“네?”

미연은 영겁결에 그렇게 외쳤다.

“황군의 홍콩 공략 때였습니다. 오빠는 군속(軍屬)으로 전선에 배치되어 우리나라를 위해 실로 분투했지만, 불행히 적탄에 맞아 명예롭게 전사하셨습니다. 영령(英靈)도 조선에 돌아와 계십니다.”

얼마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그시 깨물었던 입술이 역시 격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솟구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다.

미연은 어떻게 자기 방으로 돌아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의식도 상당히 몽롱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불명예스런 죽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떳떳하게 죽었다는 사실 뿐이었다.

곧 인철과 인임이 사정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오빠의 영령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철은 정중하게 말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미연은 일어나서 가방에서 상복을 꺼내들고 인철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 옷을 갈아입게 해주세요.”

“어찌시려고요?”

“저는 일 년 더 오빠를 위해 상복을 입고 싶습니다. 오빠에게는 이렇다 할 피붙이도 없고…….”

인철들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봄갈이에 부지런히 힘쓰는 농부들의 노래가,

“떠나는 님의 칼미봉에…….”

천천히 들려 왔다.

인철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허공으로 사라져 가는 보랏빛 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끝)

저자 약력

원적 충청북도 충주군 신일면 용원리
현주소 경부선 군포역전

이무영

1908년 1월 14일생

약력

- 경성 휘문 중학 4년을 수료한 것 이외에는 학력 없음.
- 18세에 도쿄로 건너가 가토 타케오(加藤武雄) 씨 댁에서 3년간을 보낸다. 정착하여 문학서에 친숙한 것도 이 시기다.
- 조선에 귀국한 후에는 잡지사 및 서점 등을 옮겨 다니다 나중에 『문학 타임즈』, 『조선문학』, 『비판』 등의 편집에 관여한다.
- 동아일보 학예부 기자 4년간.
- 경성 보육학교에서 아동문학을 2년 강의하다가 작년(1942) 9월 강사직에서 물러나 현재에 이른다.
- 조선문인협회 소설부 간사.
- 1943년 4월 제4회 조선예술상 수상자.

작품 연표

- 19세 1926년에 「의지할 데 없는 영혼」, 22세 1929년에 「폐허에 올라」를 습작하여 경성 청도사(靑島社)에서 간행하지만, 둘 다 현재는 절판.
- 1929년 1월, 『동광(東光)』지에 「두 개의 훈시」를 발표, 처녀작이다.
- 1933년, 『동아일보』에 중편 「지축을 돌리는 사람들」을 발표.
- 1937년, 단편집 「취향(醉香)」을 조선문학사에서 간행. 「취향」 외에 단편 4편, 중편 1편을 수록한다.
- 1938년, 소설집 『무영 단편집』을 한성도서에서 간행. 희곡 「톨스토이」 외에 단편 10편을 수록한다.
- 1938년, 장편 『새벽 무렵』 현대걸작장편전집 간행소에서 간행
- 1939년, 장편 『내일로의 포도(鋪道)』 조선문인전집 간행소에서 간행
- 1939년, 11월부터 퀴리 부인을 소설화 한 「세기의 딸」을 『동아일보』에 발표, 동지 폐간에 따라 12회로 일단 중단된다.
- 1939년 봄, 거처를 농촌으로 옮기고 나서는 주로 농민을 취재한다. 「궁촌(宮村) 이야기」를 계속 쓴다. 올해(1943) 11월의 「귀소(歸巢)」(『春秋』)가 제13화에 해당한다.
- 1942년 9월부터 『부산일보』에 장편 『청기와집』을 쓰기 시작해서 올해 2월 7일에 끝낸다. 이것이 국어(일본어)로 쓰인 최초의 작품이다. 동시에 국어로 씌어진 조선 최초의 신문장편소설이다.

이무영 『청기와집』에 대해서(해설)

布袋 敏博

1. 생애

이무영은 1908년 1월 4일, 조선 충청북도 음성(陰城) 압동(鴨洞)에서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갑룡(甲龍), 아명은 무갑(戊甲) 또는 용구(龍九). 이무영이 태어나고 2년 후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실질적으로 유년기부터 장년기까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보내게 된다. 경성 휘문고보를 4년 만에 중퇴한 후, 문학을 배우기 위해 만 17세의 나이로 도쿄로 건너가 고학하면서 세이세이중학(成城中學)을 다니지만, 중도에 작가 가토 타케오(加藤武雄)의 집에 기숙하면서 4년간 사사(師事)했다. 그의 농민문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도 한다.

이 무렵 습작 『의지할 데 없는 영혼』(1926), 『폐허에 올라』(1927)를 노자영(盧子泳)이 주재하는 청도사(靑島社)에서 출판하지만, 문단으로부터의 반응은 없었다.

1929년에 조선으로 돌아가 동아일보에 단편 「착각애(錯覺愛)」(1929.6.2~8)를 발표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개시한다. 1932년에 중편 「지축을 돌리는 사람들」(『동아일보』)을 쓴 무렵부터 신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1933년 8월에 발족한 구인회(九人會)에도 처음부터 참가하지만, 도중에 탈회(脫會)했다. 1936년에는 죽마고우인 시인 이흠(李洽)과 함께 『조선문학』을 창간했다.

소학대용교원(小學代用教員), 잡지 편집자, 신문기자 등을 거치며 단편집 『취향(醉香)』(1935), 『새벽 무렵』(1935), 『내일로의 포도(鋪道)』(1937) 등을 발표하고 또 평론과 희곡도 쓰지만, 31세가 되던 1939년에 농민문학을 위한 일대전환상(一大轉換相)을 만든다는 대각으로 동아일보 기자를 그만두고, 경기도 군포역 부근의 궁촌(宮村)으로 거처를 옮겨 이곳을 무대로 농민소설을 계속 쓰기 시작하게 된다.

이무영이 처음으로 농민소설을 쓰게 된 것은 1932년의 「흙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후 가난 속에서 체면과 절망을 느끼는 희망이 없는 농민상을 그렸다. 그런데 궁촌으로 옮기고 나서의 작품은 그때까지와는 달리, 역경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가진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게 된다.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1과 제1장」(1939)과 그 속편인 「흙의 노예」(1940)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스스로도 농촌에서 살기 시작한 일과 그 2년 전의 중일 전면전쟁의 개시와 같은 시대배경도 관계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는 해방 후에도 농민소설을 계속 창작하는데,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는 이무영하면 농민소설 작가로 평가되고 있고, 농민소설이 그의 창작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조선전쟁⁷⁷⁾이 일어나자, 그는 해사특교대(海士特教隊)에 입대하기도 했다. 1953년부터 숙명여대 문리과 교수, 1957년부터는 단국대 국문과 교수로 후진을 지도한다. 1960년 4월 21일, 뇌일혈로 급사했다. 1975년에 『이무영 대표작 전집』 전5권(신구문화사)이 간행되었다.

77) 1950년 6·25전쟁.

2. 식민지 말기의 이무영

그런데 이 『청기와집』과 관련하여 식민지 말기의 이무영의 작품 및 그의 행동을 보아줄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37년의 중일 전면전쟁의 개시로 인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통제는 강화되어 갔다. 1937년 10월 10일부터는 ‘황국신민 서사(誓詞)’ 암송이 강제되고, 같은 해 11월에는 ‘애국일’이 제정되었다. 또 1940년 2월 11일에는 ‘창씨개명’이 행해지고, 이와 나란히 일본어 사용의 강제가 강화되어 갔다.

문학에서도 1939년경을 경계로, 조선인에 의한 일본어 작품이 눈에 띄게 증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본어 문학 작품 중 소설은, 저자의 조사로는 1939~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적어도 202편이 씌어졌다. 이를 작가별로 보면, 이무영은 14편으로, 이것은 조선 땅에서 발표된 것으로는 이석훈(李石薰, 목양(牧洋))의 24편, 정인택(鄭人澤)의 19편에 이어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그리고 이무영이 습작기는 별개로 하고 처음으로 일본어로 발표한 것이 『녹기(綠旗)』 1942년 9월호에 게재된 「신랑(婿)」과 같은 해 9월부터 『부산일보』에 연재된 『청기와집』이다.

이무영은 다른 작가에 비해 일본어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늦은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3위에 꼽힐 정도 분량의 일본어 작품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일본어 이외의 집필이 곤란해져 갔고 있던 시기에 그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그는 그 후 왕성한 문학 활동을 보이게 된다.

이후의 관련사항을 연대순으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작품 중에서 특기(特記)하지 않은 것은 일본어 작품).

1942년

12월 16일, 『경성일보』의 대동아전쟁 1주년 특집의 제7회에 평론 「이날로써(この日にして)」를 발표.

12월 말부터 간도(間島)에 시찰 작가단의 일원으로 파견된다. 이 때의 일을 「간도에 여행가서(間島に旅して)」라는 수필로 쓰고(『경성일보』, 1943.11.16~20), 이 경험은 또 단편 「지렁이(土龍)」(『국민문학』, 1943년 4월호)으로 작품화된다.

1943년

1월, 단편 「귀소(歸巢)」(조선어)를 『춘추(春秋)』에, 「과수원 이야기(果園物語)」를 『신여성(新女性)』에 발표.

1월 20일, 『대동아전기(大東亞戰記)』를 이태준(李泰俊)과 조선어로 집필, 인문사(人文社)에서 간행.

2월, 연재를 마친 『청기와집』이 평가받으며 제4회 조선예술상으로 결정 (4월 수상).

4월, 단편 「문서방(文書房)」이 『조선국민문학집』에 수록된다. 이것은 조선인 작가들의 일본어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일본의 동도서적(東都書籍)에서 간행되는데, 조선문인보국회 발족에 즈음하여 조선 문단에서 일본 문단으로 보내는 말하자면 인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집이었다.

5월 3일~9월 6일, 장편 『향가(鄉歌)』(조선어)를 『매일신보』에 연재.

6월 18~20일, 「농촌에서—도회에 있는 친구에게(農村にて都會にある友へ)」를 『경성일보』에 발표.

7월, 계련성회(禔鍊成會)에 참가.

비슷한 무렵, 방한한 가토 타케오를 둘러싼 좌담회 「국민문화의 방향」에 참석.

8월, 단편 「용담(龍潭)」(조선어)을 『반도의 빛(半島の光)』에, 수필 「조선농민을 말한다(朝鮮農民を語る)」를 『금융조합』에 발표.

8월 28일부터 9월13일까지 해군 시찰단의 일원으로 ‘내지’에 간다. 당시 동행자는 김사량, 윤희순(화가), 아베 이치로(安部一郎), 아옥금오(兒玉金五, 필명 宮崎清太郎) 등으로, 이는 동년 3월에 공포된 징병제와 해군지원병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기획된 것이다. 그들은 좌담회 「보고 온 해군 생활을 말한다」에 참석하고, 또한 이 체험을 각각 작품화한다. 가장 먼저 작품화해서 발표한 것은 김사량으로, 르뽀 「해군행(海軍行)」을 1943년 10월 10~23일에 걸쳐, 또 장편 「바다의 노래」를 1943년 12월 14일~1944년 10월 4일에 거쳐 『매일신보』에 발표했다(모두 조선어). 이어서 청목홍(靑木洪)이 단편 「견학 이야기(見學物語)」를 『국민문학』 1943년 12월호에 발표했다.

9월, 가두소설(辻小説) 「역전(驛前)」을 『조광(朝光)』에 발표.

9월 29일, 『청기와집』을 일본의 신태양사에서 간행.

11월, 단편 「대자(代子)」(조선어)를 『춘추(春秋)』에, 수필 「농군을 말함(農軍のこと)」을 『신태양(新太陽)』에 발표.

1944년

1월 15일경까지 장편소설 집필을 위해 황해도(黃海道) 장연읍(長淵邑) 서리(西里) 17에 체재

2월, 단편 「굉장씨(宏壯氏)」를 『문화조선(文化朝鮮)』에 발표.

2월 29~8월 31일, 장편 『바다로 보내는 글(海への書)』을 110회에 걸쳐 『경성일보』에 연재.

4월 15일, 단편 「화굴 이야기(花窟物語)」를 『국민총력(國民總力)』에 발표

4월 25일, 일본어 작품집 『열정의 서(熱情の書)』를 동도서적(東都書籍, 경성)에서 간행

5월, 단편 「고개(峠)」를 『흥아문화(興亞文化)』에 발표

5월 25일 발행한 일본어 작품집 『반도작가단편집(半島作家短篇集)』에 「화굴 이야기」가 수록되다.

6월, 유진오 등과 함께 ‘반도원농대(半島援農隊)’를 위문.

유진오, 사토 신(佐藤清)과 함께 반도대표로 ‘일본문학자 총궐기대회’에 파견되다.

대만의 문학자들과 간담회

8월, 「결전문학 수립을 위해서(決戰文學樹立の爲に)」를 『문학보국(文學報國)』 32호에 발표.

11월, 소문(小文) 「살덩이(肉)」가 『문학보국』 40호의 조선특집에 게재되다.

1945년

2월 10일—23일, 「촌거단상(村居斷想)」(조선어)을 4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발표

3월경에 기획된 「불멸의 무훈, 반도의 용사(不滅の武勳, 半島の勇士)」를 작품화하는 일원으로 이광수(香山光郎), 김동인, 유진오, 정인택, 정비석 등과 함께 거론되지만, 이 기획은 실현되지 않은 듯하다.

3월 26일 「투쟁하는 농촌과 문화문제(戦ふ農村と文化問題)」를 『경성일보』에 발표

8월 1일, 일본 패전 직전에 이루어진 조선문인보국회의 임원 인사 개선(改選)에서 소설부 회장에 선출되다.

이상의 사항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개의 신문연재소설 『향가』와 『바다로 보내는 글』이다. 본권에 수록한 『청기와집』도 초출은 신문연재소설임을 감안하면, 이무영은 식민지 말기라는 작품 발표가 극히 곤란한 시기에 장편 신문연재소설을 일본어와 조선어로 세 편이나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를 엿볼 수 있다.

『향가』는 젊은 인텔리인 남녀가 시골에서 개간 사업에 힘을 쏟고 문자를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국어(즉 일본어)를 보급시키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해방 직후인 1947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될 때는 조선어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바다로 보내는 글』은 위의 맥락에서 보면, 「해군생활 견학기」를 작품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청기와집』에 대해서

앞에서도 썼듯이, 『청기와집』은 당초 일본어 신문 『부산일보』(현재 동일한 이름의 신문과는 관계 없음)에 1942년 9월 8일부터 이듬해 1943년 2월 7일까지 연재된 것이다. 이 초출(初出)본은 게재지인 『부산일보』에 결호(缺號)가 많아, 잔존하는 것은 첫 회부터 제19회분(1942년 9월 30일자)까지인 것이 아쉽다. 완결된 날짜는 단행본 권말의 「작품연표」에 나와 있다.

남아 있는 것에 한정하여 초출본과 단행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면, 소재목과 어구에 다소 손질이 가해지고 등장인물 유해송의 이름이 유해성으로 바뀌었으며, 문장이 통하지 않는 곳을 정정한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다.

특기할 사항은, 이 작품이 조선 땅에서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쓴 최초의 일간신문연재소설이라는 점이다.

일간신문의 연재소설로는 이전에도 장혁주가 『후쿠오카일일신문(福岡日日新聞)』에 실은 「치인정토(痴人淨土)」(1937.6.16~11.6)가 있지만, 이것은 일본 국내(‘내지’)에서 발표된 것이었다. 또한 조선에서 발표된 것으로는 같은 장혁주가 『국민신보』에 연재한 「처녀의 윤리(處女の倫理)」(1939.4.3~8.13)를 들 수 있지만, 게재지 『국민신보』는 주간신문이었다. 게다가 장혁주는 당시 이미 ‘재일 조선인 작가’(조선어 작품도 있었다고는 해도)였고, 조선인 작가, 즉 본래 조선어로 작품을 써야 할 작가가 조선의 일간신문에 연재한 일본어 소설로서는 이 청기와집이 그 효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 연재를 개시했던 부산일보사의 선전문구 등에서도 뒷받침된다(덧붙여 말하면, 식민지 말기 조선에서 발표된 일간신문연재 일본어 소설은 이 이무영에 의한 2편 이외에, 목양(牧洋)의 「영원의 여자(永遠の女子)」(『경성일보』, 1942.10.28~12.7)가 있고, 밝혀진 바로는 3편의 일간신문연재 일본어 소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 연재의 실현은 일본어 사용의 강제라고 하는 정치적 요청이 강하게 조선반도를 덮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문학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발표된 조선인에 의한 일본어 작품수와 조선에서 발표된 작품 수가 이 1942년에 역전되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것은 또한 삽화 화가에 우에노미술학교(上野美術學校)를 졸업하고 문전(文展)에도 몇 차례 입선한 실력과 심형구(연재 당시에는 ‘沈村文吾’라는 창씨명으로 되어 있다)를 기용하고, 연재에 앞선 9월 6일과 8일에는 「본사의 조선작가 등용과 각계의 찬사」(1)(2)에서 유진오, 박영희(芳村香道), 최정희와 가토 다케오(加藤武雄), 쓰다 고우(津田剛) 등 8명의 추천문을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도, 당국의 힘이 작용한 것과 이 일이 갖는 의미의 중대함을 엿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무영이 「작자의 말」에서 이 작품에서 “하나의 커다란 시사(示唆)를 독자에게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황민으로서 조선 동포가 가야 할 역사적인 도정(道程)이라고도 할 만한 것”(『부산일보』, 1943.9.4)이라고 언급했고, 추천자의 한 사람인 가토 다케오가 더 솔직하게, “징병제 시행에 의해 내선일체와 황민화의 의미가 더욱 견고해졌다. 이무영 군의 소설이 본지에 게재된 것은 이를 기념하는 취지에서이기도 하다”(『청기와집』의 작자, 1943.9.6)라고 쓰고 있는 데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조선 최초의 일간신문연재 일본어 소설”이 ‘경성(서울)’이 아니라, 우선 부산(釜山)이라는 지방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9세기 말 일본 정부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가진 신문으로 우선 부산에서 『조선시보(朝鮮時報)』를 발간하고, 이어서 서울에서 『한성신보(漢城新報)』를 창간한 것을 상기시킨다. 이번에도 바로 이어서 『경성일보』에 목양의 「영원의 여자」가 연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방에서 시작하여 중앙으로라는 것이 동일한 수법이다.

이야기는 그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청기와집’이라고 불리고 있는 양반 권씨 집안을 무대로 하여, 여주인공 미연을 둘러싼 남녀관계가 종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녀가 신세를 지게 되는 ‘청기와집’에 ‘지나’의 ‘사대사상’에 의해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권 대감, 미국에서 돌아온 ‘영미(英美) 제일주의’ 아들 수봉, 손자이자 도쿄에서 유학하고 온 인철의 3세대를 배치하고, ‘지나사변 제1주년’에서부터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고 이듬해 일본이 홍콩을 점령하기까지가 시대 배경이 되고 있다. 권 노인은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고, 인철은 개간사업에 몰두한다. 1941년 12월 8일의 대(對)영미 전쟁 개전 소식이 전해지자, 수봉은 마음을 바꾸어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참배한다. 미연이 부친의 3년 상도 끝나고 인철과의 결혼도 목전에 둔 어느 날, 오빠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1년 더 상 기간을 늘리고 싶다고 인철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권 대감이 ‘구사상’을 인철이 ‘신사상’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낡은 ‘조선’은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권 대감의 죽음). 그 구사상에 지배받고 있던 ‘청기와집’을 구원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파악에 있다고 인철은 깨닫는다.

이 ‘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당시 이무영의 것이었다. 이무영은 「정열의 서(情熱の書)」(1944)의 「후기」에서, 오늘날처럼 힘이 요구되는 시대는 없고, ‘힘’은 ‘신념’에서 생긴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장편 ‘청기와집’의 집필은 이무영의 그러한 신조를 고백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출전 : 李無影, 『靑瓦の家』(『日本植民地文學精選集(朝鮮編 5)』監修 白川 豊, ゆまに書房, 2000년 수록, 1942년 9월부터 『釜山日報』에 연재)〉

3) 『정열의 서(書)』(1944)

다이쇼(大正)시대부터 쇼와(昭和) 초기에 걸쳐서 명기자라고 칭송받던 동아(東亞)신문의 우소(牛笑) 씨가 갑자기 모습을 감춘 것은 1931~1932년경이다. 명기자일뿐만 아니라 명문장가로서도 이름을 떨치고 있던 만큼 당시의 신문이나 문단에서는 크게 소문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친인척이 없는 독신자였으므로 찾아낼 단서조차 없었다. 그때부터 10년, 그의 이름은 세상 사람의 기억에서 완전히 망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는 싸우는 농촌의 경북 편을 쓰기 위하여 모 지(紙)에서 파견된 김에, 선친의 산소에 성묘하러 가다가 죽령을 넘는 깊은 골짜기에서 한 사람의 초부(樵夫)를 만나게 되었다. 물론 나는 우소 씨와는 일면식도 없었으나 학생시절부터 꽤나 자주 사진을 보아 온 터로 얼핏 보고도 그 초부가 우소 씨인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애써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으나 내가 알아차리는 듯하자, 잘도 알아보셨군요 라고 말하며, 손으로 판 참빗살나무 마도로스파이프로 장수연(長壽煙)을 빼꼼빼꼼 태우면서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그가 나에게 들려준 기이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잘도 알아보셨군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사진으로 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도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말이지요, 한두 번 연단에서 본 얼굴이 그렇게도 기억이 되는 것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무슨 인연이겠지요.

아니 뭐 별로 당신에게 사과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창백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나는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당황한 게 얼굴에 드러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시원하게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범죄자가 법의 심판에 완전히 몸을 맡겼을 때와 같은 맑은 기분입니다.

내가 경성에서 몸을 감춘 것이 1931년경 이맘 때였으니, 이제 만 10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 10년 전인 25살이던 해에 신문기자생활을 시작했으니 내 기자생활도 만 10년으로 끝난 것이 됩니다. 나는—예? 아니 아니 별로—. 뭐 10년이라는 해수에 구애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그런 숫자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기자생활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을 때, 만 10년이구나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잠시 감회에 잠겼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만 10년은 채우자,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식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호오!, 그리고, 그렇군—. 어허~, 그런 소문까지 났었나요. 몰래 도망갔다는 건 조금 놀랍군요. 대륙으로 갔다는 소문을 낸 것은 뭇 군이겠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영구(吳英九)라고 하는 잘 알려진 사내였습니다. 그 사람, 술에 취하면 종종 나에게 대륙행을 권했습니다. 자주 전봇대를 부둥켜안고 울던 사나이 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역시 간 것이군요, 상해입니까, 역시 그가 갈 만한 도시지요. 그 오 군이란 자, 5척 정도의 작은 사내인데, 다음 대의 장개석이 될 것이다, 꼭 되겠다, 장개석으로 변신하지 못하면, 적어도 장작림이라도 되마—밤낮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술고래여서 연회 같은 자리에서 보통 잔에 술을 권하면 바보, 나는 매미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라고! 라고 하면서 컵이나 밥그릇에 벌컥

벌컥 들이키곤 했지. 하지만 몰래 도망이라니 뜻밖이네요, 적어도 실연(失戀)을 해서 실종했다고 한다면 항의도 할 수 없지만.

허허허. 무심코 말해 버렸네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될 것도 없지만—.

당시 저는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우습지만. 저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순진한 편이라서, 서른이 되어서야 겨우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국에서 갓 돌아온 전문학교 교수의 따님이었습니다. 친해지고 나서는, 목석 영양(令嬢)이라고 놀려 댈 정도로 여성스러움이나 부드러움이 전혀 없는 영양이었으나,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를 마냥 좋아하고 있었지. 오만하고 고집이 세며, 러시아 소설에 자주 나오는 여투사 같은 느낌의 여자였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잘 우는 여자였지. 소나기처럼 울었어. 그녀와 오래 사귀는 동안 나는 그녀가 3분 이상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말 그대로 소나기야. 왈각 눈물을 쏟는 건가 싶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활짝 핀 모란 같은 얼굴을 한다구. 그때는—아니 지금도 그렇지만—그녀가 울고 난 뒤 그 얼굴 시원함에 나는 크게 매혹당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더위로 삶은 것처럼 되어버린 같은 초목에 소나기가 좌악 뿌려진 직후의 그 상쾌함—떨린 것 같이 격렬하게 울고 난 뒤의 그녀 얼굴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나는 순진한 편이었습니다. 나는 요즘 같으면 중학생이라도 할 만한 사랑을 했어.

“어머나, 어이가 없어, 서른셋이나 되는 분이 그런 일에 일일이 화를 내다니, 비웃음을 살 뿐이에요.”

그녀는 언제나 거침없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열 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소학생처럼 타이름을 받을 때도 있었다.

그녀와의 그러한 교제가 3년 남짓 계속되었다. 드디어 연애에 끝을 알리는 때가 오고 있었다. 우리 둘은 결혼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혼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했다. 그녀는 뜻밖에도 보기 좋게 그것을 거절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까닭을 묻지도 않았다. 사랑하던 남자와의 결혼을 거절할 이유란 여자의 변심 이외에 있을 리가 없으며 그 이유를 묻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별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집밖으로 나와 버렸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경성의 한 가운데에 천 여 평의 대지를 갖추고 있는 그녀의 집의, 남산에 접하는 깊은 나무숲 한 귀퉁이에 나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노(老)교수의 서재가 있는 양옥에서 번쩍번쩍 등불이 빛나며, 언니의 행복을 언제나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녀의 여동생 용희(龍姬)인 듯한 이가 피아노 건반을 마구 두들기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에게서는 비웃는 것처럼 들려와서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용자(龍子)—그녀입니다—는 대문에서 나를 불러 세워 집요하게도 나에게 결혼을 거절한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유를 듣고 나도 놀랐다. 당신이라도 틀림없이 놀랄 것이다. 그녀는 말하기를, 적어도 2, 3만의 자산을 가지지 않으면 생활을 위한 인생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다. 나는 의연하게 그녀와 헤어졌다. 그리고 정말 그녀다운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의(善意)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녀만큼 이유를 정직하게 말한 여자는 고금을 통하여 또 없겠죠. 백명의 여자가 남자를 배신할 경우, 그녀들의 본심은 한결같이 이 황금일 터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직하게 말한 여자는 한명도 없겠죠. 그녀들은 성격이나 이상(理想), 부모의 반대, 그리고 궁색해지면 미

신 따위를 내세우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여자일수록 더 그럴듯한 변명을 합니다. 그녀처럼 조선에서의 최고 교육을 받고 있고, 게다가 현대 여성으로서 최고의 교양을 갖추고 있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그녀로서는 더 교묘한 구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이유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 내가 그녀의 변심을 의심 할 수가 없었던 것, 어느 쪽이나 나에게는 불행이었다. 나는 한심스럽게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로서 계속 사랑 해 온 그녀를, 이번에는 결혼을 거절한 여자로서 계속 사랑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내 자신 그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대개 여자는 처음에는 이상화되고, 그것이 점점 실재(實在)의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정체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나는 그녀가 말한 거절 이유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혼자 굳게 믿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신뢰는 배신당하지 않았다. 그 별빛이 빛나는 밤으로부터 1년 뒤의 일이다. 그녀는 곧 결혼할지 모르니까 라고 말하며, 결혼해 버리면 이제 당신과는 사랑을 맹세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마지막 이별을 하러 온 것이라고 하고서는, 저 소낙비와 같은 울음을 울고 난 뒤, 예의 그 상쾌한 얼굴로 나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게 하고, 자신도 불을 뿜는 것 같은 어조로 나에게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면—”하고 나는 우소 씨를 가로막았다. “당신도 그 여자에게 사랑을 맹세했습니까?”

“맹세했습니다.”라며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맹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놀라고 있는 당신이라도, 나처럼 매우 감동해서 맹세했겠지요—”

비웃음을 살지 모르지만—이것을 듣고 웃지 않을 사람도 없겠지만—두 사람은 불과 같은 사랑의 말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기념으로, 나는 그녀를 잃는 기념으로—. 그녀는 나에게 최고의 경의와 사랑의 상징을, 그리고 나도 그녀에게 나의 고조모대로부터 가보로서 전해 내려 온 어머니의 옥으로 만든 실패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녀가 한 평생 계속 사랑할 대상을, 내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한밤중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는 행복한 듯이 돌아갔습니다. 나도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빨강고 높은 벽돌 벽 모퉁이까지 바라다주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바깥문의 외등 아래서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내가 회사를 떠나, 단 하나의 가구였던 양복장을 태평통의 고물상에 건네고, 15~6년간, 하찮은 월급에서 1권, 2권 사 모은 장서를 흰 책방에 건네주고 경성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는 한동안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며, 훌쩍 하숙집을 나와서는 거리를 헤매다가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대체로 거리가 자는 듯 조용해지고 나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포자기한 것은 아니었다. 회사 일을 게을리 하는 일도 없었다. 다만 어느 정도 일이 빠져 있었던 것 같다. 때가 좋지 않게 마침 나는 외근에서 내근으로 자리가 바뀌어 있었다. 사회면의 편집은 부장과 차장이 주야 교대로 담당하고 있었으나 부장이 녹막염을 앓고 두 달간은 나올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평사원인 채로 편집을 맡게 된 것입

니다. 편집을 하게 되면 11시경부터는 직통전화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어도 나는 그것에 신경이 안 가고 명상에 잠겨 있는 일이 자주 있었다. 어떤 날은 나는 꿈을 꾸는 듯 벨 소리를 들으며 낙서를 하고 있었다. 꽤나 오랜 시간 울리고 있었는지, 구석 쪽의 편집장이 달려와서 응답하기에 비로소 알아차리고 몹시 당황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중대한 사건의 협의를 하기 위하여 평양지국을 불러내 놓고, 무심코 옥상에서 한 시간을 보내어 대소동이 일어났다.

“받지 않을 전화라면, 치워 버릴까요?”

그다지 화를 낸 일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편집장을 정말 화내게 한 일도 두 번이나 있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제 자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 시간쯤 긴장하고 있으면 그 뒤로는 축 늘어지며 피곤이 찾아와서 스르르 잠냄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조차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홍용자(洪龍子)라는 여자가, 내 생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부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그녀에게 모든 것을—5월의 아침과 같은 희망도, 저 치열했던 문학에의 정열도, 그렇군요, 말하는 것을 잊었습니다만, 저는 소년시절부터 문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기자가 된 것도, 명기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학수업을 위한 생활의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장이나 편집장의 회전의자에 유혹 당하지 않고, 신문기자로서의 모든 명예보다도 문학의 길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데 초조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아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읽어 주셨군요. 그까짓 거, 작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 개인의 잔소리 기록정도로 쓴 것이었습니다. 신문기자 동료들에게는 호되게 당했으나, 그 무렵의 신문기자란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문학작품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공의 직업의식과 문학적인 작가의 욕의 격심한 투쟁은 지금 보더라도 꽤나 잘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염삼섭(廉三涉) 씨가 주인공의 문학에 대한 의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말한 것 등은 제 처녀작인 만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작품평에 저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옆길로 빠졌습시다만, 그렇게 강렬했던 문학에 대한 정열마저도 그녀에게 빼앗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빼앗아 간 문학과 생에 대한 의욕을 되찾기 위하여 초조해 했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도 없이 거리를 헤맸던 것도 결국은 이러한 고민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저의 생명력이 날로 쪼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연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사지를 지탱하는 것도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몹시 피곤해져서 식욕은 잃고, 머리 속은 가을 낙엽처럼 마르고, 시력도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 눈은 곧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숙집은 천만장자귀족 아무개의 돌 담벼락의 처마 끝에 있어서, 해맑은 물을 머금은 노란색 은행나무 잎이 종종 5평도 안 되는 가난한 하숙집 뜰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쉬고, 명하니 창가에 날아오는 은행잎을 바라보면서, 하숙집 다섯 살 난 손녀를 상대로 지내는 날도 있었다. 저는 날 때부터 몸이 건강해서 병상에 눕는 일이 좀처럼 없으며, 더구나 사적인 일로 회사를 쉬는 일은 10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날이 며칠이나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간을 펼쳐든 저는 무엇에 썩은 듯이

하나의 기사에 눈이 멎었습니다. 순간 나는 딱 막힌 내 삶의 길을 그 기사에서 찾아낸 것 같았다. 나는 게걸스럽게 그 기사를 읽었다. 검은 장막으로 가려졌던 문학에의 길도 활짝 열린 듯 보였다. 그렇다. 이러한 것이 나의 모든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암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틀림없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자도 그녀를 위한 한 동의 주택도, 그리고 한 대의 피아노도, 나는 밤낮으로 하찮은 기사를 쓸 필요 없이 정돈된 서재에서 읽고 쓸 수가 있으며, 새로운 문학수렵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 내 아버지를 비명횡사하게 한 것도, 그리고 12세 소년시절부터 나의 가냘픈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 것도, 끝내는 30세까지의 20년 간, 청춘을 잘라 팔도록 강요된 것도 결국은 이러한 괴물의 요구일 뿐이었다. 이 괴물의 장난일 뿐이었다.

민중의 목탁으로서 자임(自任)하고 있었던 신문기자로서 숭고한 정조를 생의 가장 청순한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야 할 이우소가, 눈도 팔다리도 몸뚱이도 감정도 없는 일개 금광의 노예나 신봉자가 되려고 과거의 불타오르는 희망을 고물상에 건네주어야 했던 초조와 모순을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에 와서도 그 모순을 합리화 시킬 구실을 나는 찾아낼 수 없다. 아무리 물질문명의 전성시대라고 하나 황금이라는 무미무취(無味無臭)한 일개 무생물에 의하여, 한 사람의 불행한 인간이 행복한 사람으로 되살아난다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날 조간을 장식한 그 금광왕이라는 인간을 보아도, 이름 없는 일개 광부에서 일약 5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의 생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나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 황금의 매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킬 수가 없었다. 민중의 행복과 문화의 훌륭한 창조자라는 신념으로 살아온 과거 10년간의 기자생활이, 한 잡광부의 생과 비교하여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곤지키야샤(金色夜叉)』를 구성하고 있는 비극은 황금 때문에 여자로부터 배신당한 남자보다도, 고리대금업으로 세력을 떨치는 남자의 후반생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우리들 교양인은 믿은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 사나이가 황금으로 여자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남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그 남자의 슬픈 생애를 스스로 강요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나는 전혀 모순이나 우스꽝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었다. 만약에 내 가까운 친척 중 누군가가 그렇게 어리석고 꺼림칙한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그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에 틀림없이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아니, 내 자신 나의 모순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알면서도, 스스로를 비웃으면서도 주르르 끌려들어가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을 뿐이었다. 하지만 뭐 아무래도 상관없겠죠.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지껄여봤자, 그 당시나의 전환에 가치를 매기는 건 고사하고 합리화 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곧 일개 잡광부로서의 삶을 영위하고자, 경성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 일만은 털어놓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일만큼은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탐광객(探鑛客)—이라기보다는 일개 잡광부입니다만—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은 곳은 강원도의 강릉이었습니다. 읍내에서 서북쪽으로 반리정도 들어간 곳에서, 이전에 사회운동 등을 하고 있던 한 지인이 작은 규모의 금광산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연락이 닿자 저는 만약을 위하여 미리

전보로 알리고 경성을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외투가 필요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알아볼까 겁내며 차안으로 들어가 바로 침대 담요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스팀이 들어오지 않아담살이 돋는 추운 밤이었습니다. 추위와 덮쳐오는 불안감 때문에 저는 잠도 전혀 자지 못했습니다. 경성을 출발하여 승합차로 읍내에 도착한 것은 이미 이력저력 젓빛의 저녁노을이 산속 읍내의 하늘을 덮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마중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인의 얼굴은 정류장에 내려도 보이지 않고, 저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반리쯤의 길 같으면 터벅터벅 걸어가도 되겠다. 나는 침구가 든 야나기고리⁷⁸⁾와 트렁크를 차 주인에게 부탁하고 금광산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질문 받은 노인은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면서 지금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한다. 물어 보니, 5리는 충분히 된다는 것이다. 아, 반리라고 들은 것은 그쪽에서는 조선의 리 단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지의 리 단위를 가리킨 것이었다. 나는 내 명칭함에 낙심했다. 5리라면 도저히 걸 어갈 만한 거리는 아니다. 나는 배낭을 짊어지자 안내 받은 대로 작은 여인숙으로 숙소를 정했다.

그곳에서의 하룻밤 숙박 기억은 내 한 평생을 통하여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1박에 60전인 그 숙소는 온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동굴처럼 어두운 방의 네 벽면은 검붉은 피로 도배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빈대 피였다. 침구에는 손도 대기 싫었다. 밤중에 일어나서 내 침구를 꺼내 누워 보았으나, 냉기와 불안이 털구멍을 통해 금세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이제 막바지까지 왔다. 경성에는 죽어도 이대로 뻘뻘히 돌아갈 수는 없다. 길가의 돌멩이 같은 내 신세가 그 밤만큼 슬프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서른다섯 먹은 다 큰 남자가 하염없이 울었던 것이다. 울음을 그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런데 마중을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3일 전에, 그것도 특별배달로 보냈으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텐데.

새벽에 잠깐 졸았나 싶더니 산 읍내의 아침이 추위와 함께 몸에 다가왔다. 나는 아침식사를 마치자 지계꾼에게 짐을 부탁하고 험한 산을 몇 개인가 넘었다. 산들은 새빨간 단풍으로 물들어 산 중턱을 구불구불 구부러진 길을, 더욱더 하얗게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머리 바로 위에서는 산비둘기가 날아가기도 하고 들쥐가 발밑을 가로 질러가기도 했다. 가도 가도 마을은 보이지 않고, 깊은 산의 풍경이 갈수록 짙어진다. 나는 땀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배 정도 돌아가더라도, 신작로를 택할 것을 하고 후회했다. 질러가는 길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지계꾼을 끌고 온 것이었다. 그래도 오후에는 지인이 머무르고 있는 오리골(鴨洞)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숨 돌리고 여인숙 처마 밑에 짐을 내려놓으니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어디 광산에 가시는 길인가요?”

“그렇습니다.”하며, 나는 여인숙의 주인 같은 중년 사나이에게 대답했다. 나는 지인의 이름을 대고, 지인 앞으로 전보가 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왔다는 것이었다. 전보를 받았으면 마중하러 나와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혼자 화를 꼭 참고 있으려니 주인은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당황하는 얼굴이 되어, 주위에 모여 온 두세 명의 광부 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머뭇거리며 사실 그 전보는 우체국에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왜 되돌려 보냈느냐고 따지니까, 그 사

78) 柳行李. やなぎごうり. 버드나무의 가지나 대오리 따위로 걸어서 만든 상자 같은 물건. 역주.

나이는 한층 곤란해 하는 표정을 지으며, 보여주어도 모르기 때문에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알고 모르고는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지 않느냐—하고 내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니까, 사람 좋아 보이는 남자 주인은, 당황하면서 눈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인이 있는 장소를 물어보니, 산이라고 했다. 혼자 투덜거리며 제가 구두를 신으려고 하니, 무표정한 얼굴을 한 한 사나이가, 이상한 소리를 중얼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를 내 봤자, 염라대왕 앞에 전보가 배달될 턱이 없지.”

“무어라고!”

나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 사람은, 염라대왕이 잡아갔다구.”

“그게 정말입니까, 예?”

“그렇소이다. 갱 벽이 무너져서 말이지요.”하며 남자 주인은 조용히 긍정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저께 밤에는 이제 나도 이런 고생은 하지 않을 거야, 엄청난 노다지(金塊)를 발견 했으니까—그런 소리를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오면 함께 경성에 등록하러 간다는 이야기였는데…….”

매우 실례된 질문입니다만, 당신은 내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지인 중에 내기를 좋아하는 분은?, 흠, 그거 드문 일이네요. 나에게는 형이 한 사람 있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가 내기를 대단히 좋아했지요. 좋아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몹시 서툴렀나 봅니다. 하면 반드시 진다, 지 또 건다. 그리하여 말하자면 가산 거의 전부를 도박에 걸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아까 제 아버지는 비명횡사 하셨다고 말했으나, 형은 아버지 생명까지도 도박에 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보다도 1년쯤 앞서 갔고, 저도 내지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혼자 쓸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서는 오로지 저에게 도박을 경계하기 위하여 쓴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나는 성격이 내기를 싫어하며, 단 한번도 도박에 눈을 돌린 적이 없었다. 만약에 도박에 흥미를 느낀다면, 너는 형을 생각해 내거라. 이들의 도박의 희생이 된 아버지를 생각해 내면 될 거야—아버지의 이 유언을, 나는 한번도 상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필요가 내게는 없었던 것이다. 저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모든 일에 충직하고 근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해내지 않는데 익숙해져 버려서, 당연히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경계해야 할 순간에조차 그 훈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나 형의 일이 생각난 것은, 이것 또한 나의 생명을 내기에 걸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의 일입니다. 아마추어의 탐광, 이것 역시 도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산 생활 3년째의, 백 년이래 흑한이라고 불렸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병이 들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죽을 만큼 제 정신이 아니었다. 저의 탐광생활은 그해 겨울부터 일개 잡 광부로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오전 1시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낮도 밤도 없었다. 낮에는 채석부터 선광(選鑛), 광차(鑛車)밀기, 갱도 만들기까지 온갖 노역에 저의 소중한 육체를 제공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자 문명문화의 창조자인 인간도, 광산에 한 발 들여놓자 그것이 마지막, 지금은 광산전사(戰士)로서 국가적인 의의를 갖는 채광작업이지만 당시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한 사실은 한 개의 광석이인간

백 명의 고깃덩어리와 맞먹는 가치를 갖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광산 주인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광부들 자신들이 그러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에 저도 꽤나 놀랐습니다. 당신은 광부의 눈을 똑바로 쳐다 본 일이 있습니까. 없군요. 그렇다면, 다음번엔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핏발 선 눈이라고들 하는데, 그들의 눈이야말로 핏발 선 눈입니다. 피가 푹푹 떨어질 것 같은 색을 하고 있습니다. 광부의 의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데 광부끼리의 두터운 의리는 누구나 경탄하게 됩니다. 그 의리란 것도 사실은 광산주인 대 광부의 경우의 의리이고, 막상 자신들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되면, 상대방 생명은 한 덩어리의 광석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제 생명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비하감(卑下感)을 상대방 생명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살기어린 핏발 선 눈의 한가운데서, 저는 3년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처음에 탐광부로서 그들의 동료가 되었는데, 그 전날 밤, 저는 막걸리 2말에 작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의형제를 맺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는 아랫마을 주막에서 했는데, 잔치가 한창일 때 갱내부(坑內夫) 동료인 권과 최가 말다툼을 시작하여, 드디어 유혈이 낭자한 활극을 연출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권이 그 다음날부터 그림자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과 최는 그곳의 작부를 사이에 놓고 옥신각신 한 것 같으며, 그것이 그날 폭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가 권을 처치했다는 사실을 안 것은 훨씬 나중에 일입니다. 예? 아니 아니, 해고가 아니고 완전히 처치한 것입니다. 그래요. 공포의 세계지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밤에 숙소로 돌아오면 지쳐서 녹초가 되었습니다. 격심한 노력보다도, 제 육체는 광부들이 자아내는 분위기 속에서 살기 위한 노력 때문에 피로를 더 느꼈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여기 저기 나만의 세계를 찾아 독서에 빠졌습니다. 독서라고 해도 제 독서는 금광산에 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광산 순례』, 『탐광 길잡이』, 『광물 6강(講)』 이런 종류뿐이었습니다. 그 책들은 대부분 경성을 떠날 때 헌책방을 뒤져 사 모은 것입니다. 조금 전 얘기한 초보자용에서 시작하여 내 지식은 점점 전문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갱벽의 붕괴로 생매장된 지인의 유물이었던 『분석학』이라든가 『채광과 선광』, 『정련(精鍊) 요강』 등의 책 덕분에 30, 40권은 있었다. 그러한 책을 나는 그의 누이동생에게서 양도받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참……그래요 아무래도 그녀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김에 해 두지요. 귀임(貴任)이라고 하는, 사범학교 출신의 성격이 밝은 듯한 느낌의 여자였습니다. 제가 지인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산의 사무소에 달려갔더니,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산에 있었는데 급보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숙부라고 하는 신사도 함께 있었다. 오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녀는 나를 산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것 같았으나, 나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헤어질 무렵에는 울면서까지 나를 단념시키려고 했으나, 그래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우리는 가끔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산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할 거라며, 수건과 비누, 손으로 짠 손수건 같은 것을 보내오기도 해서, 나도 잠시 마음을 빼앗기는 듯하기도 했는데, 나는 이제 지식녀라면 질색이었다. 더구나 지금의 나는 일개 광부이다. 광부에게 사범학교 출신의 여교원은 장남에게 안경 같은 것이 아닐까. 그보다도 당시의 내 눈에는 금괴밖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내 눈도 이미 그 무렵에는 충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몇 권인가 문학서도 보내 왔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것은 이미 필요 없는 것이었다. 성의를 담아 보내진 그 책들은 보내진 그대로 반송되었다. 금광산에 관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갖고자 원한 것은 오로지 금덩어리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광산에 관한 것 이외의 어떠한 독서나 사색도 모두 사도(邪道)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리하게 한 끼를 굶는 일은 있어도 신문을 읽지 않고는 살 수 없던 과거가 참으로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다. 나는 경성을 떠난 이래, 현 신문 한 장조차 읽지 않았다. 그렇게 있으면서 외롭다고 느끼는 일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글자 그대로 평범한 광부로 정착한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한 가지 고통이 있었다. 밤이 되어도 나만의 세계와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저 광부로 끝낼 작정은 아니었습니다. 3년, 5년, 아니 10년 후라도 좋으니, 한번은 광산 주인이 되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만 되면,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의 금광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만의 생각은 그 세계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죽음을 상대로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밤에는 도박 아니면 음담패설 아니면 술, 어느 것이라도 하나 하지 않으면 이단시되었습니다. 한번 이단자 취급을 당하면 그걸로 끝. 그는 벌써 그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이! 잡광……안 비켜!”

등불 밑에서 책을 펼치고 있으면, 종종 저에게 호통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 녀석은 금광방을 글방인줄 아는 모양이야!”

“광부한테 읽고 쓰는 건 필요 없어! 여기 와서 화투놀이에라도 끼는 것이 낫지. 노름 하나쯤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광부가 아니라구.”

“4, 5 가보다.”

“뭉야! 따라지야!”

이러한 시끄러움과 욕설을 피하여, 저는 이 광구 저 광구를 전전하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만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4년째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충북 땅을 밟았습니다. 충북에 왔을 때는 출원 비로 준비해 온 천엔 가까운 돈도 대부분 까먹은 상태여서, 이제 제대로 일용광부라도 하지 않으면 그날 여인숙비도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관은 하지 않았다. 저는 이미 어엿한 제대로 된 금광부였습니다. 나는 이미 어떠한 조악한 음식에도 견딜 수 있었으며 아무리 심한 노동에도 끄떡없었다.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에서도 들쥐처럼 뛰어다니는 명실공히 산 사나이가 되어 있었다. 지질이나 암석에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돌절구로 광석을 잘게 쪼갤 수도 있었으며, 나아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제련법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강원도에서 충북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나는 대부분 도보로, 그것도 험준한 깊은 산을 넘어 갔다.

충북에는 서북쪽으로부터 남하했습니다. 영봉 금강산이 도굴에 의해서 황폐해진 시대에, 도굴꾼들에게 고향 따위의 사설을 쓴 내 자신에게 쓴 웃음을 지으면서, 석 달간이나 헤매어 보았으나, 드디어 설악을 넘어서 한강의 상류를 따라 또다시 남하하여 풍기로 나왔다. 풍기 지방은 대체로 돌산이 적은 곳이다. 한 달 남짓 있다가 그곳을 철수하고 북상하여 죽령을 넘어서 단양에 온 것은 5월도 끝날 무렵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단양에서는 금광산보다도 중앙선을 위한 죽령 터널공사로 떠들썩했다. 산에 관한 공사라면 무엇이든 환영이다. 나는 잠시 거기에서 밭파공으로 일했다. 대체로 산에서 하는 공사는 위험물이 높기 때문에 임금도 좋은 편이었다. 나는 10일쯤 일하고 나 근처의 산에 기어 올라간다. 산에 밭을 들여놓자마자 내 눈이 밝은 빛을 내는 것을 의식했다. 하나의 바위를 들여다 볼 때 내 가슴은 빛나는 희망에 불타고, 그럴듯한 돌에 정을 갖다 댈 때는 역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검은 거암이 어느 순간 찬란한 황색을 띄며, 싱싱한 서기(瑞氣)가 어렸다. 예전 내가 신문기자였던 시절에, 문화니 민중이니 자주 대단한 것에 대한 말을 하곤 했지만,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오로지 금덩어리였다. 사랑도 명예도 문학도 없었다. 금 산출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제가 써 갈긴 적도 있습니다만, 이미 그러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금괴를 노리게 된 원래의 동기는, 역시 더 위대한 문학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자위하였지만, 그러한 순간의 저에게는 위대한 문학도 한 개의 잡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어려움과 조의조식(粗衣粗食), 격심한 노동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늘어지는 눈꺼풀을 치켜 올리며 쇠망치로 광석을 깨뜨려 밤늦게까지 분석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저는 몇 번이나 현기증으로 쓰러지곤 했습니다. 코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신념을 잃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러한 노고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만간에 나는 반드시 한번은 막대한 양의 금괴를 파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계속 믿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골짜기에서 한 사람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17, 8세쯤 되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의 그 소년은 솔잎 지게를 세워 놓고, 골짜기 물을 손바닥으로 떠 마시고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한 여름 오후였지만 깊은 산골짜기는 으스스 추울 정도로 추웠습니다.

“깨끗한 물인가.”

나는 말을 걸고 골짜기로 내려갔다.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거의 드문 일이었다. 하루 종일 독사와 토끼와 들쥐에게 계속 놀랐던 나로서는 사람을 만났으니 조금 더 기쁨을 나타내어도 좋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소년은 확실히 놀란 것처럼 보였으며, 토끼가 종종 그러듯이 바위 위에 가볍게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역시 토끼 같은 눈으로 두리번거리는 것이었다.

“미안. 놀란 것 같구나.”

소년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고 나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외쳤다.

“아저씨 아니에요? 저 창돌이에요. 창돌! 창돌이 몰라요?”

재미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이란—. 그에게 그렇게 듣고 나도 이력저력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딘가 금광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어디에선가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그 어디인지가 아무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라구요. 아저씨. 창돌이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나를 모르다니……. 저기 저 강릉에서. 뭐야, 그래도 모르다니. 그 광산주인 누이동생분의.”

“아! 알았다. 알았어.”

이건 또 뭐 어찌된 해후인지. 그래도 용케 기억해주었다며 감탄했습니다. 금괴의 희생이 된 그 친구의 누이동생이 길 안내로 읍내에서 데리고 온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녀가 묵고 있던 여관

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아직 14, 5세의 소년이었으나, 기특하게도 장례 치르는 일까지 도와주어서, 돌아갈 때도 그녀를 따라간 것입니다. 조금은 읽고 쓸 줄도 알고 국어⁷⁹⁾도 의사표시가 서툴지만 할 수 있었으므로, 그녀에게 무슨 직업을 부탁한 것이 생각났으므로, 그 후에 그녀와의 연락은?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물론 여자의 힘으로 취직을 알선한다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도 해서 괜히 그런 것을 물어 그녀에 대한 불쾌감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무심코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는 그와의 약속을 훌륭하게 이행하여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급사로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창들은 거기서 1년 반을 일하고, 지원병으로 지원했으나 학과에서 떨어졌다. 학교에 돌아오자 곧 하나뿐인 형이 광산의 발파공사로 다쳐서, 불구자가 되었으니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분부가 도착했다. 급사라곤 해도 교장의 특별배려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도 받고 있었으므로 눈물을 삼키고 돌아왔다. 지금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합격할 수 있는데 딱하게도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4, 5년 전부터 중풍을 앓고 있고, 형은 왼쪽 발이 듣지 않으므로, 그의 가는 팔로 두 사람의 환자애다가 어머니와 누나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근처에 광산이 많으므로, 선광(選鑛)에라도 나가면, 얼마만큼 생계도 수월하지만 아무래도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구자는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금광 같은 곳에 자식을 보내는 것은 이제 질색이다. 그것보다 산에 밭이라도 만드는 게 낫다고 부모들은 말했지만, 산 밭 만으로는 다섯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툼툼이 숯을 구웠다. 오늘도 사실은 원목을 벨 작정이었는데 약속한 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돌아가는 길에 낙엽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네 집은 어디쯤인가?”

“바로 저깁니다, 저 기슭을 돌아간 곳이지요.”

“허! 그런 곳에 마을이 있었나, 나는 이 근처는 꽤 깊은 산골짜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장까지는 2리 반이나 됩니다. 마을 아녀자들은 순사얼굴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지요.”

“그런가. 그렇다면 여기쯤은 어디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산을 둘러보고 있으니, 창들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을 물었습니다. 새터 마을이라고 대답하니,

“네에! 새터 마을에 계셨습니까? 이상하다. 새터 마을에 있었다면 내가 어째서 지금껏 몰랐을까? 바로 저깁니다. 저 산 바로 앞입니다. 저희 마을은 태봉동(胎奉洞)입니다. 보세요. 건너편에 보이지요, 저것이 태봉입니다.”

“저기가 태봉인가, 그럼 알겠군. 엉뚱한데 와 버렸네.”

옛날엔 왕자가 태어나면 그 텃줄을 사람이나 짐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깊은 산 속의 한 봉우리를 택해서 묻었다고 한다. 나는 한번 올라가보고 싶었지만,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큰맘 먹고 올라가 볼까도 했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새터 마을까지는 산을 넘으면 1리도 되지 않으나 돌아가면 꽤 되는 길이었으므로 다음 기회에 가기로 하고 창돌이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79) 일본어. 역주.

창돌이가 원하는 대로 그의 집에 들러 그의 부친과 형을 만나고 게다가 저녁밥도 대접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온 식구가 꼭 자고 가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결국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뵈는 것은 처음이지만, 이야기는 종종 들었습니다.”

형인 인돌이는 은인을 맞이하듯 환대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창돌이는 여러 가지로 우리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녀가 제 이야기를 한 것이 됩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제 이야기를 오빠로부터 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주 창돌이를 상대로 제 안부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듣고 보니, 꼭 싫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저는 고맙기는 하지만 쓸데없는 호의라고 비뚤어진 기분이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저의 탐광열은 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출원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몇 개인가의 분광(分鑛)에 손을 대고 혼자서 기쁨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창돌이네 봉당을 빌리고 새터 마을에서 철수한 것은, 그때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깊은 산이 갖가지 색깔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핏발이 선 눈으로 산을 헤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주 그가 숲 굽는 데를 들여다보거나, 현장에 없으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육친을 대하는 것 같은 친숙함과 편안함을 그들 가족에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그와 베개를 나란히 하며 잤으나, 다음 날 아침에 그의 부친과 형인 인돌이가 끊임없이 자기 집에 와 주지 않겠냐고 권유하였습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어떤 안개가 짙게 낀 아침, 창돌이가 나를 방문하여, 오늘 저녁에는 돌아가는 길에 꼭 자기 집에 들러달라고 했다. 누군가의 생일이겠거니 하며 발파공사에서 곧장 창돌의 봉당에 들어서자, 뜻밖에도 제 짐이 모두 들여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는데, 그날 밤부터 나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고뇌와 투쟁해야 했습니다. 소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창돌이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문화에의 추구였던 것입니다. 그의 생활양식에도 그 격심한 의욕이 무엇인가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얇은 판자에 소나무 생나무 못을 박은 대용품일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책상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책들도 『탐광의 길잡이』, 『분석과 정련』 같은 종류의 것이기는 해도 문화에 반항하는 그러한 서적이 아니라, 국어나 이과학(理科學)을 종합한 엄연한 문화계통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어떠한 부류의 인간들보다도 황금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다고 할 만한 창돌이와 그의 집안사람들이, 현대문화인의 지성을 한입에 삼켜버리는 황금에 참으로 냉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밥을 거의 상식(常食)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 하루 한 끼는 꼭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면서도 황금의 찬연한 가치를 냉담하게 보고, 그 황금에 매혹되어 있는 모든 인간을 연민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는데다가 가난 때문에 약 한 첩도 마시지 못하는 부친은, 저에게 탐광의 무의미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직 20세도 되지 않은 소학교의 급사에 지나지 않았던 창돌이나, 고등교육을 받고, 문화의 최고 전당이었던 신문사에 근무하던 제가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설교를 듣는 모습을 아무쪼록 상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탐광에의 정열이란 창돌이의 정열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2시까지 분석과 정련에 있으면, 창돌 오전 1시를 훨씬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숯을 굽는 불을 때는 사이사이에, 현장에의 왕래에, 창돌은 잠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현 신문도 있으며 잡지 한두 가지는 갖고 있다. 소설을 탐독할 때도 있었다. 그런 신문이나 잡지는 모두 내 지인 중 누군가의 이름이 실린 것이었습니다. 『문원(文園)』이라고 하는 문학잡지도 2, 3권 있었는데 그중 한 권에는 공교롭게도 「문화와 황금」이라는 내 논문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그 논문은 『문원』을 위하여 쓰인 것이 아니고, 황금에 매혹되어 끊임없이 금광으로 달려가는 문화인의 경박함을 경계하기 위하여, 사장의 명령을 받고 사설로서 발표된 것이었다. 그것을 『문원』이 어디에선가 듣고 재록(再錄)한 것입니다. 창돌이는 딱히 그 문장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없었다. 어쩌면 그의 학력정도로는 조금 어려웠을지 모른다.

솔직히 말해, 나는 경성을 떠난 이래 단 한 장의 신문에도, 잡지에도 눈을 대지 않고 있었다. 아니, 의식적으로 나는 황금정신과 배치되는 이러한 문화적인 계통의 산물에 대하여, 무관심하도록 힘써 왔으며, 가능하다면 경의를 가지려고까지 애썼던 것이다. 물론 나는 뿌리부터 문화를 증오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나는 이전에 나의 동료이거나 또는 후배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질투 섞인 감정을 문화 그 자체로 돌려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왔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창돌이의 물건들이 자아내는 문화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심한 멸시와 적의를 품었던 것이다. 문화라는 것이 비하해 본다고 해서 비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의식이 반발적으로 더욱 적의를 품게 하여 나를 위로 해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 패퇴감에는 또한 문화라는 것에 대한 이념의 저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오래 전에 지금 나의 문화에 대한 주석(註釋)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가 갖는 기품의 향기를 상실하고 있었다. 이전의 나는, 문화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숭고한 이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숭고한 이념은 우선 배금(拜金)주의와 배치하는 것으로서, 배금사상이 끼어들면 그것으로 끝나고, 문화는 빛 앞의 어둠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커다란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아를 황금으로 가책(苛責)하고,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랄 만한 일은, 문화 창조를 위해 황금이 필요했던 내가 문화의 부정과 사생활의 안일을 위해서만 황금의 가치를 인정할 정도로까지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돌이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분위기에 마음속에서부터 적의를 느끼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창돌이가 동경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과, 그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내 지인이거나 선배이면, 나는 노골적으로 적의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 적의란 물론 질투의 변모였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이 고통이 패퇴감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부터 나는 미친 듯 적의를 과장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나는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을 위로를 한 것이다—

“황금 없이 문화는 없다. 나는 이제 곧 엄청난 부를 갖는다. 너희들이 아등바등 그날그날 끼니를 버는 동안 난 결국 해낼 거야. 조금도 조금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여기에서도 참패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창돌이가 21살이던 해 겨울이었으므로, 내가 태봉동에 와서, 햇수로 3년 째였다. 나는 격심한 의혹에 봉착했다. 바로 얼마 전 나는 이상한 꿈을 꾸곤 적이 있다. 꿈이란 언제나 초현실적인 것이다. 그날의 꿈도 그러한 것이었다. 나는 3백 명의 청장년으로 이루어진 백두산등산단의 단장으로서 천지의 호반에서 쉬고 있었다.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모두 가사(假死)상태였다. 모두 물을 원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천지의 물은 고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겨우 천지의 한 곳에서 샘물을 발견하고, 별척별척 들이켰다. 모두 되살아났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내 대동맥 속에어린 잉어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또 있었다. 있는 정도의 소동이 아니다. 그 숫자가 실로 억을 넘는다. 그런 꿈이었는데 이번 의혹도혈관 속에서 잉어가 헤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과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다.

내가 탐광생활을 하는 동안 사바(娑婆)—광산에서는 세상을 그렇게 불렀다—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루거우차오(蘆溝橋)에서 지나 측의 불법사격이 발단이 된 총돌사건이 지나사변으로 발전하고, 풍운이 그치지 않는 구라파에서도 좌충우돌, 에티오피아에 이어서 폴란드나 핀란드 등의 작은 나라가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또한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러한 세계동란에 대해서 지금껏 냉정했다라기보다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세계 속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지나사변에 대해서도 비교적 무관심했다. 우선 광산구라는 곳이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서, 세상일은 강 건너 불처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나 자신, 지금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 개인의 죄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 온 것이다. 나는 국가와 세계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제쳐두고 국가를 생각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도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 무렵 나는 런던이나 파리에 놀러갈 것을 몽상하고 있었다. 이것도 물론 내가 탐광으로 거대한 부를 획득할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다. 그렇게 될것을 굳게 믿고 있던 나는, 그저 그 거대한 금괴의 용도만을 생각하면 되었던 것이다. 나는 구미의 문화에, 그리고 문학에 심취해 있기도 했다. 특히 현대의 문화라는 것은 영국의 오랜 전통과 미국의 활기찬 기백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런던과 파리에서 유학함으로써 동료들로부터 뒤쳐진 거리가 단축되리라고도 생각했으며, 노력과 재능의 부족도 영국이나 미국유학으로 충분히 보충되리라고도 믿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신변에 다가오는 사변의 거친 숨결에 냉담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 그래서인지 마음속으로 자공심마저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경성을 떠난 이래 신문이나 잡지에 눈이 가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해 왔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틀림없이 나의 패퇴의식이 가져 온 동료들에 대한 심한 질투심 때문이지만, 나는 역지로 문화인인 그들에 대한 멸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현재의 나는 그들에게 한참 뒤쳐져 있지만 내가 입지전 속인물의 반열에 오른다면, 그들이 쟁취한 명예는 내 한줌의 금괴로 금세 부숴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무릇 현재의 문화라는 것은 황금의 문화인 것이다. 금덩어리만 있으면 서재와 침실이 딸린 주택도, 수만 권의 서적도 명령한마디로 살 수 있다.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괴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도, 나는 한번도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은, 나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잃어버린 사랑에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인간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옆길로 빗나갔지만, 그 무렵의 어느 날, 우연히 내 혈관 속에는 전쟁을 긍정하는 피와 부정하는 피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문화인이라 생각하고, 문화인이란 모든 권력, 모든 전쟁에 냉담할 수 있는 부정의 태도를 가지는 자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전쟁은 문화에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전쟁은 파괴를 위해 필요할 뿐이며, 건설은 아니라고.

“내가 전쟁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문화인이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큰 전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관심하게 있는 것은 마땅히 타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 끝나기보다는 보다 나은 한 사람의 문화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커다란 긍지를 갖고 싶다—.”

그런데 창돌이의 기원은?—창돌이가 지원병이 되고자 하는 세찬 욕망은 그러면 단순한 파괴인 것인가. 우리 국토를 덮쳐오는 외적에게, 용감하게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 과연 파괴적이고 비문화인인 것일까. 그것이 과연 추한 것일까. 아니다 아니야, 틀림없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문화의 길이다. 보다 강하고 올바른 문화인인 것이다. 나는 밤새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잠이 안 오는 밤이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흙벽에 어떤 잡지의 표지그림 이었던 듯 보이는 칼라 인쇄된 그림을, 창돌이 붙여 놓았다. 색깔과 구상이 그다지 잘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전에 구라시키(倉敷)의 어떤 부호 집에서 고히나 미켈란젤로 혹은 밀레의 그림을 보았을 때의 느낀 저 숭고함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소집에 응하여 출정하는 젊은이를 전송하는 그림이었다. 기교도 수법도 구상도 지극히 치졸한 그 그림이, 이렇게 기품이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그보다도 내가 놀란 것은 전쟁과 사변에 대하여 냉담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의 피에, 이 그림에 감명하는 파괴의 긍정정신이 흐르고 있었던가 하는 점이었다. 나는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창돌이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지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 우리는 자주 태봉에 올라가서, 몇 시간이나 거기에서 지냈다. 창돌이는 이미 중학생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질문의 화살을 나에게 던졌다. 응답하는 동안 그가 나보다도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확실히 그보다는 많은 학문을 닦았을 터이다. 하지만 내 학문과 지식은 한 세기 전의 낡고 곰팡이가 핀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 지식이 시국적인 것인 경우 나는 이미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나라를 생각하는 그의 지성(至誠)은 내 폐부를 찌르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창돌이가 지원병이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부터 빌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비로소 협력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확실히 창돌이가 나가 있던 다음다음 날 밤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그 무렵의 나는 용돈마저도 부자유스러울 정도로 궁했기 때문에, 거의 산에 나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광산주인인 하야시(林)에게 불려가, 참으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야시의 광산이 거금 80만 엔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80만 엔에 권리와

시설을 넘겨주면, 내 분광도 적어도 10만 엔의 가치가 생기는 셈이다.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나는 두세 번이나 확인했다. 정말이고말고, 이제 자네도 막대한 부를 갖게 될 거네. 그렇게 말하면서 하야시는 격려해주었습니다. 금광산 유행이 슬슬 식어갈 무렵이라고는 해도 아직 국가는 금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였다.

그날 밤이었으니 잠이 안 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심한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저녁밥도 맛이 없었다. 창돌이 등이 권해서 아주 조금 입을 적시는 정도였다.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나는 가만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좋은 달밤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이었으니, 꽤나 추웠을 텐데 나는 장마철처럼 무더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밭과공도 아니고 분광주도 아니다. 나는—나는, 10만이나 가진 대부호인 것이다.

마을 끝에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언덕에는 늙은 소나무 4, 5그루와 들장미에 얽힌 동백이 있고, 거기에는 붉고 푸른 원색의 가느다란 형꽃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성황당이었습니다. 작은 돌이 높이 쌓여 있는데 그중에는 제가 아침저녁으로 지나칠 때마다 던졌던 돌도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탐광에의 염원을 저는 몇 백번이나 조약돌에 담아 빌었던 것입니다. 그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벌써 이래저래 11시경이었다. 소원을 들어준 답례로 나는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춘 것인데, 문득 보니까, 나무그늘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정신없이 열중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자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빌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얻게 해 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겠지 하고, 내가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는데 얼핏 선생님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나는 가만히 몸을 나무그늘에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저런, 창순이가 아닌가.

정말 창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모르시겠지만, 창순이는 창돌이의 누나입니다. 대체로 산속엔 처녀들이 적운데, 어찌된 일인지 23살이 되도록 좋은 인연을 찾지 못하고, 그녀의 엄마의 말을 빌리자면, 부모의 수치였습니다. 인물이 그렇게 빠지는 편도 아니며, 체격도 다부져서 좋은 부인이 될 텐데 하고, 나도 혼자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처녀이니 설마 아이를 비는 것은 아닐 테고, 신랑이라도 빌고 있는 것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쓸쓸해보였습니다. 나는 그냥 말을 걸어 볼까 했지만 그녀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 두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뜻밖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녀는 제 일을 빌고 있었습니다. 제 일 말이지요.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야 그렇지요. 있을법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빌고 있었던 것은 저의 행복이 아니고 저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황당님, 부탁드립니다. 저 금광이 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광산주인의 이야기가 아무쪼록 거짓말이기를—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바로 울컥 화가 났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사리분별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저주에 의해 내가 깊은 구렁텅이에 처넣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행운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그녀를 매도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녀의 머리를 한 대 때린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정말 그랬겠지요. 아무튼 그녀를 천하고 더러운 욕으로 매도하고 그 추운 밤을 하염없이 걸어 돌아다녔습니다. 창순이가 거기에 었드려 흐느껴 우는 것을 뒤로 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잠시 창순이에 관한이야기를 해 볼까요. 예?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난 사실 그녀에게 무관심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일이 있는 후에도 그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는 나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내가 전혀 짐작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내가 그녀 집에 기식(寄食)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내 침실에서 세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광석에 매달려 있으면, 그녀는 종종 야식을 날라다 주곤 했다. 물론 창돌이를 위해서였겠지만 반드시 내 뭇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산에서 돌아오면 방이 깨끗이 치워져 있고, 양말 같은 것까지 말끔히 빨아서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혼담도 2, 3건 있었는데, 모조리 퇴짜 놓은 것도, 그리고 보면 까닭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군요.

그겁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그 주변 주민과 광부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겠지요. 한 마디로 말해 그들은 서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마을에 뿌리를 박아 온 주민들의 눈으로 보면 어디에서 온 말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철새 같은 초부들을 전혀 신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마을에 가까이 오게 하지 않았다. 하숙은커녕, 마을을 지나가는 것조차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왔다하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철 과일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벼 1, 2가마가 한 해에 한두 번은 반드시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과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젊은 처녀가 자주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는 것이었다. 금광산이 생기고 이웃에서 7, 8명의 처녀들이 유괴되었다. 그 대부분은 돌아오긴 했지만 아이를 등에 업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병을 얻고 있었다. 3사람인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녀들은 돌아오려야 돌아올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 세 사람 중에—선분이라는 이름을 가졌다—한 사람은 내가 태봉동에 있을 때, 불쑥 되돌아왔지만 그녀의 늙은 아버가 문턱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쫓아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12, 13대 전부터 마을에 뿌리를 박아 온 성실한 농가로서, 읍내로 나간 장남과 의절하고 차남에게 가산을 물려 줄 정도로 고지식한 노인네였으므로, 부모를 배반하고 마을을 떠난 딸과 의절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도 그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업고 풀이 죽어 읍내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고지식한 아버 앞에서 어머니도 어찌는 수가 없어 나중에 차남이 꽤 큰 돈을 다른 사람을 통해 건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차남은 불운한 형에게도 몇 번이나 돈을 주었는데 그의 장남도 아버의 고지식함을 이어 받았는지 한사코 받지 않았다는 것도, 마을의 미담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내가 그 노인네와 친하게 된 것은—. 딸 사건 이전에 나는 그에게 꽤나 악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마을에 받아주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것도 그 노인네였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창돌이의 부친이 아들의 소원을 받아들여 결행한 것이다.

그런데 창순이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케도 사랑의 의사표시 한번 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긋한 그녀도 내가 벼락부자가 된다고 알자,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광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벼락부자가 됨과 동시에 마을을 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물론 그럴 작정이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몹시 초조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니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녀 같은 일에 일말의 동정이나 이해도 할 수 없는

나였습니다. 아니, 나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다음 날 아침에 나는 벌써 하야시 씨와 동행하여 돈을 받으러 경성에 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전히 꿈속에 있었습니다. 예상한 만큼의 액수는 아니었지만 6만이란 눈이 핑 돌아갈 만한 큰돈입니다. 나는 6만 엔만 있으면, 에티오피아정도는 살 수 있을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존재는커녕, 창돌이에게 마저도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6년 만에 본 경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나는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광산주인인 하야시와 함께 비젠야(備前屋)를 나왔습니다. 숙소의 자동차로 조선은행에 가서, 매주(買主)인 조선광산회사의 지배인과 응접실에서 만나, 6만 엔짜리 수표를 받았습니. 하야시와 지배인은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나,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한 시라도 빨리 현금을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손이 베일 것 같은 백 엔짜리 돈다발을 손에 넣었을 때의 감격은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눌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에 섰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도 바보로 만드는 것인가 하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나는 거만하게 가슴을 펴고, 수표를 은행원에게 툭 건넸습니다. 은행원은 수표와 손님의 얼굴을 민첩하게 조사하자, 나를 다시 보지도 않고, 덜컥 대리석 위에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5엔이나 10엔짜리의 번호표라도 내미는 듯한 거친 태도입니다. 나는 어쩐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여보세요, 이것은 6만 엔짜리인데—”하며 나는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은행원은 흘끗 쳐다볼 뿐, 서류를 기록하면서 짹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는 또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긴 의자에 앉아 불과 5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 5분간이 얼마나 길던지! 나는 몇 번이나 창구를 들여다보면서 아직이냐고 물었습니다. 드디어 번호표를 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마였지요.”라고 은행원은 물었습니다.

“6만 엔입니다.”라고 나는 은행 안이 울릴 듯한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원은 역시 5엔이나 10엔짜리라도 건네주는 것과 같이 예사롭게 돈다발을 쟁반에 올려서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도 그다지 불만스럽지는 않았다. 불만 따위를 품을 여유도 나에게에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백 엔 다발을 보자마자 채가듯 그것을 받았습니다. 정복을 입고 정모를 쓴 감시원으로부터,

“우선 살펴보십시오.”라고 주의를 받았으나, 나는 괜찮아 하며 총총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묵직한 돈다발의 무게도 뛰는 가슴을 억제해주지는 못했다. 태봉동을 떠나는 날부터 갑자기 추워졌지만, 봄의 따뜻함처럼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서 인지 사람의 왕래가 번잡하고, 거리는 북적거리는 느낌입니다. 나는 어디에도 갈 목적지가 없었다. 나는 멍청하게 은행 앞에 서서, 꽤 오랜 시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심한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마음속으로부터 추위가 솟아올랐습니다. 울고 싶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추위는 순식간에 심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

어도 추위는 낫지 않고, 마음의 공허함은 더욱더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종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침침하게 흐린 하늘에서 조금씩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외로워져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본 일이 있는 얼굴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더욱더 추위를 느껴, 외투 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양복점에는 기성품이 없었으므로, 러시아인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160엔을 주고 외투를 샀다.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다가 두세 명 눈에 익은 얼굴도 만났지만, 모처럼 그리워서 다가가면 상대방은 눈인사 정도만 하고 휙 지나쳐 버린다. 참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이제 이윽고 불이 밝혀질 무렵, 나는 큰맘 먹고 신문사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잠시 사육을 그림계 바라다보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압적인 느낌이 드는 정복을 입은 수위가 용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유를 이야기하자 그는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그 신문은 폐간이 되었습니다. 여태 모르셨군요?”

“네, 몰랐습니다.”

“이전에 그 회사의 사원이었습니까?”

“그랬습니다”라고 나는 대답했으나, 급히 당황해서 덧붙였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산 속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저, 금광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 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쩐지 우리 집에서 쫓겨난 듯한 슬픔이 복받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 사육 정문에는 열 몇 개 인가의 간판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회사들은 똑같이 시국적인 명칭을 가진 회사명이었습니다. 나는 신문이 폐간된 이유를 대략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보다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숙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베갯머리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문틈에 끼여진 신문을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국어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아무리 산속에 처박혀 있었다고는 해도, 민간신문 전부가 폐간이 된 대 사건을 그때까지 몰랐던 멍청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역시 나는 아무 것도 몰랐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문이나 잡지와 거의 인연이 없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만 6년만인가요—그 날짜의 발행신문을 보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으려니 그 사실을 자연스레 잘 알게 되었다. 신문에 나와 있는 술어나 지명 대부분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한 술어나 지방은 모두 내 은둔생활 중에 생겨난 새로운 문화용어였다. 그 용어들은 창돌이가 자주 쓰던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나는 그러한 용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세계에 살았던 셈이다. 그때까지 나는 나 자신을 진보적인 문화인의 한 사람이라고 혼자 생각해 왔는데, 그러한 문화라는 것은 이제 앞의 신문과 함께 매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와서 새삼 알아차린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실부터 유리될 수 없는 것이다. 민중의 목탁으로까지 칭송받던 신문이, 어쩔 수 없이 폐간하게 된 시대,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대동아제

건의 성전(聖戰)에 힘쓰고 있는 역사적인 대사에마저 무관심할 수 있는 문화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문화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나는 국민의 총력귀일(總力歸一)과 상반되는 개인적인 영예에만 급급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 무렵은 이미 지나사변의 배후에 영미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그 세계관·경제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때였다. 그 날짜 신문에서도, 정부가 그들의 음모에 임하는 결의를 역력히 읽을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이 만약 동아시아에서 독수(毒手)를 거두지 않는다면, 일전도 불사하겠단—정부 대변인들이 입을 모아 소리 높여 외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성명과 결의에 비교하여 나라는 문화인의 의욕과 결의는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것을 돌이켜보고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공허함과 슬픔에 찬 며칠인가를 나는 경성에서 보냈다. 동경의 대상이었던 이 거리는 날이 갈수록 나에게 슬픔을 더해 줄 뿐이었다. 저 추위에 센닌바리(千人針)⁸⁰⁾의 바늘을 놀리는 붉은 손, 낡은 세계관을 버리고 용감하게 가두에 진을 치고 있는 새로운 젊은이들, 자신의 묘 구멍이를 파는데 허비한 6년간의 공허함, 6만 엔으로 거들먹거던 나의 승리감은 엉망으로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 비애를 돈으로 지워 없애려고 초조해 했다. 나는 매일 요릿집에 들어앉아서 물 쓰듯이 돈을 썼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의 절망감은 더욱더 깊어질 뿐이었다. 백 엔짜리의 힘으로 여자들의 떠받침을 받고 돌아올 때의 무미건조한 공허함과 슬픔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취한 뒤 나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울었다. 내가 그녀—한 칸의 양옥도 피아노 한 대도 살 수 없는 무능한 남자와의 결혼을 거절한 그녀의 강연을 들은 것도, 나쁜 술의 숙취로부터 아직 깨지 않았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아직 잠자리에 있었다. 독한 양주 때문에 심한 두통을 느끼며 요 며칠 동안 탕진한 금액을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의 라디오가 「조선의 어머니들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제목을 방송하며, 강연자로 그녀의 이름이 올라 왔다. 나는 그녀의 숨결마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지원병을 계속해서 보내라, 외적은 우리 국토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멍청히 있어도 되겠는가. 어머니들이여,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논지였다. 숙취에서 깨어나자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날 아침부터는 그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의지할 곳 없는 실명(失明)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그리고 완전히 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황민(皇民), 황병(皇兵)으로서 신세대를 짊어질 새로운 젊은 문화인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내가 힘없이 태봉동에 돌아온 것은— 경성에서의? 아니 아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상 묻지 말아 주십시오. 태봉동에 도착한 것은 선달그믐이 얼마 안 남아 있을 때쯤의 낮이었습니다. 마을이나 산들은 깊은 눈에 갇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오래간만에 창돌이의 부친과 점심을 함께 하고, 일찍이 내 유일한 가재도구였던 서적과 분석도구를 챙겨서, 숲을 구우러 나가 있는 창돌이를 찾아 산으로 갔습니다. 창돌이는 나라는 것을 알자 맹수처럼 소리를 지르며, 손살같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리 부둥켜안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치자, 우리들은 잠시 동안 숲가마 아궁이 앞에서 말없이 손을 짚며 언제까지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돌이에게 장작을 지게하고, 태봉에 올라갔다. 바람이라도 불고

80) 출정 군인의 무운(武運)을 빌기 위해 천 명의 여자가 한 장의 천에 붉은 실로 한 땀씩 매듭을 뜬 것. 군인들은 이것을 몸에 지니고 전쟁에 나갔다. 역주.

있는 것인지 먼 산은 눈보라로 흐려져 마침 커다란 설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대봉산 아래를 달리고 있는 신작로가, 가늘게 검은 선을 그리고 있을 뿐 천년림(千年林)의 밀림도 깊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라도 싫증 내지 않고 드넓은 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에 불을 붙여 왕성하게 불타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보따리에서 서적과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돌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서적들을 하나씩 불꽃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맨 먼저 손에 잡힌 것은 『탐광의 길잡이』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차례차례 손에 잡히는 대로, 불꽃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창돌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활활 타는 서적과 등산지팡이들이, 슬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타는 불빛의 탓도 있었겠지만, 창돌이의 얼굴은 확 밝아져 돋보였습니다.

그 정열의 책들이 타 없어지고, 불타고 난 뒷마무리를 마칠 때까지도, 우리는 단 한 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마무리를 끝내고 비로소 나는 창돌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창돌 군, 이제 자네가 뒤를 걱정할 필요는 없네. 자네 한 집안은, 이 내가 모두 책임지겠네. 자네는 자네가 생각하는 길로 돌진해 가면 되는 거야.”

마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 이야기는 한 젊은 여인의 출현으로 중단되었다. 열은 검은 피부를 가진, 그러면서도 차분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여인이었다. 필자를 보자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군(郡)에 계시는 분과 면에 계시는 분이 오셨다고 말하곤 도망치듯 돌아갔다.

“저 여자입니다. 창돌의 누나란— 알 수 없는 녀석이에요. 이미 아이까지 생겼는데, 선생이라고 부른답니다. 후후후.”

그렇군, 그러고 보니, 그녀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러면 저도 슬슬 내려갈까요? 바로 지난 달 송탄유의 채취강습을 했는데요, 그것을 검사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댁도 이런 산골짜인가요?”

“그렇습니다, 미흡하나마 도로부터 양 백 마리를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군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 용건이겠지요.”

창돌의 그 뒷 소식은요? 6만 엔의 용도는요? 필자는 좀 더 상세하게 듣고 싶기도 했으나, 마침 군과 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나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출전 : 李無影, 『情熱の書』, 東都書籍, 1944년 4월 25일〉

4. 이석훈

1) 동(東)으로의 여행(1942)

이즈모 오야시로(出雲大社)의 참배를 끝냄으로써 성지순배의 모든 순서가 아무 탈 없이 끝난 풀이였기에, 철(哲)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편한 마음이었다. 나머지는 곧장 경성으로 서둘러 가는 일만 남았으므로 도중의 가와타나(川棚)온천에서 지내기로 한 내지에서의 마지막 오늘밤이 지금부터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온천이라는 것에 연상되는 향락에 대한 동경에서가 아니고, 짧은 시일에 내용이 많았던 순서로 꽤나 바빴던 여행에 철은 완전히 지쳐있던 것이다. 어젯밤 교토를 출발하여 이제 이른 아침에 막 도착했을 뿐이지만, 오야시로에서도 낮 기차로 또 여기를 떠나야 할 만큼 서둘러야 했다.

경내 뒤에서 신사를 나오려고 할 때, 안내인으로부터 기차시간까지 이나사노하마(稻佐濱)에 가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철은 일행 중의 5, 6명과 안내인을 따랐다. 오야시로에서 서쪽으로 5, 6백 미터, 그곳은 부두도 없는 거친 모래 밭 앞에 찻집이 2, 3채 있을 뿐인, 파도소리만이 쓸쓸한 바닷가였다. 하늘은 잔뜩 흐렸으며, 곧바로 저쪽에 조선과 이어져 있을 잿빛의 끝없는 바다는, 수평선이 하늘과 분간이 안 되는 암울한 것이었다. 2, 3백 미터 떨어진 바다에, 후타미가우라(二見浦)의 부부바위를 조금 작게 한 것 같은, 새까만 기암이 이 암울한 바다에 오로지 한 점의 악센트였으나, 바위 위 작은 붉은 사당의 지붕에 멈춘 한 마리 큰 새도 무엇을 생각하는 듯 언제까지나 침묵하고 있었다.

계절은 벌써 11월 말경으로, 먼지가 앉은 창가에 달같이 높이 쌓여 있는 찻집도 텅 비어 있다. 잿빛의 모래밭에 메어 놓은 소 한 마리가 우두커니 바다를 쳐다보면서 천천히 되새김질 하고 있는 모양이 어쩐지 철에게는 눈물겨웠다. 그 옛날 조선과의 밀접한 교통이 이 바닷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근처의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도 철에게는 그렇게 느껴져, 소가 한가하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유구하다는 느낌이 살아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감동은 이번 여행 중 그가 종종 경험한 것이다. 나중에 철은 생각해보았으나, 왜 그렇게도 눈물겨웠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것도 감상적이라고 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감상에 젖은 것을 철은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은 아직도 순진한 정서가 풍부한 것이라고 자신을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한 것이다.

철은 드디어 기차 안에서 눈물을 푹푹 흘릴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버렸다. 이마이치(今市)에서 시모노세키(下關)행으로 갈아타고, 유노즈(溫泉津)를 지났을 때였을까. 기차는 끈질기게 일본해를 물고 늘어져서 떨어지지 않고, 다만 가끔 송림이나 시들어버린 낮은 언덕 같은 것으로 가끔 시야를 방해 받을 따름이었다. 오후부터 바람이 일어난 것 같으나, 여전히 흐린 하늘의 바다는 하얀 파도가 수도 없이 일어서 거칠었다. 차창에 바짝 기대서 다케우치(竹内) 테루요의 시집을 읽거나, 일본해를 바라보다가 철은 울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가을 여인”이라는 한 장(章)에서, 황량한 북국의 가을 해변에서 한 사람의 절망한 슬픈 여인이 차가운 바다 속에 스스로의 일생을 끝마치려 할 때에 미지의

어린아이가 “왜 죽으려고 해요”하고 물어 보아서, 갑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그 어린 아이를 울며 껴안았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차창에 언제까지 비치는 거친 일본해의 풍경을 앞에 두고 보니 현실감 있게 가슴을 찌르는 감격적인 이야기였던 것이다.

철은 당황해서 외면했으나, 옆에 동석해 있던 최에게 들키고 말했다.

“어이 철! 어떻게 된 거야”

최는 조금 놀란 것 같은 말투였다. 그는 철과 같은 마을 출신인데 독학으로 공의(公醫)에까지 올라간 것을 자랑하며, 출세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쾌활한 시골 의사였다. 철은 울먹이면서 한참 동안 우물쭈물 하고 있었으나,

“이 시집 안에 있는 인생이 슬펐던 거야”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철의 마음속에서는 이 시집 안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시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쓰게 한 이 일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속삭이는 다른 목소리도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나라(奈良)의 카스가(春日) 신사에서서의 일이었다. 신사 오른쪽 앞쪽의 수풀 사이에 백등(白藤)의 폭포라는 작은 폭포가 졸졸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옆계 내려앉은 아침안개를 뚫고, 피와 같은 말라죽은 단풍이 삼나무류의 상록수와 어울린 한 폭의 비단 그림을 배경으로 백등(白藤)의 작은 폭포는 조금은 여행에 지친 철에게 이상한 마력으로써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었다. 찻집의 가장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그 폭포 언저리를 바라보고 있던 철은, 얼핏

(여기에서 죽고 싶구나)

라고 입 안에서 중얼댄 것이었다. 그 감격은 극히 한 순간의 일이었다. 마치 불꽃처럼 그의 머리에 반짝 번득었다가 사라진 것이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철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보다 먼저 시모노세키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산요선(山陽線)을 달릴 때, 철은 저 흰 벽의 넉넉한 농촌에 완전히 매료되어, 최를 향하여,

“저 굴밭 언덕 아래에서 한평생 살았으면”하고 속을 털어 놓았던 것인데 그 생애의 동경도, 이 죽음에의 매혹도 결국은 갈피를 잡지 못한 도피심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이 경성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상운동에 가담하고 있으나, 아직 확고한 신념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자신이 한 차례 이 아름다운 국토에 접하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세(伊勢)의 고타이진구(皇大神宮)에 참배한 후, 후타미가우라(二見浦)의 해변 여사(旅舎)에서 하루 밤 조용히 생각하는 사이에, 철은 방황의 구름을 걷어내고, 밝은 신념으로 한 걸음 비약하는 자신을 느꼈다. 그것은 요컨대 솔직한 직감으로부터 오는 일본에 대한 신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설명해보자면 내궁(內宮)의 저 비할 바 없는 신성함은 일본 국체의 존엄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모든 신역(神域) 과산하(山河)가 그렇지만, 한 점 어둠이 없는 밝은 처녀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는 3천년이라고 하는 유구한 시간 동안 한번도 외적에게 짓밟히지 않은 고귀한 역사의 상징처럼 철에게는 느껴졌다.

그렇게 생각되자 철은 안심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 나라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기 보

다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자신을 진짜 동포로서 포용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신뢰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갑자기 용기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드디어 내일부터 앞으로의 여행이 즐거운 것이 되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뜬 기분이 되었다.

그리고 나고야를 거쳐 2일 후에 도쿄에 도착하여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만세이바시(萬世橋) 근처를 휘파람을 불며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으려니 10년 전 이곳에서 보낸 학생시절의 일들이 그리운 추억으로 살아나서 고향에 돌아온 듯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거리를 걸거나 음식점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도 이상한 시선에 부딪히는 일도 없이 극히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신을 철은 가는 곳마다 찾아냈다. 굳이 나는 일본사람이야 라고 애쓰지 않아도 당연하게 일본사람으로 통하여, 새삼스럽게 나는 반도인이라고 작아져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도쿄에서의 첫날은 온종일 비가 와 우산을 쓰고 궁성(宮城)에 요배하고 메이지신궁이나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했다. 어디서나 그랬지만 태평양의 파란을 앞에 두고,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전(神殿)에 조아리는 것이었다. 모두가 진지함 그 자체였다. 엄숙하게 기원(祈願)은 계속되었다. 철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었다.

다음날은 자유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철은 학생시절 신세를 진 고미야마(小宮山)라는 미망인 집을 오모리(大森)로 찾아갔다. 사카시타마치(坂下町)의 철로 가에 고미야마 미망인 집이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에 있을지 어떨지는 약간 의문이었다. 하지만 도쿄에 왔으니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도쿄에 온 가장 큰 즐거움은 코미야마 미망인의 딸 루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던 것이다.

고미야마 루미—그녀는 이미 일찌감치 철을 망각의 바다 저쪽에 밀어 보냈을지도 모르나, 철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속의 여성이었다. 아니 그녀도 필시 마음속에 영원한 환영(幻影)으로서 철을 새겨 두고 있을 것이라고 철은 믿고 있었다.

철이 도쿄에서 배우기 시작한 첫해는 18세의 봄이었다. 루미는 아마도 15세나 16세였을 것이다. 그는 당시 도쿄에서 개업하고 있던 이(李)라는 중학교 선배에게 소개를 받아, 고미야마 미망인 덕의 한 명뿐인 손님으로서 임시 기거하고 있었다. 내무성의 퇴직관리의 미망인으로, 그다지 큰 유산은 없었으나 두 사람의 생계가 곤란하지 않을 정도는 있었다. 그러므로 흔히 있는 하숙집은 아니며, 주인 때부터 특별히 친한 사이였던 이 의사에 대한 호의로 두 사람뿐인 가족에게는 조금 지나치게 큰 집에 말하자면 가족의 한 사람처럼 철을 맞이한 것이었다. 철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 고향을 떠나, 거기에 다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도회지에서, 이것은 바라지도 않았던 행운이었기 때문에 여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는 항상 주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년도 되지 않아 고미야마 미망인은철의 사람됨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철은 전혀 여성스럽지는 않았지만 역시 반도의 유서 깊은 가문 출신답게, 과묵하고 점잖은 기품이 있는 청년이었다. 그 점을 높이 산 것일 터이다. 그녀는 안심하고 루미와 자유롭게 교제하도록 두었다.

교제라고 해도 루미는 아직 여학교 3학년으로 이제 겨우 여심(女心)이 깃들 때였다. 한편으로는 쾌활한 성격이지만 가끔씩 가을 호수처럼 예민하게 표정을 흐리고 때로는 살짝 눈물마저 흘리는 것이

었다. 철은 그러한 루미의 심리의 바닥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극히 미미한 정도지만 자신이 불구라고 하는 것에 어두운 운명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철은 생각했다. 루미는 어릴 적에 관절을 앓았다던가 하는 이유로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 왼쪽다리를 절름거리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림자가 그녀의 빼어난 미모와 총명하게 보이는 눈동자를 한층 슬픈 듯이 보이게 하곤 했다.

철은 루미를 데리고 자주 산노(山王)의 숲을 거닐었는데 예쁜 여학생과 스쳐 지나갈 때는 루미는 살짝 가볍게 한숨을 쉬며,

“철 씨, 부끄럽지요?”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었다. 철은 전연 뜻밖의 질문에 조금은 당황하면서,

“예? 무엇이 부끄럽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검은 눈동자를 얼핏 돌리면서,

“불구자인 나 같은 사람과 걷고 있으니……”

“그, 그럴리가요”

철은 터무니없다는 말투로 강하게 부인했으나, 루미를 보다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 말만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그럴 듯한 말은 하지 못하고, 초조한 듯 고개를 숙이면서 신발 끝으로 돌맹이를 툭툭 차는 것이었다.

“정말일까요?”하고 루미는 얼마간 어리광부리듯 말하며 두 눈을 적시는 것이었다.

(정말이고말고요)라고 바로 목구멍까지 말이 나오려다 철은 어쩐지 서투른 연극장면 같아서 얼굴은 화끈거리고, 머뭇머뭇 거리고 말았다.

여름 방학이 되어 철은 북조선의 고향에 돌아갔으나 루미는 매주 편지를 보내왔다. 철은 고향의 바닷가에서 노니며 그곳의 달밤을 시와 닮은 문장으로 루미에게 쓰서 보낸 일이 있다. 루미는 다른 모습의 철을 발견한 놀라움을 소녀다운 필치로, “철 씨는 시인이군요”라는 뜻의 긴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거의 2달 동안의 방학이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루미는 거의 이틀마다 빨리 도쿄로 돌아와 달라고 하며, 거의 같은 내용의 편지를 몇 통이나 보내왔기 때문에 드디어 철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인력(引力)에 질질 끌리는 듯, 전보로 도쿄에 도착하는 일시를 루미에게 알리고 황급히 짐을 챙겨서 고향을 떠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루미가 여학교를 졸업함과 또한 훌륭한 한 사람의 여인으로 성장하는 사이에 그들의 우정은 하나의 아름다운 연애로까지 발전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다른 의미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비굴함을 느끼고 있었다. 루미는 자신을 불완전한 여인으로서, 철은 또 철 나름대로의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루미와 자신 사이에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넘을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철은 즐겁고도 슬픈 추억을 영원히 가슴 속에 간직하고 도쿄를 떠난 것이다.

철은 10년 후 오늘, 그러한 불철저하고 냉담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밝은 행복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에 이르렀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더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는 해도 왜 더 일찍 10년 전 그때 그러한 명확한 신념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오모리(大森)의 독 아래를 걷고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실 이 뒷골목 길에서 흘러간 10년이라는 세월에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다만 당시에는 비가 오면 짐을 실은 마차의 바퀴가 빠져들어 간 길이 구질구질한 진흙길로 걷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말끔히 포장되고 집들은 회색으로 남아 보여도 청결함 속에 전통의 자취가 있었다.

역에서 독길을 따라 10분쯤 가서 해안길로 구부러지는 모퉁이에 고미야마 미망인의 집은 옛날 그대로 있었다. 생 울타리 위에 뺨은 동백나무들이 크게 무성해진 말고 변화한 것은 세월의 때가 묻은 것 정도였다.

루미는 여전히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그림에 일생을 바칠 각오로 아직 독신으로 지냈다. 이미 서른 가까운 중년이지만 약간 살이 찐 듯한 몸매로 젊어 보이는 얼굴에는 옛날의 그림자는 전혀 없이 검은 눈동자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후타미(二見) 시즈코—이 이름은 동도(東都)의 규수화단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이름이었으나, 그것이 고미야마 루미 그녀였던 것이다.)

철과 루미는 따뜻한 봄날과 같은 11월의 오후 햇빛을 받으면서 옛날처럼 산노(山王)의 숲을 거닐었다. 숲도 비탈길도 옛날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거닐고 있는 동안 자신들이 완전히 옛날 그대로 소년 소녀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움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부풀었다.

“루미 씨는 이 비탈길에서 나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지요!”

“네, 잊지 않았습니다. 철 씨는 웬일인지 초조한 듯 신발 끝으로 돌맹이를 툭툭 찼지요!”

“네, 나는 부끄럼쟁이였지요. 이젠 닳고 닳았지만.”

“뭐 별로 변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부인은 어떤 분인가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나 재작년에 이혼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결혼은 불행했던 것입니다”

“저런……자제분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참으로 이상한 인연이라고 나는 아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루미는 그렇게 말만 하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두 사람은 묵묵히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갔다. 도쿄에서의 5일간은 철에게는 멋진 것이었다. 한평생 잊을 수 없는 루미가 옛날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서 또다시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행운이 넘치는 운명인가. 그는 경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토로 내려가서 모모야마고료(桃山御陵) 참배를 비롯하여 주요한 명소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름다운 국토가 완전히 마음에 들어버렸다. 게다가 아름다운 루미가 이 푸른 하늘 아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자 눈물이 넘쳐흐르는 행복감에 혈관은 파도를 쳤다.

(아아!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나는 일본인이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국토, 아름다운 사람, 풍요로운 생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일본인이 되는 것이야!)

철은 가슴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다가 드디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황급히 시집을 들고 얼굴을 가렸으나, 최가 방긋이 웃으면서,

“뭘야 자네, 또 울고 있지 않은가”하며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그 근처의 시선이 전부 철에게로 집중되었다. 철은 이로 억지로 혀끝을 깨물며 겨우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막았다.

기차는 여전히 일본해를 떠나지 않았다. 하늘은 점점 흐려오며 흰 파도가 이는 넓은 바다는 한층 험악하고 거칠어졌다. 이 근처의 흙색은 약간 붉은 빛을 띠어 조선과 닮았다고 생각했으나, 정연하게 들쭉이 하나 없는 밭에는 시퍼런 보리가 자라서 이른 봄으로 착각했다. 농가들은 역시 산요선(山陽線)에서 보는 것 같은 눈이 번쩍 뜨이는 흰 벽이었으나 지붕각도는 더 예리했다. 그리고 집집마다 북쪽은 열자도 넘는 소나무 생 울타리로 푸르른 한 선을 긋고, 일본해로부터 풍설(風雪)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기차 안을 둘러보니 거의가 시골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으나, 누가 시킨 것처럼 조용했다. 아들이나 조카나 형제를 전선에 보냈을 사람들치고는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표정이며, 소박한 인간미를 느끼게 했다. 오히려 철의 여행단 사람들이 마치 전세 낸 차간처럼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때로는 주위를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의가 없는 것이 철에게는 이상한 현상이었다.

하시(波子)나 툃코이(特牛) 같은 재미있는 역 이름을 차창으로 흘러보내면서 하기(萩)에 도착했을 때에는 날도 저물고 비마져 오고 있었다. 이윽고 가와다나(川棚)라고 하는 쓸쓸한 시골 역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비바람이 한층 심해지고 내리는 손님도 얼마 없었다. 그래도 대형 버스가 꼭 찼다. 버스는 덜컹덜컹하며 드물게 전등이 켜져 있는 외길을 비를 뚫고 달렸다. 5, 6분이나 달렸을까 생각하는데 버스는 땡땡 경적을 울리며 온천마을에 미끄러져 들어갔다. 버스가 선 곳은 다마쓰바키(玉椿)라고 하는 숙소 앞으로 거기가 여행사가 지정한 곳이었다, 많은 시중드는 여자들이 가지런히 밝은 현관에 줄지어 서서 화사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목욕을 하고기분이 좋아져 상아로 만든 작은 배가 유리 선반에 올려져 있는 횡맹그렁한 큰 방에서 네모나게 앉아 식사를 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밤이라면서 한 사람 앞에 한 병씩 술을 퍼 마시며 모두들 너스레를 떨고 있었으나, 철만은 어디에서나 그랬듯이 여전히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 죄가 끈질기게 귀하는 것을 거절하는데 한참 고생했다.

철은 원래가 술을 안 마시는 성격이었으나, 성지참배가 끝날 때까지는, 맑아진 마음을 소중히 그대로 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는 혼자였다. 여기에서도 철은 먼저 자리를 떠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베란다 안락의자에 기대서 비바람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루미를 생각하고 있었다. 가능하면 루미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모든 것을 변화시켰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는 트렁크에서 편지와 만년필을 꺼내 루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옛날 애정 그대로라면,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나는 반도인이라는 숙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여행으로 완전히 일본인이 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신념을 굳혔습니다. 우리는 강제로가 아니라 극히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완성시키지 못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었습니다. 경성으로 답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피곤하기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밖은 한층 비바람이 세어지며, 가끔 유리창을 덜컹덜컹 흔들었다. 철은 무엇인가 가슴 설레는 행복 감에 젖어 다타미(畳)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출전 : 牧洋, 東への旅 『綠旗』 제7권 제5호, 1942년 5월〉

2) 어머니의 고백(1943)

50세 정도의 조선 어머니가, 아들들이 징병제라든가 일미전쟁(日米戰爭)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문득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말했다.

“나는 어려운 논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인이란 잔혹한 놈들이야. 내가 이 눈으로 보았지. 사과한 개를 찢었다고 해서, 어린 아이 얼굴에 ‘도둑놈’이라는 글자 낙인을 찍은 채 사과나무 기둥에 묶어 놓았더라. 게다가 그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교사였지. 보통 미국인은 아마 틀림없이 짐승과 같을 거야. 우리들도 당당한 일본국민이잖아. 내가 젊은 남자였다면 벌써 훨씬 전에 전쟁에 나갔을 거야. 징병제라는 것을 어찌서 더 일찍 실시 안했을까. 애들아, 우물쭈물하지 말고 모두 전쟁에 나가라, 뒷일은 엄마가 맡을게.”

〈출전 : 牧洋, 母の告白, 『朝光』 제9권 제9호, 1943년 9월〉

5. 정비석

1) 어머니의 말씀(1943)

철아! 네가 지원병에 갔을 때 엄마는 슬퍼서 낮에도 여름에도 울며 시들어 있었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막내인 너를 군대에 보낼 바에는 오히려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한 달쯤 지나서, 너를 만나러 갔다 와서 아버지는,

“어쩌면 훈련소도 인간이 사는 곳 같아. 철이는 조금 살찐 것 같았어.”라고 말했지만 어차피 아버지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 거라 생각하고 엄마는 진심으로 믿지 않았단다.

두 번째로 형이 만나고 와서

“철이란 놈은 통째로 인간이 변해 있었어. 동작이 확실하고 말하는 것이 확실했었지.”라고 했으나, 그런 거짓말에 속을까 보라며 엄마는 변함없이 울고만 있었지. 그래도 이렇게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변하여 훌륭해져 돌아온 너를 내 눈으로 보고, 엄마는 다 알 수 있었단다.

너는 군대에 갔다 오길 정말 잘 했다. 철아! 너는 역시 훌륭했어!

〈출전 : 鄭飛石, 母の語らひ, 『朝光』 제9권 제9호, 1943년 9월〉

6. 정인택

1) 아름다운 이야기(1944)

메구로가와⁸¹⁾ 곁의 밭 가운데 있는 외딴 집으로, 넓은 빈터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느낌이 드는 이층집이었다. 잘 안정을 못하는 내가 드물게도 반년 남짓 살았던 보통사람의 하숙집으로 “시모무라(下村) 집”이라고 하는 문패가 걸려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남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나의 딱 막힌 성격 때문에 반년이나 신세를 지면서, 나는 시모무라 집 사람들과 거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끝내 그 집을 나올 때까지 여인들만 있는 세대라는 것 이외에, 나는 시모무라 집안에 관해서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었다. 이미 꽤 오래전 일이다.

그러나 지난 달 일 때문에 상경한 나는 우연히 시모무라 집안의 내력을 듣게 되어 이상한 인연이라고 적지 않게 놀랐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이끌어 준 선배가 이사 가는 곳이 마침 시모무라 집의 이웃이어서, 뜰 나막신을 끌고서 뒤쪽으로 나온 내가,

“저런, 이웃집은 시모무라 씨네 집이네요.”하며 한 마디 하니,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던 선배는,

“그렇지.”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조금 뒤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자네 시모무라 씨네 집을 알고 있었나?”하며 비로소 이상한 듯한 얼굴을 했다.

옛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위에 문화주택 비슷한 날림 집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나는 깜박 거기가 메구로가와와 강 언저리라고 하는 것조차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꽤 낡았기는 해도 선배의 집 뒤뜰에 심은 나무가 바다라 보이는 2평반과 3평방의 2칸이 연이은 2층은, 내가 반년 동안이나 빌렸던 그리운 그 방이 틀림이 없었다. 그것은 언제였을까, 나는 손가락을 꼽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하숙을 했지요.”

그래그래, 꼭 10년째가 된다. 참 빠르구나 하며 혼자 감격에 젖어 있으려니

“그래, 자네 하숙집이었나?”하며 선배도 내 곁에 와서 사람이 없는 집처럼 조용한 시모무라 집 2층을 나란히 올려다보았다.

거기에서부터 이야기 실마리가 풀려서, 나는 10년이나 지나 시모무라 집안의 속사정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선배가 내게 들려 준 시모무라 집안의 이야기이다.

1

온 나라가 전첩의 기쁨에 들떠 있을 때에 시모무라 집만은 불이 꺼진 듯 쓸쓸한 편이었다. 10월 26일의 세 번째 뤼순(旅順) 총공격으로 장남 가쓰히코(克彦)를 나라에 바친 시모무라 집에 이번에는 차남 노부히코(信彦)의 전사통보가 알려졌던 것이다. 평토편(奉天) 함락 소식이 전해진 그 다음 날이었

81) 目黒川. 도쿄 시내를 흐르는 강-역주.

다. 남겨진 두 여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지키산⁸²⁾의 말단으로 우에노(上野) 전쟁⁸³⁾에서 남편을 잃고, 유신의 기쁨도 함께 하지 못하고 남겨진 아이 둘을 의지하여 살아 온 오시노(お篠) 할머니였다. 성인이 된 장남 가쓰히코가 기미(キミ)에게 장가 든 것은 작년 봄, 일러의 풍운이 다급함을 알려올 즈음으로서, 한숨을 돌리고, 정말 이제부터라고 할 무렵이었다.

사랑하는 아이 둘이 모두 나라를 위하여 꽃으로 진 것에 대해서는 여자 혼자 힘으로 키운 보람이 있었다고 하며 자랑하던 오시노 할머니였으나, 기떨 곳이 없어진 쓸쓸함과, 젊디젊은 기미에게 자신과 같은 고초를 맛보게 해야 하는 개운치 않은 기분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가쓰히코의 전사 통지가 도착한 날 밤,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기미는 몰래 자기 방에 돌아갔나 하고 생각하자, 푹 하고 길러진 검은 머리를 잘라 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23살의 젊은 과부와 얼굴을 마주한 오시노 할머니는 험난한 여자의 길 앞에 무심코 그만 울어버렸다.

노부히코는 형 가쓰히코와 거의 동시에 소집되었다. 역시 제3군에 편입되었는데, 뤼순에 상륙한 것은 1905년 정월로 뤼순 함락의 뒤였다. 이윽고 제3군의 대 우회작전이 시작되고, 적의 배후를 찌르기 위하여 노기(乃木)군은 곧장 북상했다. 노부히코가 장렬히 전사한 것은 이 대 우회전에서였다. 형은 뤼순 함락을 보지 못하고 쓰러지고, 아우는 평텐 입성을 눈앞에 두고 쓰러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오시노 할머니의 마음에 걸릴 뿐이었다.

2

곳곳한 오시노와 기미였으나, 노부히코의 전사통보에는 역시 기가 죽었다. 이미 각오를 했다고는 해도 경우가 경우인 만큼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다.

계속 한숨을 쉬어 가며 이마를 맞대고, 앞으로 살아갈 방도를 의논하고 있을 때, 얼핏 현관에서 찾는 소리가 났다. 여자 목소리였다.

기미가 나가서 보니 상복으로 몸을 감싼 젊은 여인이 현관 구석진 곳에서 풀이 죽은 듯 머리를 숙이고 있다. 한번도 못 본 얼굴이었다. 기미는 의아해 하는 눈빛으로 젊은 여인을 쳐다보았다.

“저기, 누구신지요?”

그저 서 있기만 하는 젊은 여인을 마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기미가 말을 걸자,

“저는……”

젊은 여인은 모기처럼 가는 목소리로 이름을 댔으나, 그대로 흐느적흐느적 비틀거리면서 시키다이⁸⁴⁾에 손을 짚었다.

젊은 여인의 어깨가 잔잔하게 떨렸는가 싶더니 이윽고 엷드린 얼굴에서 큰 눈물방울이 푹 떨어졌다.

조금 뒤 그 자세 그대로

“저는 지요(千代)입니다.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기 노부히코 님의……”

82) 直參, じきさん. 에도(江戸) 막부에 직속했던 녹봉 1만 石 이하의 무사-역주.

83) 1868년에 도쿄의 우에노에서 벌어진 彰義隊 등 옛 막부군과 메이지 정부군 간의 싸움-역주.

84) 式臺, しきだい. 일본식 주택 현관 입구의 한 단 낮은 마루.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는 곳. 역주.

“앗!”하며 기미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다음 순간 무엇 때문이랄 것도 없이 기미는 당황하며, 지요를 현관에 그대로 둔 채로 오시노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어머니, 지요 씨가……”

“엇! 누구라고?”

“지요 씨요. 도련님의……”

“앗!”

오시노는 기미보다 더 놀랐다. 이번에는 오시노가 현관 앞으로 달려 나가 엎드려 울고 있는 지요를 안아 올렸다.

지요, 지요, 들은 적이 있지. 차남 노부히코가 결혼을 약속했다고 한 가난한 하타모토⁸⁵⁾의 손녀딸 이름이 지요였다…….

무뚝뚝한 노부히코가 출정 전날 밤, 부끄러운 듯이 엄마 앞에 쭈그리고 앉아, 살아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기고 돌아온다면, 지요를 집에 받아 주십시오.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아가씨이지만, 어머니만큼은 소중히 돌봐 주시겠지요, 그렇게 말했다.

듣고서는 오시노는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형과 달리 말이 없고 무뚝뚝한 노부히코에게 언약한 여인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이야기였었다. 요절한 친구의 누이동생이고 나이는 스물, 온순한 반면에……하며 노부히코는 얼굴을 붉혔다. 살갓이 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면 우스꽝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오시노는 그때 일을 생각해 내고, 노부히코를 대신하여 지요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저를 받아 주십시오. 저는 어디까지나 영령의 아내로서 살아나가하고자 합니다. 시모무라 집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요는 각오한 듯이 말했다.

오시노와 기미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저 물끄러미 지요의 얼굴을 쳐다 볼 뿐이었다.

3

출정 전날 노부히코는 비로소 지요에게 속마음을 털어 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상대를 확실히 이성이라고 의식하고 만난 것은 그렇게 경황없던 아주 잠깐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부히코와 지요의 관계는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연애편계와는 다르다. 그러나 그 짧은 사이에 두 사람의 마음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굳게굳게 맺어져 버렸다. 노부히코는 지요의 남편, 지요는 노부히코의 아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두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맹세하며 서로 믿었다.

천황 폐하의 방패가 되어 산화한 용사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받아주실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노부히코 님이 출정하신 그날부터 오늘과 같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

85) 旗本. はたもと. 에도 시대에 쇼군 직속으로서 만 석 이하의 녹봉을 받던 무사. 역주.

습니다. 전장에 나가서는 두 번밖에 소식이 없었습니다만, 언제나 편지에는, 나는 천황 폐하를 위하여 죽는다, 당신은 미망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도를 지금부터라도 배워 두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변치 않은 저이지만, 아무쪼록 노부히코 님의 아내로서 받아 주십시오.……고집이 세고 한번 말을 꺼내면 뒤로 물러날 것 같지 않은 지요의 얼굴을 보면서 오시노와 기미는 몹시 당혹했다.

어엿한 정식 약혼자라 하더라도 지요의 이러한 청을 받아들이기는 망설여진다. 더구나 본인들끼리 단 한번 구두 약속했을 뿐인, 그저 그뿐인 사이가 아닌가. 지요가 노부히코의 아내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지요의 자유이고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권할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그런 마음만으로도 노부히코에 대한 의리는 세워졌으니……”

“당치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억지를……그렇다면 당신 부모님과 의논한 뒤에……”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도 허락을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지요를 곁에 두어 주십시오.”

4

“너무나 끈질기게 말하길래 할 수 없이 두고 보기로 했다지. 아무튼 젊은 처녀의 감상이니 어차피 오래 계속되지는 않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지. 그러나 지요 씨는 너무나 감탄스러운 아가씨였어. 지금 말로 하면 양재(洋裁)가 되겠지. 요코하마의 외국인 가게에서양재를 배워서 제대로 독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익혀온 거야. 아무튼 1907년 전후였으니 대유행이었지. 게다가 그녀는 대단한 효녀여서 그 덕분에 오시노 할머니는 편안히 지낼 수 있었어. 아마도 지나사변이 시작할 때까지 살아 있었을 거야. 자네가 하숙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살아 있었나?”

“그리고 보니 안쪽 별채에 그런 기품 있는 할머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러한 세 사람의 사는 방식이 엄청나게 비판해서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감탄스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조선에서도 징병제가 공포되었으니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참고 정도가 아니죠, 아니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지요 씨가 좋아져버렸습니다.”

“어이, 어이, 지요 씨는 벌써 60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하하하”

우리는 눈시울에 배어 나온 눈물을 감추기 위하여, 한동안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웃은 후에,

“잠깐, 저는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하며 내가 일어서자,

“나도 같이 가지.”하며 선배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을 밤 하늘은 활짝 개어서, 별이 하나하나 손으로 잡힐 듯했다.

〈출전 : 鄭人澤, 『美しい話』, 『清亮里界限』,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944년 12월 15일〉

2) 각서(覺書, 1944)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으로, 천둥까지 동반하여 이 세상의 끝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은 거친 날 씨였다고 한다. 내가 태어난 것은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새벽이었다고 나는 종종 엄마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날이 밝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쾌청하고, 소나기에 씻겨 내린 뜰 경치가 “눈이 뜨이는 듯 상쾌하여” 엄마는 그저 황홀하게 넘치는 행복감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렇다.

어느 해 초겨울 오후.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아아! 배고파. 뭇 좀 줘.”

거칠게 가방을 내던지고, 나는 엄마 등에 뛰어들어 어리광을 부렸다.

엄마는 엄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뿌리치고,

“또 책을 내던진다. 안 되요, 그렇게 버릇없게 굴면……”

노려보는 엄마를 나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알았어, 이제 안 할 테니까, 뭇 좀 줘.”

부드러운 엄마는 선선히 저버린다. 바로 낮빛을 풀며,

“이제 금방 끝나니까 암전하게 기다려라. 고구마를 삶아 줄 테니”

“응”

마루 끝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흔들 해보지만, 나는 심심하다.

봄벌처럼 따뜻한 햇볕.

나는 문득 엄마의 목덜미를 쳐다보았다. 엄마는 부지런히 빨래거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엄마였다. 맑고 하얀 목덜미, 흐트러진 귀밑머리, 탄력 있는 어깨죽지. 눈부신 듯 눈을 돌려, 나는 “후후”하고 입속으로 작게 웃었다.

“무엇이 우스워”

엄마는 되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후후”

“원, 웃긴 녀석 같으니라구.”

나는 웬일인지, 갑자기 쓸쓸함을 느꼈다. 나는 엄마 곁으로 달려가, 엄마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엄마, 아버지는 어째서 엄마를 싫어하는 거야”

영똥한 내 말에, 엄마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엄마 눈에 언뜻 슬픔의 그림자가 비쳤다. “뭘 소리니, 아이 주제에”

엄마는 평소와 달리 말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나는 불만이었다. “아버진 언제나 남의 집처럼 잠깐 왔다간 바로 가버리잖아”

“아버지는 바쁘시잖아”

“아냐, 나 알고 있단 말이야. 언제나 그 여자네……”

“또 그런다, 순(淳)이” 엄마는 갑자기 일어서서, 나를 나무랐다. “그 여자라고 하면 안돼요.……엄마라고 하거라.”

“싫어, 흥.”

엄마가 둘이라는 건 말도 안돼……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서,

“놀다올 거야”

고구마도 잊고, 그대로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그 무렵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것은 “그 여자” 집으로 심부름 가는 일이었다.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잠자코 아버지 방에 가려하면,

“손님이 계신다, 나중에 오거라”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다.

그래도 나는 상관하지 않고 뜰을 가로질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간다.

“아버지”

“……”

“아버지”

두 번 세 번 만에, 겨우 아버지는 얼굴을 내민다. 한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이나, 기분 나쁜 얼굴이 공연히 무섭다.

“엄마가 잠깐 오시래요……”

아버지는 찻 하고 혀를 차며,

“나중에 가마.”

뺨어 버리듯 그렇게만 말한다.

“그리고……미안하지만, 돈을 조금 달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작이다.

“나중에 가마.”

아버지는 손님에게 신경을 써서인지, 또 한번 천천히 그 말을 되풀이 하고 장지문을 닫았다.

더 말을 붙여 볼 수 없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나의 작은 가슴은 아팠다.

엄마가 사랑하던 아버지였으니 결코 악인은 아닐 것이다 하고 나는 지금도 무조건 믿고 있다.

아버지는 광산열에 들떠서, 집과 땅, 논밭을 남의 손에 넘기고는 결국 내가 보통학교를 졸업할 때 엄마와 나를 버리고 만주로 달아났다. 그 이후 아버지의 행방은 모른다.

아버지가 모습을 감췄을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걷고 있는 아이의 모습만큼, 나를 부럽게 한 것은 없었다.

엄마가 매정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밉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 보아도 아버지는 엄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으므로, 애정을 느끼지 않을 뿐이다.

이때부터 엄마의 고투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어디까지고 철길은 끝없이 뻗어 있었다.

나와 정희는 어른처럼 잠자코 바싹 달라붙어 그 위를 걷고 있었다.

봄이라고는 해도 아직 추웠으나, 우리들은 상관없이 잠자코 계속 걸었다.

“언제 출발해?”

이윽고 정희가 혼잣말하듯 말했다.

“내일”

나도 짧게 대답했다.

둘은 또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철로 위를 달려가는 거지”

“응”

이쪽에서 멀리 건너다보면, 저 먼 곳에서 두 가닥 철길은 하나로 합쳐지지만 가까이 가보면 여전히 결코 서로 닿지 않는 평행선이다. 그것은 우리 운명의 상징이기라도 한 걸까.

걷다 피곤해져서 철길 옆의 바위 위에 앉았을 때, 정희는 결심한 것처럼 말했다.

“나도 경성의 여학교에 보내달라고 할거야”

“정말이야?”

나는 눈을 반짝였다.

“졸라 보겠는데……아무래도 안 된다면……이곳의 여학교를 나와서, 경성에 갈 거야.”

“무어라고”

“내가 경성에 갈 수 없게 되면……편지 부탁해, 매일”

“응”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여러 가지 가르쳐 줘.”

“응”

“싫어. 응, 응 소리만 하고”

“그래도……우리, 이제 두 번 다시 못 만날지 모르잖아”

“왜?”

“그런 기분이 들어.”

이윽고 정희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더니,

“있잖아”

하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뭘”

나는 일부러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훌륭해져야 해.”

정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응,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해질 거야. 훌륭해지면……”

“훌륭해지면?……”

“훌륭해지면 꼭……”

나는 쑥스러워 하며, 말을 끝내지 못하고, 철길 위를 마구 달려 돌아왔다.

그 다음날, 나는 질주하는 기차 창에서, 전날 정희와 앉아 있던 바위 위에 아무 생각없이 굴껍질을 내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일에 지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언제까지나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나의 기억은 한 발짝 건너 뛰어 중학시절로 달린다.

행복했던 5, 6세의 때의 기억이 몽롱하듯이 나의 첫 고생도 꿈속이었던 것처럼 거의 기억에 없는 것이다.

지금 이곳에 우리 모자가 거처를 정한 것은 내가 중학 3년 때였다.

마는 경성으로 나온 이후 쪽 xx재봉틀의 외판을 해왔다. 그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나는 걱정하지 않고 여유롭게 학교를 다녔던 것이다.

재봉틀을 팔러 다니는 한편, 사용법을 가르쳐 주면서 돌아다니거나 재봉일을 부탁 받거나 하기 때문에, 엄마의 귀가는 언제나 늦었고, 저녁식사 준비는 대체로 나의 담당이었다.

아이마음에도 엄마가 고생하는 걸 느꼈기 때문인지, 나는 비교적 순진하고 선량했던 것 같다. 학교 성적도 어쨌든 최상이어서

“순이는 정말 기특하네.”

집주인 아주머니가 칭찬해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천성이 낙천적이어서, 웬만해서는 풀이 죽지 않는다. 처음에는 하루 한번의 저녁 준비가 고생스러웠으며, 특히 추울 때는 울고 싶을 정도였으나, 익숙해지니 말하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꽤나 솜씨 있게 해냈다.

식사준비를 할 때 휘파람을 부는 것이 내 버릇이었는데,

“순이 휘파람소리가 들렸으니 이제 두부장수가 오겠구나.”

자주 아주머니로부터 놀림을 받았다.

마의 밥상을 준비하고, 혼자서 우물우물 먹는 저녁밥이었으나 나는 즐거웠다. 먼저 먹지 않고 기다리거나 하면 오히려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마와 둘뿐인 생활에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으며, 행복했다. 누구라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엄마는 끝없이 나를 사랑해주었고, 나는 우아하고 정숙하며 선량한 우리 엄마야말로 세계 제일의 엄마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컸던 덕분에, 나는 아버지가 없는 쓸쓸함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요즘은 이미 아버지는 거의 잊고 있다.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아침뿐으로, 앞에서도 썼지만 저녁은 대체로 나 혼자였다.

그래서 어쩌다 엄마와 마주보고 저녁을 먹을 때는 한없이 즐거웠으며, 엄마와 나는 평소와 달리 신이 나서 떠들었다. 우리는 그날 일어난 일을 사소한 것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서로 보고하며, 이야기하다 지칠 때까지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중학교 5학년에 진급한 해의 봄으로 평소와 달리 엄마가 빨리 돌아 온 날이었을 것이다. 그날따라 엄마는 이상하게 입이 무겁고, 거기에다가 축 늘어져서 피곤한 것 같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내가 걱정스러운 듯 물으니,

“아니야. 왜?”

엄마는 억지로 웃어 보였으나, 뭔가 어색했다.

“기운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지. 엄마 같은 여장부가 풀이 죽어 보이니 이상하잖아.”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그럼 빨리 쉬어.”

“그래. 조금 드러누울까.”

나는 일찌감치 엄마에게 자리를 펴드리고, 책상 앞에 앉았으나, 어쩐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공부에 열중하지 못했다.

나는 책상 위에 턱을 받치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나는 겨우 철이 든 것이다. 여자 혼자 힘으로 나를 키우고, 나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거친 물결과 싸움을 계속해 온 엄마의 고생을, 나는 겨우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고통스러운 듯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잠을 자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나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을 때. 엄마는 아직 젊었다. 그때부터 10년, 엄마는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 온 것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기만 한 엄마는 힘껏 용기를 떨쳐 내며, 혼자 걷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낸 것이다. 엄마는 이미 40이다.

엄마의 성격 속에, 이런 강인한 의지가 감추어져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부드러운 엄마는 강한 엄마였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 여자는 그렇게도 멋지게 변모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그저 망연히 엄마가 자는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괴로운 듯이 뒤척이는 엄마의 얼굴에 기름땀이 흥건히 배어 올랐다 나는 엄마 곁으로 가만히 다가 가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엄마는 이제 생활 전선에서 지쳐버린 것일까. 그러다가 나는 언제까지고 엄마 혼자 일을 하게 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빌며, 엄마 이마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열이 있는 것 같았다.

“순일아!”

누운 채로 별안간 엄마가 불렀다. 엄마는 자고 있지 않았다.

역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내가 재빨리 그것을 눈치 채며, 진지하게 대답을 하자 눈시울에 고인 눈물이 넘쳐 나올 것 같았으므로,

“뭘야! 엄마. 너구리처럼.”

웃으면서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댔다.

“아니야 잠깐 깜박 졸았다.

“그래, 그래도 열이 있는데. 엄마.”

“괜찮으니까 자거라. 이정도 열은 내일이 되면 감쪽같이 나올 거야. 엄마는 불사신이거든.”

엄마는 새삼스럽게 나를 불러서, 나에게 무엇인가를—오늘 있었던 무엇인가를—이야기하고자 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엄마는 끝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억지로 괜찮은 듯이, 나와 한동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후에, 그대로 다음날 아침까지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이때 엄마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는지 나는 끝내 듣지 못했으나, 그로부터 2, 3일이 지나서, 엄마는 10년 동안이나 근무한 재봉틀 회사를 잠자코 그만두었다. 나는 엄마의 재혼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짐작했다.

한 달쯤 쉬고 난 뒤, 엄마는 얼마 안 되는 저금으로 재봉틀 2대를 사서, “재봉 합니다”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건 싫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게 속 편하지.”
엄마는 생기가 넘치듯 그렇게 말했다.

나는 단 한번 엄마와 다툰 적이 있다.

엄마는 나에게 예과 시험을 보라고 하고, 나는 중학교만으로 충분하니까 일하겠다, 하며 다툰 것이다.

나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않았으나, 정해진 수입이 있을 때보다도 가게는 상당히 고생스러웠으며, 가끔 저금을 찾을 때면 엄마는 우울했던 것 같다. 엄마와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즐거웠지만, 세상은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중학교만 나오면 어엿한 어른입니다. 나는 취직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고집을 부렸다.

“너를 중학교에서 그만두게 할 거였다면 엄마 이런 고생 안했을 거야. 너를 대학까지 보내주고 싶어서……”

엄마는 울먹이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호소했다. 엄마는 아직도 일할 수 있다, 잠자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는 것이 엄마에게 진짜로 효도하는 것이다, 어설프게 지금부터 일하게 되면, 오히려 엄마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엄마는 대단한 웅변으로 나를 설득했다.

한풀 꺾인 나는 그러면 전문학교라도 좋다고 양보했으나, 그래도 엄마는 수긍하지 않았다. 절대로 예과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만큼, 엄마의 사랑을 빠져리게 느끼며, 행복한 적은 없었다.

엄마와 나는 긴 시간동안 다툰 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껴안고, 언제까지고 말없이 울었다.

어리광을 부려서 엄마가 기뻐한다면,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 나의 자식 된 도리인지 모른다……그러면 엄마, 정말 나를 대학까지 보내 주는 거야?……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대학을 나올 때쯤이면 엄마는 말라서 쓰러지지 않을까?”

울면서 웃음을 보이니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를 옆으로 흔들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처음으로 예과의 제복을 입고 집을 나올 때, 엄마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보고,

“아버지에게……한번……보여주고 싶구나.”

가냘프게 속삭이듯,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학부로 진학할 때, 나는 엄마의 희망에 따라 법과로 옮겼다.

엄마가 살아 있는 한 이제부터라도 나는 평생 엄마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과 시절부터,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로 가네야마, 기무라, 하야시, 구니모토, 오키 등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오키와는 마음이 맞아 늘 왕래했다. 오키와 나의 우정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웠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격이나 몸집이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달랐지만 속되게 말하면 죽이 맞았다. “너희들은 신혼부부 같다”—그렇게 놀림을 받을 정도로, 우리들은 언제나 함께 걸었다. 집이 가까운 탓도 있었다. 가정환경이 엇비슷한 탓도 있었다.

오키의 아버지는 퇴역 군인으로, 어떤 통제회사의 중역이었다. 아버지, 오키, 오키의 누이동생인 도키코 씨. 가족은 이렇게 세 사람 뿐으로 식모도 두지 않고, 가사 일체를 여학교를 갓 나온 도키코 씨가 처리하고 있었다.

오키의 아버지는 한학(漢學)에 조예가 깊고, 가끔 우리들 앞에서 한시 강의를 시작하는 것은 질색이었지만, 동양정신철대론에는 경청할 만한 것이 있었다. 퇴역군인이라고 해도, 나에게서는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아저씨인데 엄격한 반면에 호탕한 점이 있고 자주 엉뚱한 말을 해서 우리들을 얼떨떨하게 했다.

예과 2학년 때 여름에는 거의 매일 오키의 집에 머물면서, 아저씨와 오키, 세 사람이 장기를 두거나—둔다고 하는 건 건방진 소리고, 나는 아저씨에게 처음으로 내지의 장기를 한 수 배우며, 차포를 두 개나 떼고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논쟁을 하거나 때로는 술을 마시거나했다.

나는 물론 아저씨와 오키를 좋아했으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나는 도키코 씨에게도 꽤 반했다. 여기에 쓰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도키코 씨도 나를 싫어했던 것 같지는 않다.

도키코 씨에게는 어딘지 정희 씨의 모습이 깃든 것 같았다. 이것은 먼 훗날이 되어 알아차린 것이며, 어릴 적에 헤어졌을 뿐인 정희 씨에게 내가 별다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을 까닭은 없으나, 역시 하나의 잠재의식이 되어,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도키코 씨가 정희 씨를 닮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도키코 씨의 정숙하고 그러면서도 씩씩한 성격에 솔직히 내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다.

오키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나라면 도키코를 쥐도 되는데……”라며 나를 놀렸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거절할거야, 그런 못난이는……”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되받아친다.
 “일러줄 거야, 도키코에게”
 “어이 그만 뒤. 옷자고 하는 소리잖아.”
 협박을 받으면 나는 바로 항복 했다.
 도키코 씨는 그러나 결코 미인은 아니었다.
 얼떨결에 도키코 씨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엄마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이겠지만 그 아가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키코 씨를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할 일이 있다.
 엄마는 첫눈에 완전히 마음에 들은 모양이었다.

집은 가난했으나 내 마음은 밝았다.
 단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세월 나 때문에 고생길을 걸어 온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다. 내 바람은 그것뿐이었다.
 그 이외의 문제는 모두 하찮은 문제일 뿐이었다.
 “훌륭하게 된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엄마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재학 중에 고문(高文)⁸⁶⁾에 합격하고 싶다며 죽자 살기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오키는 영문이었으므로, 이전처럼 자주는 만날 수 없었다. 도키코 씨와도 물론 멀어졌다.
 훌륭하게 된다……. 훌륭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속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 말을,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비판할 기분이 들지 않았으며, 비판하려고 하지 않았다. 알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나는 애써 멀리해 왔던 것이다.

훌륭하게 된다—고위고관이 되는 것인가 하고 내가 비로소 나 자신에게 되물어 본 것은 1941년 12월 8일, 대조(大詔)⁸⁷⁾를 받든 순간이었다. 나는 이때만큼 내 자신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용기를 잃은 적은 없다.

부끄러운 일이나, 그 기분은 그래도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서전(緒戰)의 빛나는 전과에, 나는 경솔하게도 고삐를 늦추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에 대한 애정이다.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재봉틀에 매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안절부절 하며 초조함을 느꼈다.

고생해서인지 흰머리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등이 굽은 엄마 모습을 보면, 나는 “빨리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고 무슨 무조건으로, 엉덩이를 맞는 것처럼 초조해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한 작은 효심 때문에 나는 국민적인 감정을 잊어버렸다. 아니 모른 척 하고 넘어가자고 나는

86) 고등문관시험의 준말. 역주.

87) 천황이 국민에게 내리는 말. 역주.

교활한 자세를 취했는지 모른다. 이때의 나는 구제불능의 대 악인이었다.

엄마는 엄마대로, 모든 희망을 나의 졸업에 걸고,

—이제 앞으로 2년만 참으면 된다.

입에 올려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층 생기를 느끼는 듯, 이것이 고생의 마감이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재봉일에 열을 올리고, 나의 공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힘을 썼다.

이러한 엄마 덕분에 내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엄마를 나쁘게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죄를 엄마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적어 두려고 할 뿐이다.

만약에 내가 적령이거나, 적령 전이었다면, 반도에 영예스러운 징병제가 공포되었을 때, 나는 틀림없이 전쟁을 나와 관계 깊은 것이라고 느끼며 이러한 미망에서 재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년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징병제도 내 앞을 그냥 지나갔다. 나에게 남겨진 것은 역시 “훌륭하게 되는” 길뿐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곧 내가 깨닫는 때가 왔다. 재학징집연기의 정지에 따라 모리타와 오키의 출진을 전송했을 때이다.

의 짧은 생애에서 이때만큼 큰 충격을 받은 적은 없다. 나는 망연자실하여 오랫동안 눈앞에서 단정하게 앉아 있는 오키의 하얗고 총명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오키의 화려함에 비하여, 이 몸의 초라함은 어떤가. 남자로 태어나서, 조국의 희망이 기로에 서 있는 이때, 무기를 들고 일어서는 것을 허락 받지 못하는 참혹함을, 나는 비로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뒤는 부탁한다.”

오키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 나도 데려가 줘. 뒤 같은 것 부탁 받고 싶지 않아.

마음속에서 계속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엄마마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분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을까. 보름 정도 지나, 반도학도에게도 영광스런 군인의 길이 열리고, 내가 “뒤를 부탁”해야 하는 몸이 되었을 때, 나는 비겁하게도 동요하고, 눈치를 보는 나 자신의 기분을 느끼며 몹시 놀랐다.

데려가 줘 라고 외치지 않아도 된다. 지원하기만 하면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오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전(聖戰)의 제1선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있던 천황폐하의 심복이 되고, 국가의 간성(干城)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무엇 때문에 나는 망설이는 것인가.

— 니시하라 준이치(西原淳一), 일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심한 질타의 소리를 쏟아 붓고, 눈을 부릅떴지만, 그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난 것은 엄마의 울며 찌푸린 얼굴이었다. 그 누가 거기에 나타났더라도 나는 결연하게 뿌리칠 수 있는 자

신이 있었으나, 아아! 나에게서는 엄마 얼굴만큼은 부정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엄마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니까 한 동안 여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엄마에게 둘러대고, 훌쩍 목적 없는 여행에 나섰다.

길은 두 가지, 지원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다. 그리고 지원해야만 하는 나이다.

그러나 내가 지원하는 것을 엄마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해 한 평생을 바친 엄마를 내가 거역할 수 있을까.

거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는 있어도, 마음 약한 나는 비탄에 빠진 엄마의 환영에 지고 마는 것이었다. 진퇴양난이구나—아아! 이것은 시계모리⁸⁸⁾이래, 끊이지 않는 탄식일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한탄을 되풀이 하면서, 나는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었다.

엄마를 설득할 것인가, 오욕을 감수하고 지원을 단념할 것인가. 누구와 의논할 필요도 없다. 내 결의 하나뿐이었다. 그 결의를 굳히기까지의 내 고뇌를, 나는 낱알이 여기에 써서 기록할 생각은 없다. 내가 경성에 돌아온 것은, 지원마감의 전날이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짐작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

역에 내려선 나는, 엄마 곁에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오키의 아버지를 찾았다. 나온 것은 도키코 씨였다.

어머나!”

도키코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바로 우는 얼굴이 되어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뭘. 니시하라 군이라고!”

오키 아버지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나의 실종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게 했나 생각하자 나는 죄송함에 울어 버렸다. 나는 안내도 기다리지 않고, 내 멋대로 잘 알고 있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나는 오키의 아버지에게 뜻밖에도 엄마의 용감한 각오를 들었다.

오키의 아버지가 엄마를 방문하여,

“순일 군을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일언지하에,

“지원시키지요”

그렇게 잘라 말하며 미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일이를, 나 한 사람을 위해 교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저는 어떠한 고생도 참아온 것입니다. 나만의 순일리로 만들려고 했다면, 무엇 때문에 고생하며 대학 같은 데에 보냈겠습니까. 일찌감치 순일이에게 일을 시키며, 나는 편안하게 지냈을 것입니다……엄마는 그렇게 잘라 말했다고 한다.

당신뿐만 아니라 순일이까지 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순일이는 틀림없이 나 때문에 망설이고 있겠지요. 순일이가 마감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제가 대신 수속을 했을 것입니다……엄마는 그렇

88) 重盛 : 전국시대 헤이케(平家)의 우두머리.

게 결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엄마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처럼 이상하게 곤혹스러울 뿐이었다.

“다행이야. 순일 씨, 늦지 않아서”

“고마워.”

나는 도키코 씨와 처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밤길을 걸었다.

“도키코 씨, 어머니를……부탁해요.”

도키코 씨는 하얀 옆얼굴을 보이면서, 잠자코 끄덕였다.

지원수속을 마치고 돌아온 밤, 나는 거의 밤을 새도록 엄마와 이야기하며 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엄마, 나는 끝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네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엄마는 당치도 않다고 말하려는 듯 손을 흔들다가 젖먹이처럼 나를 품에 안으면서,

“뭘 소리니. 너는 나라의 간성이야. 이제 너는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서 신이 될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냐.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었다.”

엄마는 말을 끊고 세차게 내 뺨을 대고 비볐다. 아아! 우리 엄마는 역시 “세계 제일의 엄마”였다.

내일 나는 ××부대에 입대한다. 1944년 1월 20일이다. 오랫동안 「각서」란 것을 써왔는데, 이것을 써서 남기는 의도는 그저 엄마의 고투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것 말고 다른 사심은 털끝만큼도 없다.

어제까지로 내 신변정리는 깨끗하게 끝났다. 딱 3일이 걸렸다.

금 『각서』도 다 썼다. 이것으로 내 기분을 정리하는 일도 끝난 셈이다. 내 총후(銃後)에—나는 더 없이 자랑스럽게 『총후』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다—남는 것은 우리 엄마와 이 『각서』, 그리고 사진첩뿐이다. 사진첩에 대한 설명도 아까 써두었다.

나는 마음 놓고 복무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출진하면 나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이 『각서』를 다 쓰기 바로 조금 전까지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작정이었다. 그때문 신변도 정리하고 『각서』도 쓴 것이다.

하지만 다 쓰고 난 후, 나는 내 마음속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한 가지를 변화를 발견하고 놀랐다.

나는 죽을 것이다. 틀림없이 죽을 거야……조금 전까지도 나는 어깨를 치켜들며 거들먹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샌가 그런 거드름은 사라지고 없었다.

생은 물론 없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도 없었다. 생과 사를 모두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일념뿐이었다.

아무 것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이처럼 기분이 맑은 것일까 하며 나는 지금 나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 전선에까지 이런 기분을 가져가고 싶다.

와 엄마의 이야기가 호들갑스럽게 신문에 보도된 탓에 모르는 분들로부터 수많은 격려편지와 노잣돈을 받았다. 따로 봉투에 담은 것이 오래된 신문기사와 편지묶음이다. 나는 이것을 고스란히 도키코 씨에게 맡길 것이다. 모든 것은 도키코 씨의 의지대로이다.

죽을 각오가 되기까지는 힘들었다.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지만,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걸려서, 자칫하면 긴장했던 정신이 좌절될 것 같다.

미련이다, 라고 심하게 야단을 쳐 보지만 한번 그 함정에 빠져들어 가면, 쉽사리 기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도 굳게 한 방에 쳐 박혀서, 禪 중처림의 수행와도 같은 심사숙고를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아무튼 장도에 오르는 각오와 비슷한 것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맑은 조용한 심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震幅은 희미하나마, 끊임없이 마음은 동요를 계속하고, 몸을 흥모처럼 가볍게 두는, 부동의 신념을 견지하는 것은 곤란했다. 내가 신변의 정리를 결심한 것은 이때였던 것이다.

깨끗이 미련 없이, 자신의 주위를 정리함으로써, 흔들리고 있던 결심을 굳히고 싶은 마음에서 였던 것이다.

세심한 성격으로, 소학교시대의 습자나 도화의 종류까지, 극명하게 한 장 씩 설명을 붙여서 몰래 간직하고 있던 나인 것이다.

그것을 또 한번 질서 바르게 정리하고, 자신이 거쳐 온 이정표를 일목요연하게 하고자 하려고, 나는 다락 구석으로부터, 먼지를 뒤집어 쓴 고오리(行李)짜를 끌어 내 온 것이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있었다.

교과서나 공책이나 성적표 등, 소학교, 중학교, 예과, 하며, 내가 걸어 온 면학의 자취가, 통째로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그것들을 적당하게 取捨하고, 정리하는데 온 이틀이 걸렸다.

교과서 등도, 무엇인가 감상 같은 것을 써넣은 것은 빠짐없이 보존하기로 하고, 습자나 도화 등도 정성껏 주름을 펴고 연대순으로 엮어 갔다.

성적표도 한 묶음으로 해서, 표지를 붙이고, 공책도 중학교 때의 것을, 학년 순으로 세심하게 쌓아 올렸다.

그것이 한 차례 끝나서, 이번에는 편지정리에 착수했다.

1년분 씩 묶어서 신문지에 싸서, 밀어 넣었던 것을 끄집어내고, 일일이 내용까지 검토한 뒤에 取捨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어떠한 교우를 가지며, 그들 친구들은 어떤 교섭이 있었으며, 그 친구들의 눈에 자신은 어떤 식으로 보여 왔는가를 남기기 위하여, 결혼식의 초대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버리지 않고 보관하기

로 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편지다발을 정리하는 것은 꽤나 즐거운 것이었다. 그 속에는 답장을 내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있었으며,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리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특히 소학생 때에 썼던 서투른 문장의 엽서 같은 것은, 불에 활각 피가 오를 정도로 나를 기쁘게 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친구, 또는 멀리 떨어져서 행방도 모르는 사람들의 필적은 몰래 그리움을 일으켰다.

그것이 끝나고, 일기와 앨범을 정리했다. 남에게 보여서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곳도, 나는 굳이 지우지 않았다. 언젠가 그것이 열릴 때는 자신이 꽃답게 전사한 후가 될 것이다. 무엇 하나 숨길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갓 태어날 때부터 사각모를 쓴 사진까지를 순서를 매겨서 사진첩에 발라서, 상세한 설명을 써서 넣어서, 자신의 성장의 자국을 확실히 알도록 했다.

버릴 것은, 한번 더 일일이 점검한 뒤에, 자신이 온돌 아궁이에 던져 넣고, 불을 붙였다.

전부하는데 만 1주일이 걸렸다. 입영까지는 아직 열흘 남짓 있었다.

신변의 하나하나가 정리되어갈 때마다, 나는 마음이 점점 맑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일단 그것에 알기 쉽게 표시한 뒤에도, 아직도 무엇인가를 남겨 둔 것 같아서, 나는 묘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인사돌기라거나 壯行會라거나 다른 친구들은, 매일 기운차게 뛰어다니는 모양이나, 그들 친구들은 과연 어떤 각오로써 입대하는 것일까. 이 처럼 사나이답지 않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자신만일까, 하며 나는 고민했다.

저는 갑종으로 합격한 순간으로부터, 나는 꼭 전사할거야, 라고 마음으로 정하고 있었다. 반도학병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훌륭한 작용을 하고, 鄉黨을 奮起시키는 것 같은 꽃다운 전사를 해주자, 고 마음에 결정하고 있었다.

이 엄숙한 시대에 태어나서, 조국의 흥망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혼쾌하게 대군의 말 앞에 죽는 것이야 말로 남아의 본분이 아니고 무엇인 것인가. 이미 한 걸음 앞서서 내지출신의 학도들은 펜을 총으로 바꿔지고, 군문에 달려갔다. 그 영예가 곧 반도출신의 자신들에게 주어져서, 이제야 입영일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백발의 교수, 사회의 여러 선배, 뒤에 남는 학우들로부터 수많은 질타, 격려를 받아서 몸속에 끓는 열혈을 沸騰시켜서, 감연히 떨쳐 일어나는 자신인데도. 죽음을 생각할 때, 우물쭈물 석연치 않는 마음이 나부터도 이상했다.

한 방에 틀어박힌 채,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슬금슬금하고 있는 자신을, 엄마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굳이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으나, 이상한 자신의 태도를, 얼마나 엄마는 신경을 쓰고 잇을 것인가.

그렇다, 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자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었던 것은 엄마였던 것이었

다. 늙어서 앞이 긴지 않는 어머니였던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주위를 깨끗이 말끔히 치워 보아도, 부동의 결의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엄마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엄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겨우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무식하기는 하지만, 용감한 엄마였다. 외아들인 내가, 군대에 가게 된다고 들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태연히 하고 있는 반도의 어머니로서는 드물 정도의 사물을 아는 어머니였다.

허나 엄마 하나 아들 하나, 예를 들면 엄마의 기분은 어떻게 되었든, 내가 볼 때, 뒤에 남는 엄마가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럽고, 애처롭고, 엄마에의 집착을 좀처럼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내 출세를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아온, 살아갈 작정이었던 엄마였었다. 엄마의 일생은 나를 위해서이며, 나 때문에 바쳐온 것이었다. 엄마는 그러한 나에게의 애정을, 나보다도 깨끗이 버리고 떠나며, 웃는 얼굴로 나를 보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엄마의 커다란 애정에, 나는 당연히 죽음으로써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자신의 사후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용기 없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다.

전별금이 3백 엔 정도 나의 손아귀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엄마에게 주려고 생각했다.

“나는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엄마 앞에 그 돈을 내밀었다. 엄마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나는 엄마의 기분을 시험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그것을 입에 담은 것이었다.

엄마는 한참동안 잠자코 있었으나, 천천히 일어서서 장롱의 안쪽으로부터 한 장의 커다란 봉투를 끄집어내 왔다.

“너이기 때문에 싫다고 해도 듣지 않겠지. 돈은 엄마가 보관하겠다. 필요할 때가 오면 언제든지 말해 달라. 그리고 너는 무척 엄마 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으나, 엄마는……”

엄마는 한 동안 말을 끊고, 그 봉투 안에서 조용히 사진을 끄집어냈다.

“……훌륭하게 각오가 되어 있다. 이치럼……”

그러한 뒤에 살며시 웃으며, 그 사진을 높이 치켜들고 보이는 것이었다.

저는 입영하기까지의 3일 간을, 이 “각서”를 써내기 위하여 시간을 보냈다.

엄마의 일생은 고투의 일생이었다. 고생하며 살아 온 엄마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용감한 각오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의 일생은 존귀한 일생이기도 하다. 이제 그 엄마의 찬연한 모습을 확실하게 문장으로 써서 남겨 두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다.

첫 장에 엄마의 사진을 발라놓고, 나는 그것을 조용히 책상 위에 장식했다.

심한 피곤을 느꼈으나, 기분이 좋은 피곤함이었다.

—이것저것도 모두 이렇게 함으로써 끝났다.

그러한 기분이었다. 눈앞이 활짝 개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 것도 미련은 없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큰 盤石처럼 침착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이 묘하게 부자연스럽게 자신의 귀에 울리는 것이었다.

어제까지, 나는 죽는다, 꽃답게 전사해보이겠다, 하고 어깨와 양 죽지를 펴면서, 큰 소리 치고 있었

던 자신이, 우습게 보여 왔던 것이다.

죽을 각오를 굳히고자, 날뛰고 있던 자신이 우스꽝스러워서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죽음을 넘어서, 생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극히 평온한 마음으로, 국은에 보답할 때는 지금이야 라고, 나는 靈感처럼 싹튼 그 결의를, 순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나는 벌써 숲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생도 사도, 이제는 나의 안중에는 없었다.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 황군의 一員이 되자.

입영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인 것이다.

〈출전 : 鄭人澤 覺書, 『國民文學』 제4권 제7호, 1944년 7월〉

3) 갑종합격(甲種合格, 1944)

『문화조선』 제6권 제4호, 1944.12.1. 동아교통공사 조선지사,

특집·적국항복

갑종 합격

鄭人澤

겨우 동쪽 하늘이 뿌옇게 되기 시작한 즈음이다.

자금만하고, 겸손한 모양의 마을 모습이, 묵화처럼 아름답다. 세 방향을 산에 둘러싸인 30집이 채 안 되는 부락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극히 평화스러우며 순박하게 보인다.

산 중턱까지 다 갈려서 산기슭으로부터는 깨끗이 沃野가 펼쳐져 보이는 한은 논인 것이다.

골짜기 바닥을 꾸불꾸불 흐르는 청결한 시내는, 송사리들이 헤엄치고 있다.

金村 노인은 큰 기침을 하고나서, 황급히 뜰 끝에 내려서며,

“어디어디 지금 열어주마, 성급한 놈들”하며 담장 앞에서 혼자 말이다.

담들은 자그만하게 열린 나오는 구멍으로부터,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날개를 치며 소리 높이 운다.
꼬꼬.

×

시내를 따라서 작은 길을, 金村 노인은 뒷짐을 지고, 오른 손에 쥔 긴 담뱃대를 흔들며, 성급하게 내려갔다.

한 집의 농가 울타리 밖에 와서 선 金村 노인은, 또 한번 “으흠”하고 기침을 했다.

방 안에서 당황하는 인기척이다. 이윽고 중년의 사나이가 잠이 모자라는 얼굴로 내다보며,

“아차”

머리를 긁적이며, 넘적 머리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金村 노인은 불쾌한 얼굴로

“늦다, 늦어. 이렇게 바쁜 가운데 언제까지 늦잠을 자고 있으면”

깨진 종소리 같은 목소리였다.

“아무튼 송구합니다.”

중년 남자는 함부로 머리를 숙이면서, 얼핏 등 뒤의 기동시계를 되돌아보고,

“그래도 구장 님, 오늘 아침은 너무 빠른 것 같은데……아직 4시를 좀 지났을 뿐입니다”

“바보 같은 놈이. 농사꾼이 시계 같은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야”

해 박아주면서, 金村 노인은 한층 큰 소리쳤다.

“네”

“빨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벨듯이 말을 남기고, 金村 노인은 터득거리며 김을 옮겨 옆집 문 앞에 섰다.

“그런데, 노인의 기분이 나쁜데 무엇이 있었나?”

중년의 사나이는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 했다.

×

하얀 신작로와 아름다운 포플러 가로수와.

상쾌한 첫여름의 아침이었다.

읍내를 다니는 버스가 모래 먼지를 날리며 질주 해 왔다.

서로 지나치면서 인사하는 운전사에게, 金村 노인은 침착하게 끄덕였다.

가면서 만난 농사꾼들이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는데,

“지금부터는 서두르지 않으면”

“네”

“중산, 중산이야. 이 게으름뱅이들이”

“네”

노인의 뒷모습이 보리밭 너머에 보이지 않게 되자, 목을 움츠리고 있던 농사꾼들은,

“벼락 노인, 바보스럽게 당황하고 있네.”

하며 이상한 얼굴을 했다.

×

金村家 사람들은 한 집이 충동원이 되어 보리 베기를 한 창하고 있었다. 해는 이미 높이 떴고, 모두 땀 투성이였다.

“어디어디 나도 도울 테다.”

껴들려고 하는 노인에게 넷째 아들인 寅吉이 말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은 방해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금세, 아이고 허리야…지요.”

“건방진 녀석이. 아직 팔에 나이는 먹게 안 한다. 새파란 너에게는 지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일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안마를 시키는 것이 고되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일하라, 일하라”

×

몸빼 모습의 누나 딸 옥해가, 아침식사를 머리에 이고 날라왔다.

봄, 여름, 가을에는 세 번 씩의 식사를 들에서 하는 것이 金村家の 습관이었다. 더욱이 대동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 해부터였지만—

“기다리고 있었습시다”

寅吉이 반기는 소리를 내며, 누나 앞에 뛰어 나왔다.

“싫어, 손을 씻고 와야 해”

옥희는 큰 느티나무 그늘에 자리를 펴고, 그 위에 식사를 놓았다.

일동은 동그랗게 앉으며 사이좋게 먹기 시작했다.

맨 먼저 다 먹은 寅吉은 재빨리 각반을 치면서, “아버지!”

“장난스러운 웃는 얼굴로 불렀다.

“뭘야!”

“보리 베기 같은 것은 안도와도 되니까, 義雄 형이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쓸 데 없는 소리란 하지 마라! 義雄에게는 엄마가 붙어 있어요, 빨리 준비하고 가 보라. 또 학교에 늦겠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턱대고 화를 내는 것이지요. 갑종합격이 되어 달라고, 갑종이 되면 상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되고……”

“이놈 또 지껄이느냐”

“아니야, 아니야”

寅吉은 가방을 활각 손에 쥐며 도망하면서,

“그래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義雄 형이 갑종합격하면 상투를 자른다는 약속입니다”

×

金村 노인은 이날, 하루 종일 덜 떠서 침착하지 못했다.

큰마음 먹고 검사장에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누르며 애오라지 처와 義雄의 귀가를 기다리며 지쳤다.

“마누라야, 네일 아침에 이것을 義雄에게 먹여라”

갓 낡은 달걀을 다섯 개, 마누라에게 주어줄 때의 자신의 기분을 생각하면, 義雄의 갑종합격을 마음으로부터 빌고 있었음에 틀림없으나,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義雄이, 무슨 연유로 정말 갑종이 되기라도 한다면, 노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베지 않을 작정으로 있었던 상투를 잘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義雄이 丙種이라도 된다면. 金村 노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생각이었다.

그런 가운데 해가 졌다.

×

그 다음날 점심때쯤, 金村 노인은 낮부끄럽게도 읍내의 이발소를 나왔다. 寅吉과의 약속을 지켜서,